
성경 66권의 흐름과 핵심

신구약 성경 개관

최용진



신구약 성경 개론

성경 66권의 흐름과 핵심

최용진

판권

신구약 성경 개론

초판 발행 2026년 8월 17일

지은이 최용진

펴낸이 최용진

펴낸곳 갓플리징북스

출판사 등록 2011년 11월 30일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71번길 18-7

전화 070-8065-4818

전자우편 thaigodpleasing@naver.com

ISBN 979-11-91518-65-8

가격 5,000원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최용진목사의
“성경 66권 해설서”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저자 소개

최용진 선교사는 칼빈신학교(용인)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장합동, M.Div.)을 졸업하고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2010년 성남노회에서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로 파송받은 뒤 광주에서 갓플리징(God-Pleasing) 다문화교회를 개척하여 10여 년간 섬겼다. 2020년에는 갓플리징교회의 파송을 받아 태국으로 나아갔으며, 현재 GMS 선교사로 태국 우돈타니에서 교회 개척과 문서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 66권 해설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 「은혜의 교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선교사」 등이 있다.

일러두기

이 책은 성경 전체를 열 개의 큰 묶음으로 살피는 개관과 성경 각 권의 서론을 함께 엮었다. 각 권의 역사적 배경과 문학적 성격, 핵심 신학과 구속사적 흐름, 그리스도와 복음, 읽는 방법을 일정한 틀 안에서 제시한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느헤미야는 본래의 통일성과 출판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각각 하나의 통합 서론으로 배치하였다. 각 권에 반복되던 참고 자료는 책 말미의 구약·신약 참고서적으로 통합하였다.

제1부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모세오경은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로 이루어진 구약의 첫 다섯 책이다. 유대 전통은 이를 ‘토라’, 곧 가르침이라 부르고 헬라어 전통은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의 오경이라 불렀다. 오경은 창조와 타락에서 시작하여 족장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광야 훈련과 약속의 땅 문턱까지 이어지며 구약의 역사·예배·윤리·예언을 이해하는 토대를 놓는다. 신약도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증언하는 정경적 기초로 사용한다(눅 24:27, 44; 요 5:46).

2. 역사·문학적 성격

오경은 기원 이야기, 족장사와 출애굽 역사, 언약 체결, 율법과 제사 규례, 족보·인구 조사, 시와 설교가 결합된 통일된 언약 문서다. 본문과 성경 전체의 증언은 모세를 중심 저자와 중보자로 제시하며, 그의 죽음 기록 같은 부분에 후대의 영감된 정리 가능성을 인정해도 모세적 기원과 권위는 훼손되지 않는다(출 24:4; 민 33:2; 신 31:9, 24; 수 1:7-8). 문서가설처럼 가정된 자료들을 본문의 실제 역사와 최종 통일성보다 앞세워 오경을 여러 시대의 종교적 산물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롱맨·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오경 서론; 『개혁주의 스테디 바이블』 구약 1, 오경 서론).

3. 전체 흐름

창세기는 선한 창조와 인간의 반역,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은혜, 아브라함의 씨·땅·열방의 복에 관한 약속을 보여 준다. 출애굽기는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종 된 백성을 구원하여 언약을 맺고 성막에 거하시는 과정을 기록한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속죄와 정결과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가르친다. 민수기는 광야 세대의 불신과 심판 속에서도 약속을 이어 새 세대를 준비하시는 신실하심을 증언한다. 신명기는 땅에 들어가기 전 언약을 갱신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되 장차 마음의 할례와 회복이 필요함을 밝힌다.

4. 핵심 신학

오경의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세우고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구속자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나 죄로 임재에서 쫓겨났고, 홍수와 바벨과 광야의 반역은 죄가 개인과 공동체와 피조세계 전체를 무너뜨림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한 백성을 택해 열방의 복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다. 출애굽의 구원이 율법 수여보다 먼저라는 순서는 중요하다. 율법 준수는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속량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언약적 응답이다(출 19:4-6; 20:2; 신 6:4-5).

성막과 제사, 정결 규례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길을 여심을 드러낸다. 땅은 인간이 절

대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선물이며, 안식일·안식년·희년은 시간과 노동과 경제생활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금송아지와 광야 반역, 모세 자신의 실패와 신명기의 경고는 외적 구원과 율법만으로 완고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을 보여 주며 더 깊은 속죄와 새 마음을 기다리게 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고 열방에 복을 가져오시는 분이다(창 3:15; 12:1-3; 갈 3:16). 그는 유월절 어린양, 광야에서 들린 낫뱀, 하늘의 양식, 반석에서 난 물, 성막과 제사와 대제사장이 가리키던 구원을 자기 죽음과 부활 안에서 완성하신다. 또한 모세보다 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자기 백성을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신다(요 1:14, 29; 3:14-15; 6:32-35; 고전 10:1-4; 히 3:1-6; 8-10 장). 각 인물과 물건을 임의로 일대일 대응시키기보다 신약의 인용, 언약과 제도의 발전, 출애굽과 임재라는 큰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께 연결해야 한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권).

6. 읽는 방법

오경의 서사와 법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법은 구원 이야기 안에서 주어졌고, 서사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약속과 심판과 은혜를 이루신 일을 증언한다. 제사·정결·음식·시민 규례를 오늘의 교회에 문자적으로 복제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의법과 이

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시민법,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도덕적 요구를 구분하면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동시에 ‘은혜 아래 있다’는 말로 창조 질서와 십계명의 도덕적 요구를 폐기해서도 안 된다. 어려운 전쟁과 심판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과 오래 참으심, 죄의 충만함, 구속사의 독특한 심판을 함께 살피며 현대의 종교 폭력이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지 않아야 한다.

창세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창세기는 성경 전체와 모세오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로 타락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 가시는 큰 흐름이 여기서 시작된다. 따라서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인간, 죄, 언약,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서론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를 따라 이 책을 ‘베레쉬트’, 곧 ‘태초에’라고 부른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명칭 ‘게네시스’는 ‘기원’ 또는 ‘발생’을 뜻하며, 여기에서 한국어 ‘창세기’와 영어 Genesis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책은 우주와 인류, 죄와 죽음, 언약 백성과 구원 약속의 시작을 다룬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창세기 자체는 저자와 기록 연대를 직접 밝히지 않지만, 성경과 유대교·기독교 전통은 오경의 기본적인 저작 권위를 모세와 연결해 왔다(출 24:4; 신 31:9; 눅 24:27, 44; 요 5:46-47). 창세기의 사건들은 모세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다루지만, 이 책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을 향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친다. 따라서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는 고대 인물들의 전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기원과 사명을 설명하는 권위 있는 역사이자 신학적 증언으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창세기의 첫 독자는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우상 문화 사이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창세기는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존재가 인간의 우연이나 민족적 우월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언약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르친다. 이 책은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을 위해 열방 가운데 부름 받았는지를 설명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에덴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였지만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죄악 된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이 흐름은 모세오경 전체에서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새 창조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빅터 해밀턴, 『NICOT 창세기』;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창세기 서론).

창세기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숨기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족은 모두 연약하고 때로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약속하시며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사람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많은 생명을 보존하신다(50:20). 특히 요셉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약속의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명하게 보여 준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세기는 하나님의 왕권과 약속된 씨의 소망도 보여 준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곧 창조 세계를 돌보며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창조주께 반역하여 그 복된 통치와 처소에서 쫓겨났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3:15),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땅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씨를 통한 열방의 복(12:1-3; 17:7-8; 22:18), 유다에게서 나올 통치자의 약속(49:8-12)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참된 왕의 길을 준비하신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신약은 첫 아담의 불순종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조하며 창세기의 약속이 복음 안에서 성취됨을 밝힌다(롬 5:12-21; 갈 3:16).

7. 그리스도와 복음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타락 직후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모리아에서 이삭 대신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3:15; 15장; 22:8-14). 이 사건들을 그리스도의 대속과 일대일로 단순 대응시켜서는 안 되지만, 창세기 전체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보존하시고 희생 제물을 마련하시며 약속의 씨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시는 구속사적 방향이 흐른다. 그 방향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희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드러난다.

8. 읽는 방법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는 각 인물의 도덕적 모범만 찾기보다, 하나님이 죄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어 가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15:6), 족장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본향을 바라보았다(히 11:8-22).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첫 빛을 담고 있으며, 요셉의 죽음과 출애굽의 소망으로 끝나 다음 구원 사건을 기다리게 한다(50:24-26).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창세기는 크게 원시 역사(1-11장)와 족장 역사(12-50장)로 전개된다. 앞부분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은혜를 보여 준다. 뒷부분은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가문을 선택하여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열방을 복 주실 길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 준다. 창세기에 반복되는 ‘톨레도트’, 곧 ‘내력/족보’ 표제를 따라 보면 이 흐름은 아담 안에서 복이 저주로 기울어지는 역사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저주 가운데 복이 이어지는 역사로 선포해진다(에리 C. 리더, 『에덴의 동쪽에서』).

출애굽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창세기의 언약 약속이 한 가족의 구원에서 한 백성의 형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기록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과 성막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는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언약, 예배와 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적 내러티브이자 율법서다. 책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시작하여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끝난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의 말에서 이 책을 ‘베엘레 쉘모트’, 곧 ‘그리고 이 이름들은’이라고 부르며 창세기와의 연속성을 드러낸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명칭 ‘엑소도스’는 ‘나감’ 또는 ‘탈출’을 뜻하고, 여기에서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나 책의 범위는 애굽을 떠나는 1-18장에 머물지 않고, 시내산 언약과 성막 완성까지 이어진다. 하나님은 백성을 압제에서 ‘이끌어 내어’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19:4; 29:45-46).

3. 저자와 기록 연대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이자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이며,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과 여정을 기록했다고 거듭 증언한다(17:14; 24:4; 34:27; 민 33:2). 구약과 신약도 출애굽기의 율법을 모세와 연결한다(수 8:31; 막 7:10; 12:26). 책에 삼인칭 서술이나 후대 독자를 위한 지명 설명과 같은 흔적이 있더라도, 이는 모세의 실질적 저작 권위와 광야 세대라는 기본 배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 시대의 서로 충돌하는 문서들을 후대 편집자가 조합했다는 비평적 가설은 본문의 통일된 구원·언약·임재의 흐름과 성경 자체의 증언보다 우선할 수 없다. 핵심 기록은 출애굽과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모세와 광야 공동체에 뿌리를 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강제 노동과 남자 아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셨다(2:23-25). 첫 독자인 광야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라는 옛 정체성을 벗고 여호와와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19:4-6). 출애굽기의 목적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는지, 구속받은 공동체가 말씀과 예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임재를 누릴지를 가르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내가 될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성취하신다(3:14-15). 그분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며 내려와 구원하시고,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의 신들 위에 있는 주권을 드러내신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한 책임과 하나님이 그를 심판 가운데 완악하게 하신 주권을 함께 말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다른 쪽을 지워서는 안 된다(8:15, 32; 9:12; 더글러스 K. 스튜어트, 『출애굽기』).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이미 구속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생활 방식이다(20:2). 십계명과 언약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배와 공의, 생명과 재산, 약자 보호를 함께 다룬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되 자신이 정하신 중보와 속죄와 예배의 길을 통해 가까이 오심을 보여 준다. 금송아지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도 우상숭배로 언약을 깨뜨릴 수 있음을 드러내지만,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임재가 지속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과 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적 구원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소유에서 빼내 자기 소

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 열방 가운데 자신의 거룩함과 통치를 나타내게 하신다(6:6-8; 19:4-6). 유월절의 피, 바다를 통과한 구원, 시내산 언약, 성막의 임재는 이후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기본 문법이 된다. 선지자들은 포로에서의 회복을 새 출애굽으로 묘사하고, 성막은 에덴의 잃어버린 임재를 부분적으로 회복하며 장차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희생되신 참된 어린양으로서 심판받아야 할 자기 백성을 피로 구속하신다(고전 5:7; 뱀전 1:18-19). 그는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셨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성전으로 제시한다(요 1:14; 2:19-21). 그러므로 출애굽의 복음은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다만 재앙·기구·재료의 모든 세부에 임의의 기독교론적 상징을 붙이지 말고 신약과 정경이 분명히 이어 주는 선을 따라야 한다.

8. 읽는 방법

출애굽기를 현대의 정치적 해방 선언으로만 축소하거나, 반대로 역사와 사회적 억압을 지운 채 개인 영혼의 비유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실제 역사 속 압제를 심판하고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의 목표는 인간의 자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적 자유다. 십계명과 율법은 행위로 구원받는 제도가 아니라 은혜로 구속된 백성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삶을 규정한다. 오늘 적용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제의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적 형식, 창조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 원리를 구분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과 이웃 사랑이라는 통일성을 보아야 한다.

재앙과 바다 사건을 자연 현상으로만 환원하거나 설화로 돌리지 말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압제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로 읽어야 한다. 동시에 그 사건을 오늘의 신자가 임의로 모방할 폭력의 허가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막의 치수와 색과 기구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숨은 뜻을 붙이기보다, 거룩·속죄·중보·임재라는 본문의 중심을 따라 읽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원망과 금송아지를 타인의 실패로만 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에 맞게 만들려는 모든 시대 언약 공동체의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 주제: 출애굽의 연대와 역사성

출애굽 연대에는 대표적으로 두 견해가 있다. 열왕기상 6:1의 ‘출애굽 후 사백팔십 년’과 사사기 11:26의 기간을 통상적인 연대 자료로 받아 주전 1446년경을 제시하는 이른 연대 견해가 있으며, 출애굽기 1:11의 라암셋 지명과 애굽의 제19왕조 및 고고학적 자료를 연결하여 주전 13세기를 제시하는 늦은 연대 견해가 있다(더글러스 K. 스텐어트는 이른 연대를 지지한다). 라암셋이라는 명칭이 후대 독자를 위한 지명 갱신일 가능성과 성경의 수가 가진 기능, 애굽 연대기의

재구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제한된 자료 이상으로 세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연대 논쟁과 별개로 성경은 출애굽을 이스라엘의 예배·율법·언약 정체성이 뿌리내린 실제 구원 사건으로 일관되게 기억한다(출 12:26-27; 신 5:6, 15; 26:5-9). 애굽 문헌이나 시내 광야의 고고학 자료가 성경의 모든 세부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후대의 민족 창건 신화로 바꾸는 것은 성경 자체의 증언을 훼손한다. 반대로 불확실한 유물이나 지명을 출애굽의 결정적 증거라고 과장해서도 안 된다. 확실한 고백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며, 정확한 바로의 이름과 연대는 그 고백보다 낮은 차원의 열린 문제다(트럼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출애굽기 서론).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25

애굽의 압제와 구원자로 준비되는 모세를 다룬다.

3:1-11:10

모세의 부르심과 바로를 향한 재앙을 다룬다.

12:1-13:16

유월절과 출애굽을 다룬다.

13:17-19:25

바다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다룬다.

20:1-31:18

십계명과 언약법,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지시를 제시한다.

32:1-34:35

금송아지 반역과 모세의 중보, 언약의 갱신을 기록한다.

35:1-40:38

백성이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지는 장면으로 마친다. 이 흐름은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을 맺고, 죄 가운데서 중보와 용서를 경험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세우는 데 이른다.

레위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이며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직접 이어 간다. 여호와와 영광이 완성된 성막을 채우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 어떻게 계속 거하시며 백성이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출 40:34-35; 레 1:1). 제사·제사장·정결·속죄와 거룩한 삶에 관한 규례를 통해,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몸과 가정과 경제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가르치는 언약의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를 따라 이 책을 ‘바이크라’, 곧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첫 장면은 레위기의 규례가 인간이 만든 종교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밝힌다. 한국어 ‘레위기’는 헬라어 칠십인역의 ‘레위티콘’과 라틴어 명칭을 따른 것으로 ‘레위인에 관한 책’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나 레위인은 책에서 거의 중심으로 다루어지지 않으며, 제사장이 집행하고 가르칠 규례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킬 거룩한 삶을 다루므로 제사장만을 위한 전문 지침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레위기는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선언하며, 시내산과 회막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계시로 자신을 제시한다(1:1; 7:38; 25:1; 26:46; 27:34). 예수님도 레위기의 정결 규례를 ‘모세가 명한 것’으로 인정하셨고, 바울 역시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의로 인용한다(마 8:4; 롬 10:5). 후대의 보존과 배열 또는 독자를 위한 작은 설명 가능성이 모세의 실질적인 저작 권위와 시내산 기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레위기를 서로 다른 시대의 제사장 집단이 포로기 이후 만들어 낸 법전으로 환원하는 비평적 견해는 책 자체와 정경의 증언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핵심 규례는 출애굽 제2년 성막이 세워진 뒤 시내산을 떠나기 전의 짧은 기간에 주어졌다(출 40:17; 민 1:1).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바다의 구원을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 금송아지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전히 죄와 우상숭배의 위험을 지닌 백성이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므로 죄와 부정은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넘어 성소와 공동체를 더럽히고 임재를 위협했다. 첫 독자인 광야 공동체는 가나안의 종교와 생활 방식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와 제사장직, 정결과 절기, 공의와 사랑의 질서를 배워야 했다. 레위기는 구원을 얻을 공로를 쌓게 하려는 책이 아니라, 이미 구속되고 언약 안에 세워진 백성이 속죄의 은

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레위기의 중심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이다(11:44-45; 19:2).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위엄과 도덕적 완전함이며, 이스라엘의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성품과 질서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거룩은 의식의 정확성에 머물지 않는다. 레위기 19장은 제사와 안식일을 부모 공경, 가난한 자를 위한 이삭 남기기, 정직한 재판과 품삯, 장애인 보호, 이웃과 거류민 사랑과 한데 묶는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레위기 안에서 이미 예배와 사회 윤리를 통합한다(19:18, 34).

제사는 하나님의 호의를 사는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먼저 허락하신 접근과 속죄의 길이다. 번제·소제·화목제·속죄제·속건제는 속죄와 헌신, 감사와 교제, 죄와 부정의 정결, 손해의 배상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 준다. 피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이 제단에서 속죄하도록 주신 것이므로, 죄 사함은 값싼 목인이 아니라 대리적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17:11).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출애굽의 은혜를 지우고 행위 공로로 영생을 사는 공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길을 말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불순종은 완전한 순종과 더 나은 속죄의 필요를 드러낸다(18:5; 롬 10:5; 갈 3:12).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레위기는 출애굽으로 세우신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막 중심의 삶으로 구체화한다. 왕이신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백성을 가르친다(10:10-11). 안식년과 희년은 땅과 시간과 재산과 이스라엘 자신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구속받은 백성이 다시 영구적인 종살이와 탐욕의 질서로 돌아가서는 안 됨을 선언한다(25장). 그러나 반복되는 제사와 속죄일은 죄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언약의 복과 저주 뒤에도 회개하는 백성을 기억하실 약속은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삭·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26:40-45).

7.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제사와 제사장직과 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으로 사용한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제사해야 했고 죽음 때문에 직분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죄 없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물이시다(히 7:23-28; 9:11-14; 10:1-14). 속죄일의 피와 죄를 지고 진 밖으로 나가는 염소는 죄책과 부정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보여 주며,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레 16:20-22; 히 13:11-12). 복음은 거룩의 요구를 낮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죄인을 깨끗하게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으로 빛는다.

8. 읽는 방법

레위기를 폐지된 종교 의식의 목록으로 건너뛰거나, 반대로 제물의 모든 부분과 숫자와 동작에 임의의 기독교적 상징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먼저 각 규례가 이스라엘의 성막·언약·땅이라는 문맥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며 신약이 어떤 원리를 재확인하는지 물어야 한다(고든 J. 웬함, 『레위기』 서론). 동물 제사와 아론 제사장직, 음식과 의식적 정결의 경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형벌을 교회가 그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죄의 심각성, 대속의 필요, 성적 순결, 정직과 배상,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향한 사랑은 새 언약 백성에게도 지속되는 신학적·도덕적 원리다.

레위기의 성 규례를 현대 문화의 욕망에 맞추어 폐기해서도 안 되고, 특정 죄인만 골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의 창조 질서와 신약의 재확인을 따라 성적 거룩을 가르치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서와 성화가 필요한 죄인임을 함께 고백해야 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신성모독자의 심판은 인간이 예배를 마음대로 설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경고하지만, 현대 교회가 옛 언약의 국가적 형벌을 집행할 권한을 준 본문은 아니다. 희년 역시 현대 경제 제도 하나와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가난과 영구적 예측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원리를 먼저 보아야 한다.

특별 주제: 정결·부정과 몸의 의미

레위기의 ‘부정’은 언제나 개인의 도덕적 죄를 뜻하지 않는다. 출산, 정상적인 몸의 유출, 시체 접촉처럼 그 자체로 죄가 아닌 상태도 사람을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하여 성소 접근을 제한했다. 정결한 것은 일상 영역에 속하여 성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거룩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영역이므로 ‘정결=의로움’, ‘부정=도덕적 악’, ‘거룩=건강’으로 단순 등치할 수 없다(레 10:10; 존 E. 하틀리, 『레위기』). 이 규례들은 죽음과 생명의 상실, 경계의 손상과 온전함을 가시적으로 가르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했다.

따라서 피부 질환을 현대의 한센병과 무조건 동일시하거나 질병·장애·출산을 개인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의학적 치료자라기보다 공동체와 성소의 경계를 판정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배제된 이들을 만지시되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의 지배를 이기는 새 창조의 정결을 가져온다(막 1:40-45; 5:25-34). 신약에서 음식과 의식적 경계는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법으로 유지되지 않지만, 몸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존중하고 죄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진리는 남는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7장

번제·소제·화목제·속죄제·속건제와 그 집행 규례를 다룬다.

8-10장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 및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다룬다.

11-15장

음식·출산·피부 질환·유출에 따른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설명한다.

16장

대속죄일에 성소와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정결하게 되는 중심 장면이다.

17-20장

피와 제사, 성과 가족, 이웃 사랑을 포함한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다룬다.

21-22장

제사장과 제물의 거룩을 다룬다.

23-25장

절기·안식년·禧년과 땅의 질서를 제시한다.

26장

언약의 복과 저주 및 회복의 가능성을 다룬다.

27장

서원과 봉헌을 다룬다. 이 구조의 신학적 중심에는 속죄일이 있으며, 속죄받은 백성의 거룩이 성소에서 일상과 땅 전체로 확장된다.

민수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시내산에서 조직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다. 출애굽기에서 구속되고 레위기에서 거룩한 예배와 삶을 배운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편성하여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지만, 반복되는 불신과 반역으로 첫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 세대가 일어난다. 인구 조사와 행군 기록, 율법과 제사, 기도와 노래, 반역 이야기와 예언, 전쟁과 상속법이 함께 놓인 복합적인 책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죄인을 징계하고 보존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의 언약 이야기를 이룬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의 주요 표현을 따라 이 책을 ‘베미드바르’, 곧 ‘광야에서’라고 부른다. 광야는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시험받는 장소다. 헬라이어 칠십인역의 ‘아리트모이’는 ‘숫자들’을 뜻하며 1장과 26장의 두 인구 조사에서 유래한다. 여기에서 한국어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두 이름은 서로 보완적이다. 두 차례 계수된 두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책의 큰 흐름을 이룬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과 광야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계시로 자신을 제시하며, 모세가 여정을 기록했다고 밝힌다(1:1; 33:2; 36:13). 예수님과 사도들도 광야 사건과 모세의 율법을 역사적·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용한다(요 3:14; 고전 10:1-11). 다양한 목록과 법, 시와 이야기, 고대 자료의 인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모세의 실질적 저작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모세가 자료를 사용하고 후대에 작은 지명 설명이나 보존상의 정리가 있었을 수 있으나, 책을 서로 무관한 전승을 후대 편집자가 조합한 허구적 광야 이야기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핵심 배경은 출애굽 제2년 시내산에서 출발할 준비를 한 때부터 제40년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진을 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아와, 가데스 바네아, 고라의 반역과 바알브올 사건에서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들도 불신과 불순종을 드러냈다. 특히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첫 세대가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계수된 세대는 광야에서 죽는 심판을 받았다(13-14장). 첫 독자인 모압 평지의 새 세대는 부모 세대의 실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신뢰하며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다. 민수기는 언약 공동체에 속하고 큰 구원을 경험한 것만으로 믿음이 자동 보장되지 않음을 경고하면

서도, 징계 가운데 약속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민수기의 첫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다. 성막은 진 한가운데 있고 지파들은 그 둘레에 배치되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친다(2:17; 9:15-23).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군대이자 거룩한 회중이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막의 경계를 지키고 백성을 축복하며 죄와 부정 때문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지도력과 예배 질서를 인간의 야망으로 차지하려 한 고라의 반역은 거룩한 직분이 자기 높임의 수단이 아님을 경고한다.

둘째 중심은 불신과 중보, 심판과 은혜다. 백성은 음식과 물과 길을 원망하고 애굽을 미화하며 약속의 땅보다 눈앞의 거인을 크게 보았다. 모세와 아론도 므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는 실제 죽음과 세대의 상실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통해 공동체를 보존하고 심판 직후에도 제사와 상속과 땅을 다시 말씀하신다. 발람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지만, 곧이어 백성이 스스로 모압의 우상숭배에 참여한다. 외부의 저주보다 내부의 불신과 배교가 더 큰 위협이며, 소망은 더 우수한 세대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두 인구 조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첫 세대가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은 새 세대를 계수하여 땅의 기업을 받게 하신다. 발람은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신다고 선포하며, 야곱에게서 한 별과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와 원수를 다스릴 것을 예언한다(23:21; 24:17). 가까이서는 다윗 왕권을 바라보지만, 정경 전체에서는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왕의 소망으로 확대된다. 슬로브 핫의 딸들, 도피성, 레위인의 성읍과 땅의 경계는 약속의 땅이 무질서한 정복물이 아니라 공의와 생명 보호 아래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언약의 기업임을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민수기는 광야에서 죽어 가는 백성에게 필요한 구원을 독특한 표지들로 보여 준다. 예수님은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들린 뱀뱀을 바라보고 산 사건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밌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일과 직접 연결하셨다(21:4-9; 요 3:14-16). 히브리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선포한다(19장; 히 9:13-14). 모세는 백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중보했으나 자신의 죄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고, 아론의 제사장직도 반복되는 진노를 최종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와 영원한 대

제사장이며, 발람이 본 별과 규의 약속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죄와 죄 중 심판에서 구하고 의로 다스리신다.

8. 읽는 방법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단순한 불평 금지나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 하라는 교훈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이 세운 지도력을 존중 하되, 모세와 아론의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심판받았음을 함께 보아야 한다.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처럼 광야 사건을 교회의 경고 로 받아들이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신자를 불신앙으로 정죄 해서는 안 된다. 참된 믿음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끝까지 따르는 데서 나타난다. 가나안과 미디안에 대한 전쟁 명령도 특정한 구속사적 심판이지 현대의 종교 폭력이나 민족 전쟁을 허가하는 일반 명령이 아니다.

발람을 단순히 말하는 나귀의 기이한 이야기로 읽지 말고, 돈과 명예를 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의 위험을 보아야 한다(벧후 2:15; 유 11). 늦밤은 하나님이 정하신 치유의 표지였지만 훗날 우상이 되자 히스기야가 파괴했다(왕하 18:4). 은혜의 수단 자체를 숭배하거나 인간이 통제할 종교적 도구로 만들 수 없다는 경고다. 인구 조사와 진영 규례, 반복되는 명단은 건너뛰 불필요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알고 역할과 기업을 맡기시며 공동체를 질서 있게 보존하신다는 이야기 안에서 읽어야 한다.

특별 주제: 두 인구 조사의 큰 수

민수기 1장과 26장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십 세 이상 남자가 약 육십만 명이었다고 기록한다. 가족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가 이백만 명 안팎에 이를 수 있어 광야의 식량·물·진영 규모와 고대 인구를 고려할 때 매우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견해, 히브리어 ‘엘레프’를 ‘천’이 아니라 씨족이나 군사 단위로 이해하는 견해, 고대의 수사적·상징적 표현 또는 본문 전승 과정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다(송병현, 『민수기』; 고든 J. 웬함, 『민수기』). 그러나 ‘엘레프’의 뜻을 일률적으로 바꾸면 각 지파의 합계와 총계의 관계 및 다른 본문을 설명하기 어려워 어떤 대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논쟁에서는 성경의 정직한 수치 제시를 가볍게 신화로 돌리지 않으면서, 현대 통계의 정밀성과 고대 숫자 사용법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본문이 강조하는 확실한 사실은 야곱의 작은 가족을 큰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첫 계수 세대에 임한 실제 심판, 그리고 새 세대를 보존하여 기업을 주신 신실하심이다. 정확한 인구 산정 방식은 열린 해석 문제로 남겨 두되, 그 어려움을 이유로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체의 역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개혁신주의 스터디 바이블』 민수기 서론).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0:10

시내산에서 첫 인구 조사, 진영과 레위인의 조직, 정결과 유월절, 나팔 규례를 통해 출발을 준비한다.

10:11-25:18

광야에서 행진한 첫 세대가 원망과 지도력 도전, 땅을 거부한 불신, 고라의 반역과 바알브올의 배교를 거치며 심판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26:1-30:16

두 번째 인구 조사와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 여호수아의 위임, 제사와 서원을 통해 새 세대를 준비한다.

31:1-36:13

미디안 전쟁, 요단 동쪽 지파의 정착, 여정 회고, 땅의 경계·도피성·상속을 다루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끝난다. 내러티브 사이의 법 단락은 흐름을 끊는 부록이 아니라 반역과 죽음 뒤에도 하나님이 공동체가 살아가고 예배할 미래를 열어 두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메리더글러스의 법과 내러티브의 상응 관찰은 이 통일성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송병현, 『민수기』).

신명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으로, 약속의 땅 동쪽 모압 평지에 선 새 세대에게 모세가 전한 언약적 설교와 그 마지막 행적을 담는다.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해석하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가나안에서 살아갈 세대에게 다시 가르치지만, 단순히 앞선 법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언약을 갱신하고,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할 신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첫 구절의 표현을 따라 ‘말씀들’을 뜻하는 ‘데바림’이다. 헬라어 칠십인역과 라틴어 전통의 명칭은 17장 18절의 ‘이 율법의 등사본’을 ‘두 번째 율법’으로 옮긴 데서 유래했고, 여기에서 ‘신명기’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나 이 책은 처음 율법과 경쟁하는 새 법전이 아니라, 호렙에서 주신 토라를 새 세대의 삶에 설명하고 적용한 언약의 말씀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신명기는 대부분을 모세의 연설로 제시하고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고 증언한다(1:1-5; 31:9, 24). 구약과 신약도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와 연결한다(왕하 14:6; 마 19:7-

8; 행 3:22). 마지막의 모세 죽음과 이후 평가 같은 부분은 영감받은 후대의 기록자가 덧붙였을 수 있지만, 이것이 책의 기본적인 모세 저작권과 역사적 배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명기를 포로기 개혁자들이 모세의 이름으로 만들어 낸 문서로 보는 비평적 가설은 책 자체와 성경 전체의 증언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핵심 연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주전 15세기 또는 13세기의 모압 평지라는 역사적 상황에 놓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출애굽 첫 세대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었고, 새 세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세는 자신이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와 광야를 거쳐 모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백성의 반역을 회고한다. 첫 독자들은 풍요와 우상숭배, 가나안의 종교와 강한 민족들 앞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을 위험에 놓였다. 신명기는 땅을 자기 힘으로 얻은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받으며, 세대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충성하도록 준비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신명기의 중심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이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며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6:4-5). 이 사랑과 순종은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조상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백성은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한다(7:6-8; 10:15-16). 말씀

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되새겨야 한다.

땅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상숭배와 불의 속에서도 자동으로 보장되는 소유물이 아니다. 왕과 제사장과 재판관과 선지자는 모두 말씀 아래 있으며, 약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한 공의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열매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실제 역사와 삶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만, 개인의 모든 번영과 고난을 단순한 행위 보응 공식으로 해석하게 하지는 않는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신명기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땅과 자손의 약속, 출애굽의 구원, 호렙 언약을 한 흐름으로 묶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로서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완고함을 알고 불순종과 포로를 예고한다. 동시에 마음을 다해 돌아올 때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을 약속한다(30:1-10). 이 약속은 외적 율법만으로 고칠 수 없는 인간 마음의 문제와 새 언약의 내적 갱신을 바라보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신명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자기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다(18:15-19). 신약은 예수님을 이 약속을 완성하는 선지자로 증언하며, 그는 광야 시험에서 신명기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바로 걸으셨다(마 4:1-11; 행 3:22-26). 또한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자에게 선언된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에 이르고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셨다(신 21:22-23; 갈 3:13-14). 복음은 말씀을 폐기하지 않고, 순종하신 아들과 저주를 담당하신 구주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신다.

8. 읽는 방법

신명기를 은혜와 대립하는 율법주의의 책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출애굽의 구원이 있으며, 순종은 이미 구속받은 백성의 사랑과 감사의 응답이다. 가나안 전쟁과 우상숭배 심판은 개인적 폭력이나 종교 전쟁을 허가하는 본문이 아니라, 오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심판과 언약 백성 보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복과 저주를 번영신학의 공식으로 만들지 말고, 신명기의 법을 현대 국가에 그대로 옮기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적 위치와 창조 질서·도덕적 원리·이스라엘의 시민법적 특성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4:43

호렐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며 과거의 불순종에서 배우도록 하는 첫 연설이다.

4:44-11:32

십계명과 쉼마를 중심으로 여호와만 사랑하고 기억하라는 언약의 기본 요구를 밝힌다.

12-26장

예배의 장소, 우상숭배, 지도자, 정결, 절기, 사회적 정의, 전쟁과 가정생활 등 약속의 땅에서 십계명이 적용되는 구체적 삶을 다룬다.

27-30장

언약 갱신과 복과 저주, 포로 이후의 회복, 생명과 죽음의 선택을 제시한다.

31-34장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율법을 맡기며 모세의 노래와 축복, 죽음을 기록한다.

역사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의 구약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열두 권으로, 가나안 진입에서 사사 시대와 왕국의 흥망, 포로와 귀환 및 디아스포라의 보존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한다. 히브리 정경에서는 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서·열왕기가 ‘전기 예언서’에 속하고, 룻기·역대기·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는 성문서에 배열된다. 이 차이는 역사서가 단순 연대기가 아니라 예언자적·언약적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역사서는 실제 인물·장소·전쟁·왕조·조서·귀환 명단을 기록하지만 현대의 중립적 사건 목록처럼 쓰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백성의 우상숭배와 불의가 심판을 부르며, 회개와 은혜가 회복의 길임을 보여 준다. 특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신명기의 언약 기준과 긴밀하여 흔히 ‘신명기적 역사’라고 불리지만, 이를 포로기의 한 편집자가 과거를 임의로 다시 만든 허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명칭은 이미 역사 속에서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왕과 백성의 행위를 평가한다는 신학적 관찰로 제한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트럼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신학적 역사에 관하여」).

3. 전체 흐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땅에서 언약에 충성해야 할 책임을 보여 준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 왕 없는 시대의 도덕적 붕괴를 기록한다. 룯기는 그 어두운 시대에도 섭리와 인애로 다윗의 계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사무엘서는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실패, 다윗의 선택과 언약을 다루고,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여 마침내 포로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 공동체에게 다윗 계보와 성전 예배와 회개의 소망을 다시 제시한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성전·말씀·성벽과 공동체의 회복을, 에스더는 이방 제국 안에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시는 숨은 섭리를 보여 준다.

4. 핵심 신학

역사서의 중심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왕권이다. 땅과 왕과 성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자동적인 안전 보장이 아니며, 우상숭배와 약자 억압과 형식적 예배는 언약의 심판을 부른다. 선지자의 말씀은 왕의 권력보다 높고, 왕의 성패는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평가된다. 반복되는 인간 지도자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 포로 후 귀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신다. 심판과 보존, 남은 자와 회복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역사서가 보여 주는 사사와 왕과 성전의 불완전함은 의롭고 영원한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원수와 죄에서 구원하는 참 사사이자 왕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참 성전이다. 다윗 언약은 그의 부활과 왕권 안에서 성취되고, 포로와 귀환의 흐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더 큰 구원을 바라본다(삼하 7:12-16; 눅 1:32-33; 행 2:29-36; 요 2:19-21). 다윗이나 다른 인물을 흠 없는 그리스도의 직접 복제물로 만들지 말고, 언약적 직분과 약속 및 실패의 대비를 따라 연결해야 한다(『리딩지저스』 1-2권).

6. 읽는 방법

역사서를 영웅과 악인의 도덕 예화 모음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인물의 믿음과 죄를 정직하게 보되 먼저 하나님이 말씀과 섭리로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을 살핀다. 서술되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승인된 것은 아니며, 일부일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다처제, 거짓말, 복수와 권력 남용을 결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모범화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전쟁은 특정 시기의 거룩한 심판과 땅 약속의 문맥에서 읽고 오늘의 국가·교회 전쟁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역대기와 열왕기, 사무엘서의 차이는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독자와 목적에 따른 선택적·보완적 관점으로 살펴야 한다.

여호수아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뒤에 놓인 첫 역사서로,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를 다룬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은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에 이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실제 역사 속에서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 책은 여호수아 개인의 군사적 영웅담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심,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언약 백성의 책임을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모세의 후계자이자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에게서 왔다. 그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으나 모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의 여호수아로 불렀다(민 13:16). 히브리어 ‘여호수아’는 신약의 헬라어 형태로 ‘예수’와 같은 이름이지만,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의 사역과 일대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책 전체의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저자가 여러 사건의 동시대적 기억과 지리를 잘 아는 흔적을 담고 있다(24:26). 여호수아

의 죽음과 이후 사건은 영감받은 후대 기록자가 정리했을 것이다. 유대 전통은 여호수아가 대부분을 기록하고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결말을 덧붙였다고 보지만 정확한 편집 범위는 확정할 수 없다. 정복 연대는 출애굽 연대에 따라 주전 15세기 후반 또는 13세기로 제안된다. 후대의 지명 설명과 편집 표지를 이유로 책의 핵심 역사를 포로기 창작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한 새 세대는 모세 없이 요단을 건너 요새화된 성읍과 가나안 민족들을 마주해야 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백성을 이끌도록 부름 받았다(1:1-9). 책은 이스라엘에게 땅이 군사력이나 수적 우세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신 선물임을 가르친다. 또한 땅을 받은 뒤에도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며 언약에 충실해야 함을 후대에 증언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여호수아의 중심 주제는 약속의 성취다. 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신 선한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선언한다(21:43-45; 23:14).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새 세대와 함께 계심을 보여 준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자기 확신이나 공격적 야망의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율법책을 묵상하여 말씀대로 행하라는 부르심이다.

아간의 범죄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과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라합과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는 가나안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긍휼의 길이 닫힌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백성과 연합한다(2:9-11; 히 11:31). 땅의 분배와 경계, 도피성과 레위 성읍은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공의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야 함을 보여 준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역사적 성취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장소였다. 그러나 땅의 소유는 언약 순종과 분리되지 않았다. 에발산과 세겜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한 것은 정복의 목적이 영토 확장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백성의 삶을 보여 준다. 책은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남은 땅과 계속되는 우상숭배의 위험을 함께 기록한다(11:23; 13:1; 23:4-13). 따라서 여호수아의 안식은 참되지만 최종적이지 않으며 더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가나안의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종 안식은 아니었다고 밝힌다(히 4:8-11).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단지 새로운 영토로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대

장이시다. 라합이 심판받을 성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언약 백성과 메시아의 계보 안에 들어온 사건은 구원이 혈통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피하는 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 준다(마 1:5; 히 11:31).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은 한 지역의 소유를 넘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새 창조의 소망으로 확장된다(벧전 1:3-4).

8. 읽는 방법

여호수아를 성공하는 지도자의 전략서나 현대 민족의 영토 확장 근거로 읽지 말아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와 여리고 이야기는 개인적 성공과 장애물 정복의 공식이 아니라, 특정한 언약 사명에서 말씀과 임재를 신뢰하라는 명령이다. 정복 진술과 ‘아직 남은 땅’에 관한 본문을 함께 읽어 책 자체의 요약적 표현과 실제 진행을 구분하고, 서로 다른 기록을 성급히 모순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도 인간 의지의 자율성을 찬양하는 구호가 아니라, 먼저 구원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언약에 충실하라는 요구다.

특별 주제: 가나안 정복과 헤렘

가나안 정복의 ‘헤렘’은 이스라엘의 인종적 우월성이나 일반적인 정복 전쟁을 허가한 명령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오래 참으셨고, 정복은 우상숭배와 극심한 죄악에 대한 거룩한 재판으로 특정 세대와 장소에 명하신 구속사적 심판이었다(창 15:16; 신 9:4-6). 이스라엘도 같은 죄를 따

르면 동일하게 땅에서 쫓겨났으므로 심판 기준은 민족적 편애가 아니다. 라합에게 베푸신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받으시는 긍휼을 드러낸다. 교회는 이 명령을 무력으로 반복할 권한을 받지 않았으며, 신약의 싸움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복음과 기도와 거룩으로 악에 맞서는 영적 싸움이다(트럼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여호수아 서론).

9. 전체 구조와 흐름

1-5장

여호수아의 임명, 정탐꾼과 라합, 요단 도하, 기념 돌,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정복을 준비한다.

6-12장

여리고와 아이, 그리심산·에발산의 언약 예식, 기브온 사건, 남부와 북부 전투를 기록하고 정복한 왕들을 요약한다.

13-21장

아직 남은 땅을 인정하면서 요단 동서의 기업, 갈렙의 몫, 도피성, 레위 성읍을 지파별로 분배한다.

22장

요단 동쪽 지파의 제단을 둘러싼 오해와 화해를 다룬다.

23-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과 세겔 언약 갱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난다.

사사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간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교와 구원을 기록한 역사다.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지파들은 주변 민족의 우상과 생활방식을 받아들였고, 언약 공동체는 종교적·도덕적·사회적으로 점점 무너졌다. 이 책은 불완전한 영웅들의 모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의 깊은 타락과 그럼에도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구원하도록 세우신 ‘사사들’에게서 왔다. 히브리어 ‘쇼페팀’은 오늘날 법정의 재판관보다 넓은 뜻으로, 분쟁을 판단하고 백성을 이끌며 군사적 구원을 이루는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사사들은 왕조를 세운 왕도 전국을 항상 통치한 중앙 지도자도 아니었고, 여러 시대와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특정한 위기에서 백성을 구원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사무엘을 저자로 보지만 이를 확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반복과 여부스 사람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진술은 왕

정이 시작된 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후의 관점과 잘 어울린다(1:21; 17:6; 18:1; 19:1; 21:25). 그러나 정확한 기록 시기와 편집 과정은 단정하기 어렵다. 책이 정교한 문학 구조와 신명기적 평가를 지녔다는 이유로 사건의 역사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사사 시대의 전승을 영감받은 저자가 언약의 관점에서 구성한 역사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남은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중앙 정부와 지속적인 지도력은 없었고, 지파들은 외적 압제뿐 아니라 내부 경쟁과 폭력으로 분열되었다. 책은 후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화와 언약 불순종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지 가르치고, 압제의 원인이 여호와와의 무능이 아니라 백성의 배교임을 밝힌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반복해서 구원하셔도 인간 지도자와 일시적 해방만으로 백성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사사기의 반복 구조는 인간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공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백성이 압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언제나 깊은 회개를 뜻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사사를 세우신다(2:16-18). 그러나 구원 뒤에는 더 심한 배교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조차 희미해진다.

이 하강 구조는 외부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고쳐지지 않음을 드러낸다.

사사들도 점차 무너진다. 기드온은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말년에 왕 같은 권세와 에봇으로 올무를 남긴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과 딸의 비극은 여호와 신앙이 가나안적 종교 관념과 얼마나 혼합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본문은 그의 행동을 모범으로 승인하지 않는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블레셋을 치지만 욕망과 복수에 지배된다. 하나님이 결함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렸음을 드러낸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따랐으며, 그 결과 신명기에서 경고한 압제와 혼란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부분적인 안식을 주셨다. 그러나 지파의 분열과 반복되는 내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공동체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결론은 다윗 왕권의 필요를 바라보게 하지만, 단순히 인간 왕만 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 아래 의롭게 다스리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킬 왕이 필요했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사사들은 외적 원수에게서 제한된 기간 동안 백성을 건졌지만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어떤 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나(히 11:32), 책의 진행은 구원자들 자신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임을 더욱 선명히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일시적 압제만 끝내는 사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자기 욕망이나 복수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사사기의 어두운 결말은 인간이 자기 소견을 왕으로 삼는 상태를 심판하고, 말씀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실 참된 왕을 기다리게 한다.

8. 읽는 방법

사사기를 어린이 영웅담이나 지도력 성공 사례로 읽지 말아야 한다. 서술된 행동과 하나님이 승인하신 행동을 구분하고, 사사의 승리뿐 아니라 성품의 결함과 이야기 전체의 하강 흐름을 살펴야 한다. 드보라의 사역을 여성 전체에 대한 열등성이나 남성 지도력의 조롱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본문이 바락의 주저함과 드보라의 신실한 예언 사역을 함께 보여 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입다의 서원과 내전,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은 모방하거나 변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공동체의 참상을 고발한다. ‘왕이 없었다’는 반복도 정치적 강권 통치의 정당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의로운 통치의 필요를 드러낸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5

지파별 정복의 성과와 실패를 보여 주는 역사적 서론이다.

2:6-3:6

배교·심판·부르짖음·사사를 통한 구원·재배교의 반복 양식을 설명하는 신학적 서론이다.

3:7-16:31

웃니엘에서 삼손에 이르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순환은 단 순 반복되지 않고 백성과 지도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된다.

17-18장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의 우상숭배로 종교적 혼란을 다룬다.

19-21장

레위인의 첩 사건과 베냐민 전쟁으로 도덕적·사회적 붕괴를 보여 준다. 마지막 두 부록은 연대순 결말이라기보다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한’ 시대의 본질을 폭로한다.

룻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짧은 역사 이야기다. 사사기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의 어둠을 보여 준다면, 룻기는 같은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약적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흉년과 이주, 죽음과 과부의 빈손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양식과 가정, 기업과 생명이 회복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 작은 가정의 회복은 마침내 다윗 왕의 계보와 연결되어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속에 자리 잡는다.

2. 책명

이 책의 이름은 중심인물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 왔다. ‘룻’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뜻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책은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결속되고 언약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보여 준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며 칠칠절에 낭독되었다. 기독교 성경의 배열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놓여 사사 시대에서 다윗 왕권으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룻기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마지막 족보가 다윗을 명시하므로 적어도 다윗이 알려진 이후에 기록되었으며, 정확한 연

대는 단정할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롯기를 포로기 이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한 논쟁문으로 보지만, 롯은 이교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언약의 개종자이므로 에스라·느헤미야의 우상숭배적 통혼 금지와 충돌하지 않는다(트럼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세련된 문학적 구성 역시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증거가 아니며, 롯기는 실제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역사적 내러티브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사 시대는 도덕적 타락과 영적 혼란, 사회적 분열이 깊어진 시기였다. 그 가운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했고,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채 롯과 함께 돌아왔다. 롯기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취약했던 과부와 이방인의 현실, 이삭줍기와 토지 기업, 친족의 책임이라는 율법적 배경 속에서 전개된다. 이 책은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고통받는 자를 돌보며 빈손을 채우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여 다윗의 길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롯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헤세드, 곧 언약에 뿌리를 둔 신실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극적인 기적보다 일상의 선택과 만남, 율법에 순종하는 친절과 공동체의 책임을 통해 일하신다. 롯은 자기 유익보다 나오미의 안녕을 구하고,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한

을 넘어 룯과 나오미를 보호한다. 이들의 헤세드는 먼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룯기는 낭만적 연애담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이야기다.

룯기는 또한 율법의 목적을 구체적인 삶으로 보여 준다. 이삭줍기 규례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먹이고, 기업 무름은 죽은 자의 이름과 가족의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레 19:9-10; 25:25; 신 24:19-22; 25:5-10). 보아스는 법의 빈틈을 이용하지 않고 공적 절차와 공동체의 증언 아래 책임을 다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차가운 제도가 아니라 거룩함과 공의, 긍휼과 책임을 함께 담은 언약 백성의 삶의 질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모압 여인 룯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와 날개 아래 피한다(1:16; 2:12).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룯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열매 맺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마지막 족보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오벧과 이새를 거쳐 다윗 왕에게 이어졌음을 밝힌다. 하나님은 왕이 보이지 않던 혼란의 시대에도 자기 나라의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룻기는 보아스의 모든 행동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행동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보아스는 율법 안에서 친족의 책임을 감당한 신실한 기업 무를 자이며,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과 빈곤으로 끊길 위기에 놓인 가정을 회복하고 다윗의 계보를 보존하셨다. 이 구속사적 흐름은 다윗의 더 큰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계 이어진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룻이 포함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와 언약 성취이며,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까지 품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마 1:5; 28:19).

8. 읽는 방법

룻기를 읽을 때는 등장인물의 선행만 모범으로 추출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평범한 수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일, 공동체의 율법과 관습, 룻과 보아스의 위험을 감수한 헤세드, 여인들의 축복과 마지막 족보가 하나의 섭리적 흐름을 이룬다. 또한 모압 출신이라는 룻의 배경을 이유로 이방인 일반에 대한 민족적 우월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 피한 자가 은혜로 언약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짐을 보여 준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장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여호와를 선택하여 함께 돌아오는 룯 룯기는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네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2장

룯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만 그 만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룬다.

3장

룯이 보아스에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요청하고 보아스가 정당한 절차를 약속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4장

성문에서의 공식적인 기업 무름, 룯과 보아스의 결혼, 오벳의 출생과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로 마무리된다. 나오미의 ‘빈손’은 한 가정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품은 충만함으로 바뀐다(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무엘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본래 한 책으로, 사사 시대 말기의 혼란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세워지고 다윗의 통치가 확립되며 위기를 겪는 데까지를 다룬다. 엘리 집안의 쇠퇴, 사무엘의 소명, 사울의 즉위와 몰락, 다윗의 기름부음과 도피, 통일 왕국과 다윗 언약, 다윗의 죄와 왕실의 비극이 하나의 역사 안에서 이어진다.

사무엘서는 왕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양하지 않는다. 인간 왕은 참 왕이신 여호와와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하며, 왕권의 정당성은 외모·혈통·군사력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 있다. 동시에 선택받은 다윗도 속죄가 필요한 죄인임을 숨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지도자의 완전함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짐을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왕정 전환기에 선지자·제사장·사사로 섬기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에게서 왔다. 그러나 사무엘은 상권 중간에 죽으므로 이 명칭이 그가 책 전체를 기록했다거나 유일한 중심인물이라는 뜻은 아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으며, 헬라어 번역 전통에서 긴 두루마리를 나누면서 오늘날의 상·하 구분

이 생겼다. 따라서 두 권은 서로 독립된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최종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사무엘은 왕국의 제도를 책에 기록했고, 역대상은 다윗 시대의 역사가 사무엘·나단·갓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말한다(삼상 10:25; 대상 29:29). 따라서 왕실 기록과 동시대의 예언자적 자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 사건과 ‘유다 왕들’에 대한 언급을 고려하면 최종 형태는 왕국 분열 이후에 정리되었을 것이나 정확한 시기는 단정하기 어렵다(삼상 27:6).

여러 자료의 사용과 후대의 정리는 책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는 실제 왕정의 시작과 다윗의 통치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따라 기록했다. 책이 다윗의 영광뿐 아니라 그의 중대한 죄와 왕실의 수치까지 정직하게 증언한다는 사실도 단순한 왕조 선전이나 후대의 이상화로 보기 어렵게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사 시대 말기 이스라엘은 영적 지도력의 부패, 블레셋의 압박, 지파들의 불안정 속에 있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고 여호와와의 말씀은 희귀했으며, 백성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조종하는 부적처럼 사용했다. 백성은 다른 민족과 같은 왕을 요구했고, 하나

님은 그 요구에 자신을 왕으로 거절한 죄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사울을 세우셨다. 사울이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 집안과의 갈등을 거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언약궤를 옮겨 정치와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밋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 살해 이후 왕실에는 성폭력·살인·반역과 추방이 이어졌다. 책은 후대 독자에게 왕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아래 있으며, 죄는 용서받아도 역사적 결과를 남긴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사무엘서의 첫째 큰 주제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나의 노래는 교만한 강자를 꺾고 가난한 자를 높이며 자기 왕과 기름부음 받은 자를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한다(삼상 2:1-10). 이 노래는 엘리 집안과 사울의 몰락, 사무엘과 다윗의 높아짐을 해석하는 문을 연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며, 백성의 눈에 인상적인 사울 대신 들판의 다윗을 선택하신다(삼상 16:7).

둘째 주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사울은 종교적 행위와 백성의 압력을 핑계로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르고 회개보다 체면을 지키려 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선언은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음을 밝힌다(삼상 15:22). 언약궤 사건과 웃사의 죽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간의 종교적 기술이나 선한 의도로 조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셋째 주제는 은혜로 세워진 왕권의 책임과 한계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 왕권을 스스로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며,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고 므비보셋에게 언약적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나 밋세바와 우리아 사건에서는 왕의 권력을 욕망과 은폐에 사용했다. 나단은 왕 앞에서도 말쑼을 굽히지 않았고, 다윗은 죄를 고백했다(삼하 12:13).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지만 왕실에 임할 징계를 거두지는 않으셨다. 다말과 우리아를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왕의 회개나 회복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신명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왕이 율법 아래서 형제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사무엘서는 백성의 왕 요구에 섞인 죄악된 동기와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왕정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준다. 사울은 말쑼을 버려 왕권을 잃었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찾으셨다. 다윗의 기름부음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인간의 선택이나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세워짐을 나타낸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세우려 하자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 곧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며,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완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삼하 7:12-16).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복과 이스라엘의 왕권·성전·안식을 연결하고, 시편과 선지서가 기다리는 의로운 다윗

의 후손에 대한 소망의 토대가 된다. 다윗의 실패는 약속의 성취가 인간 왕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한나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자기 왕을 세우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높이실 미래를 바라보며, 마리아의 찬송에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을 예고한다(삼상 2:10; 눅 1:46-55).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백성을 대표하여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구원의 열매를 함께 누렸다. 이 사건을 개인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공식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대표가 원수를 이기고 백성에게 승리를 나누는 복음의 방향을 보여 준다.

신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자 영원한 보좌를 받으신 왕으로 선포한다(눅 1:32-33; 행 13:22-23). 다윗은 백성의 죄를 짊어질 수 없는 왕이었고 자신도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을 자기 욕망에 사용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며,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여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실패한 다윗 집을 넘어 의와 평화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은 완성된다.

8. 읽는 방법

사무엘서를 지도자 성공학이나 사울과 다윗의 단순한 성격 비교로 읽지 말아야 한다. 사울을 모든 면에서 악한 사람으로, 다윗을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영웅으로 평면화하지 말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왕권을 대하는 방식을 살펴야 한다. 언약궐을 소유하면 승리한다는 생각, 강한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대, 골리앗을 개인적 성공의 장애물로만 바꾸는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건도 죽은 자와의 교통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금하신 수단에 의존한 왕의 배교와 심판을 보여 준다.

다윗 언약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밋세바와 우리아, 다말과 왕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다윗의 죄를 낭만화해서는 안 된다. 압살롬을 단순한 반역자로만 보거나 다윗을 모든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나단의 예언 이후 왕실에 누적되는 죄와 다윗의 소극적인 정의를 함께 살펴야 한다. 마지막 인구 조사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주권과 다윗의 책임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운 제단은 훗날 성전 터와 이어지며 심판 가운데 마련된 속죄와 예배의 길을 보여 준다(대상 21:28-22:1).

9. 전체 구조와 흐름

사무엘상 1-7장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출생, 엘리 집안의 심판, 사무엘의 소명, 언약궐의 빼앗김과 귀환, 미스바의 회개와 구원을 다룬다.

사무엘상 8-15장

백성의 왕 요구, 사울의 선택과 즉위, 왕정 갱신, 블레셋과 아말렉 전쟁에서 드러난 사울의 불순종과 폐위를 기록한다.

사무엘상 16-20장

다윗의 기름부음과 골리앗에 대한 승리, 사울의 질투, 요나단과의 언약을 통해 사울의 쇠퇴와 다윗의 상승을 나란히 보여 준다.

사무엘상 21-30장

도피하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거절하고 광야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과정을 전한다.

사무엘상 31장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으로써 한 왕조가 비극적으로 끝난다.

사무엘하 1-4장

다윗의 애가와 헤브론 즉위, 사울 집안과의 전쟁,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다룬다.

사무엘하 5-10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옮기며, 다윗 언약을 받고 주변 나라들에 승리하고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통치의 절정을 보여 준다.

사무엘하 11-12장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죄,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용서와 징계의 선언으로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룬다.

사무엘하 13-20장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복수와 반역, 다윗의 도피와 귀환, 세바의 반란을 통해 왕실에 번지는 죄의 결과를 기록한다.

사무엘하 21-24장

기근과 전쟁, 다윗의 노래와 마지막 말, 용사들, 인구 조사와 제단을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왕권과 구원, 죄와 속죄를 되돌아보게 한다.

열왕기서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본래 한 권으로, 다윗의 말년부터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여호야긴의 석방까지 이스라엘 왕정 약 4세기의 역사를 다룬다. 솔로몬의 즉위와 성전 건축, 왕국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 두 왕국의 멸망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열왕기는 왕조의 정치사를 중립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비추어 왕과 백성을 평가하고, 약속의 땅과 성전과 왕조를 받은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설명하는 신학적 역사다. 동시에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말씀과 다윗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에서 열왕기는 ‘왕들’이라는 이름의 한 책이었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긴 두루마리를 나누어 사무엘서와 함께 ‘왕국기’ 네 권으로 배열했으며, 그 가운데 셋째와 넷째가 오늘날의 열왕기상·하에 해당한다. 상·하의 구분은 내용상 두 개의 독립 저작을 뜻하지 않는다. 열왕기하 1장은 열왕기상 마지막에 소개된 아하시야의 통치와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 간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예레미야를 저자와 연결하지만 이를 확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실록’,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같은 왕실 기록과 선지자에 관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스스로 밝힌다.

책의 마지막 사건인 여호야킨의 석방은 주전 561년경이므로, 최종 형태는 그 이후 포로기 중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료의 사용과 신명기의 언어·신학적 관점은 책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가 실제 역사를 언약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해석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선지자 예언을 포로기 저자의 사후 창작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 열왕기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경고하신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되었음을 증언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열왕기는 통일 왕국의 절정에서 두 왕국의 멸망까지를 돌아보는 포로기 공동체를 첫 독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의 팽창 속에서 주전 722년에 수도 사마리아를 잃고 멸망했다. 남유다는 한동안 존속했으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

성전과 왕조와 땅을 잃은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방 신들에게 패하셨는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폐기되었는지 물었을 것이다. 열왕기는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신명기의 언약을 거둬 지키고 우상을 섬기며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임을 밝힌다(왕하 17:7-23; 24:2-4). 포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심판이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군사력·영토·건축·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태도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예배의 죄에서 떠났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솔로몬은 지혜와 성전 건축으로 영광스럽게 시작했으나 왕이 많은 아내와 말과 은을 쌓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마음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면서 왕국 분열의 씨를 뿌렸다(신 17:14-20; 왕상 11장). 큰 은사와 업적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선지자의 말씀은 왕의 명령과 국제 정세보다 강하다. 아히야,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말씀은 거절당하거나 지연되는 듯해도 반드시 성취된다. 갈멜산 사건은 여호와와 바알을 절충할 수 없으며 여호와만이 불과 비를 주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낸다(왕상 18장). 엘리사의 기적도 선지자의 개인적 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양식과 전쟁, 이스라엘과 이방인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낸다. 나아만의 치유는 은혜가 이스라엘의 혈통과 국경에 갇히지 않으며, 참 하나님을 아는 구원이 겸손한 믿음으로 받는 선물임을 보여 준다(왕하 5장).

성전과 예배도 열왕기의 중심 주제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언약적 임재의 중심이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고백한다(왕상 8:27).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건물이 아니며, 성전의 존재 자체가 회개 없는 백성의 안전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참된 예배를 우상과 혼합하고 말씀을 거절했을 때 성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말씀에 따른 중요한 개혁을 이루었지만 한 왕의 개혁이 여러 세대에 뿌리내린 죄와 인간 마음의 완고함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했다. 특히 므낫세의 우상숭배와 무죄한 피는 예루살렘 심판의 깊이를 보여 준다. 열왕기는 훌륭한 지도자나 외적 제도 개혁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백성을 만들 수 없음을 드러낸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은 다윗에게 약속된 왕조와 안식이 역사 속에서 크게 드러난 때였다. 그러나 왕과 백성의 불순종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참된 예배가 훼손되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남유다는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회개 없는 안전 보장으로 삼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왕국은 시내산 언약에서 경고하신 저주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즉시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왕하 13:23),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 약속도 완전히 꺼뜨리지 않으셨다(왕상 11:36; 15:4). 포로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심판을 통과하여 새 출애굽과 새 언약, 의로운 다윗 왕과 새 마음을 기다리게 하는 구속사의 전환점이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와 요시아를 그리스도와 세부적으로 일대일 대응시키기보다, 그들의 참된 봉사와 분명한 한계가 어떤 완전한 왕과 선지자를 요구하는지 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크신 지혜의 왕이며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이시다(마 12:42; 눅 1:32-33).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선포하고 성취하시며,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외적으로만 억제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며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신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건물에 갇히지 않음을 보여 주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게 한다(요 2:19-22). 실패한 왕권과 훼손된 예배, 반복되는 개혁의 실패는 의로운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시는 새 언약의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8. 읽는 방법

열왕기를 읽을 때는 왕들의 반복되는 전쟁과 정변을 단순한 정치사로만 보지 말고, 각 왕에 대한 신학적 평가와 선지자의 말씀 및 그 성

취를 함께 추적해야 한다. 솔로몬의 부와 건축을 번영의 공식으로 삼거나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신앙 영웅의 능력이나 오늘날 재현할 기술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여호와와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따라가면서 정치적 성공 뒤에 있는 영적 실패와, 연약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아야 한다.

폭력적인 심판 장면도 개인적 보복의 허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랜 우상숭배와 언약 파기를 심판하신 역사적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상화하지 말고 그들의 믿음과 개혁을 존중하면서도 인간 왕과 외적 개혁의 한계를 보아야 한다.

또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모순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열왕기는 포로가 임한 원인을 언약의 관점에서 밝히는 데 강조점이 있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 공동체가 성전과 예배와 다윗 언약의 소망을 다시 붙들도록 과거를 재조명한다. 두 책은 서로 경쟁하는 역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회적 목적 아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진리를 증언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열왕기상 1-11장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즉위, 지혜와 부, 성전 건축과 봉헌, 많은 이방 아내와 우상숭배로 인한 솔로몬의 몰락을 다룬다.

열왕기상 12-16장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왕국이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벤텔과 단에 금송아지 예배를 세우며, 남북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과정을 기록한다.

열왕기상 17-22장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에 맞선 엘리야의 사역을 중심으로 갈멜 산, 호렙, 나봇의 포도원, 미가야의 예언과 아합의 죽음을 전한다.

열왕기하 1-8장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과 승천, 엘리사에게 이어진 선지자 직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서 나타난 말씀과 표적을 다룬다.

열왕기하 9-10장

예후가 아합 왕조와 바알 숭배를 심판하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죄에서는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열왕기하 11-17장

아달라의 찬탈에서 요아스의 회복, 북왕국의 쇠퇴와 사마리아 멸망까지 진행된다.

열왕기하 18-25장

히스기야의 신앙과 앗수르의 위기, 므낫세의 깊은 배교,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과 개혁, 바벨론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을 기록한다. 포로

된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며 다윗의 계보와 약속에 작은 소망이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역대기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한 권이며, 아담에서 시작하는 족보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 창조와 연결한 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포로와 귀환까지 재조명한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단순한 반복이나 누락 자료의 보충이 아니라, 포로 이후의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예배와 소망을 회복하도록 과거를 선택적으로 다시 들려주는 신학적 역사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회개를 특별히 강조한다. 북왕국의 역사는 이러한 중심 주제와 관련될 때 주로 언급된다. 이는 북왕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이후 공동체가 성전 예배와 다윗 언약의 소망을 다시 붙들도록 과거를 재조명한 것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전통의 책명은 ‘그 날들의 말씀/사건들’을 뜻하며 시대의 기록 또는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이 책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빠진 것들’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불렀지만, 역대기를 앞선 역사서의 부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역대기’라는 이름은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는다. 상·하의 구분은 후대의 두루마리 분할에서 생겼으며 본래는 하나의 작품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와 연결하지만 직접 확증할 증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최종 저자를 ‘역대기 저자’라 부른다. 저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뿐 아니라 족보와 왕실 기록, 선지자들의 기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사용했다고 밝힌다.

고레스의 칙령과 포로 이후 여러 세대에 이르는 족보를 포함하므로 최종 형태는 주전 5세기 후반 또는 4세기 무렵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의 선택과 배열은 역사를 꾸며 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과거가 포로 이후 공동체에 주는 언약적 의미를 해석한 것이다. 사무엘서·열왕기서와의 강조 차이도 역사적 모순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독자와 목회적 목적을 위한 선택적 서술로 이해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다윗 왕도 정치적 독립도 없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 살았고, 재건된 성전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긴 포로 생활과 흩어짐은 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묻게 했다.

역대기는 아담에서 귀환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그들이 우연히 남은 소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과 언약의 역사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멸망이 하나님의 약속 실패가 아니

라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비웃은 결과임을 밝힌다. 동시에 과거에 왕과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용서와 구원을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포로 이후 백성도 말씀과 예배와 회개의 길로 돌아가도록 부른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라 정체성과 연속성에 관한 신학적 선언이다. 역사가 아담에서 시작되므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열방과 분리된 민족 신화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 역사에 속한다. 유다와 다윗, 레위인과 제사장, 귀환민을 강조하는 족보는 약속과 예배의 계보가 포로로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자 성전 예배의 준비자로 두드러진다.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의 직무를 조직하며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설계와 재료를 준비한다. 그러나 옷사의 죽음과 인구 조사 심판은 다윗을 죄 없는 영웅으로 만들지 않는다. 열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왕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 감정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며 예배를 회복하는 태도다. 하나님을 찾은 왕과 백성은 도움과 안식을 경험하지만, 강해진 뒤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책망과 패배가 따른다. 이를 모든 시대의 건강·재산·성공을 보장하는 기계적 공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역대기 저자는 언약 아래 있던 유다 왕국의 특정 역사를 통해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솔로몬의 봉헌기도는 전쟁·가뭄·기근·포로와 같은 언약 심판 가운데서도 백성이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 역대하 7장 14절도 현대 특정 국가의 번영과 국토 회복을 보장하는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불린 언약 백성이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용서하시겠다는 성전 봉헌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역대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아들을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있다(대상 17장).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하지만 전쟁의 시대에서 성전의 안식으로 넘어갈 길을 준비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아들로 지명된다. 왕권과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예배가 이 약속 안에서 연결된다.

그러나 성전과 왕조는 자동적인 안전 보장이 아니었다. 왕과 백성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언약에 충실해야 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유월절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예배로 다시 부르고 출애굽의 구원과 한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 끝내 땅이 안식을 누리고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언약 심판의 성취였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움직여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백성이 올라가게 하셨다(대하 36:21-23). 심판 뒤의 귀환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으며 더 깊은 회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아담에서 아브라함과 유다를 거쳐 다윗에게 이르는 족보는 메시아의 계보를 세계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놓는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 더 나아가 아담에게 연결하여 이 약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에 이르렀음을 밝힌다(마 1:1-17; 눅 3:23-38).

역대기에 반복되는 유월절과 성전 봉헌기도는 죄인이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히스기야는 정결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요시야의 유월절도 말씀을 발견한 뒤 이루어진 언약 갱신의 중심이었다(대하 30:18-20; 35장). 신약은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양으로 선포한다(고전 5:7).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 혈통과 경계를 넘어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다.

역대기가 고레스의 ‘올라가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은 귀환과 회복을 향한 열린 결말을 만든다. 이 결말은 다윗 개인의 모든 행동에서 예표를 찾게 하기보다, 보존된 계보와 영원한 왕조의 약속, 용서받고 돌아오는 백성의 소망이 다윗의 자손 예수께 이어짐을 보게 한다.

8. 읽는 방법

긴 족보를 건너뛰지 말고 아담에서 귀환민까지 이어지는 큰 방향과 유다·다윗·레위 계열의 강조를 살펴야 한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생략되거나 다르게 배열된 내용을 곧바로 모순이나 역사 왜

곡으로 판단하지 말고, 역대기 저자가 포로 이후 공동체에 필요한 정체성·예배·다윗 언약을 부각하기 위해 자료를 선택하고 배치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윗과 개혁 왕들을 이상화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믿음과 봉사를 존중하면서도 웃사 사건과 인구 조사, 여러 왕의 말년과 다음 세대에 지속되지 못한 개혁을 함께 보아야 한다. 성전 준비와 예배 조직을 현대 교회의 건축·행정 성공 공식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고 버리면 재앙을 당한다’는 반복을 개인의 성공을 보장하는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하 7장 14절도 특정 현대 국가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성전과 언약 백성의 회개라는 본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역대기는 한때의 부흥보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의 예배로 이어 가는 신실함을 요구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역대상 1-9장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이스라엘 열두 지파,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거쳐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제시한다.

역대상 10장

사울의 죽음을 단순한 전사 기록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불충성과 말씀을 구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한다.

역대상 11-20장

다윗의 즉위와 용사들, 언약궐의 예루살렘 이동, 다윗 언약,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과 승리를 다룬다.

역대상 21-29장

인구 조사와 심판, 성전 터의 확정, 레위인·제사장·찬양대·문지기와 관리의 조직, 성전 재료와 설계의 준비,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권면과 백성의 헌신을 기록한다.

역대하 1-9장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 건축, 봉헌기도와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다룬다.

역대하 10-12장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왕국 분열, 그의 겸비와 예루살렘의 보존을 기록한다.

역대하 13-28장

아비야부터 아하스까지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버리는 과정, 말씀에 대한 태도와 그 결과를 보여 준다.

역대하 29-32장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앗수르의 위기에서 구원받은 일을 다룬다.

역대하 33-35장

므낏세의 극심한 죄와 회개, 요시아의 율법책 발견과 언약 갱신 및 유월절을 기록한다.

역대하 36장

선지자들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가 된 뒤,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과 귀환의 길이 열리는 장면으로 끝난다.

에스라-느헤미야 서론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는 연결된 역사다. 히브리어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한 책으로 전해졌으며, 같은 귀환민 명단과 이어지는 사건·주제를 공유한다. 두 책을 함께 읽으면 성전 재건, 말씀 개혁, 성벽 재건, 공동체 질서의 회복이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 회복은 정치적 독립이나 다윗 왕조의 완전한 복구가 아니었다. 귀환한 백성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뒤에도 죄와 불순종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에스라-느헤미야는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한 회복의 역사이면서, 참된 왕과 새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게 하는 불완전한 귀환의 역사다.

2. 책명

‘에스라’라는 책명은 제사장 겸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서 왔으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과 관련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에서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끈 인물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으로 전해졌으나 헬라어와 라틴어 전승을 거치며 여러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오늘날의 성경에서는 두 권으로 나뉘지만, 성전·말씀·성벽·공동체 회복이라는 전체 흐름을 이해하려면 하나의 연결된 역사로 읽어야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책 전체의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에스라 7-10장에는 에스라의 일인칭 회고가 포함되고, 느헤미야서의 상당 부분도 느헤미야의 일인칭 회고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 밖에 왕의 조서, 아람어 문서, 귀환민과 제사장 명단, 공동체의 언약문과 역사 서술이 함께 사용되었다.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에스라-느헤미야와 역대기의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지만 정확한 집필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종 형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이후인 주전 5세기 후반 또는 그 뒤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문서와 회고록의 사용은 책의 통일성이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통하여 포로 이후 공동체를 회복하신 역사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했다. 첫 귀환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끌었다. 귀환민들은 제단과 성전 기초

를 놓았으나 주변 민족의 방해와 내부의 낙심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학개와 스가라의 권면으로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약 80년 뒤인 주전 458년경 제사장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여호와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공동체의 신앙과 생활을 개혁했다(스 7:10). 주전 445년경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 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조롱과 위협에도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이방 왕들의 결정과 선지자들의 말씀, 지도자들의 기도와 지혜, 백성의 순종을 사용하여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셨음을 보여 준다. 동시에 외적인 재건만으로 언약 백성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없으며 지속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 하나님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같은 이방 왕들의 마음과 조서를 사용하시고, 학개와 스가라의 말씀으로 낙심한 백성을 일으키신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와 지원을 받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행운이 아니라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결과였다(스 7:6, 9, 28; 8:18; 느 2:8, 18).

둘째 주제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다. 귀환민들은 먼저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했다. 이는 공동체의 중심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보여 준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다(스 7:10).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은 율법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회개했으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다(느 8:8-10).

셋째 주제는 기도와 책임 있는 행동의 결합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오래 기도했으며, 왕 앞에서는 기도한 뒤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대적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다(느 1:4-11; 2:4-8; 4:9).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고 지혜롭고 담대한 순종을 낳는다.

넷째 주제는 공동체의 거룩과 정의다. 귀족과 관리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토지와 자녀를 빼앗는 행위는 출애굽으로 세우신 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느 5장). 성전과 성벽을 세우면서 가난한 형제를 억압한다면 참된 회복이라 할 수 없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다룬 통혼 문제도 인종적 순수성이나 민족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앙과 우상숭배가 공동체를 다시 배교로 이끌 위험에 관한 것이었다. 뭇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방인은 언약 백성 안에 받아들여졌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예레미야의 예언과 신명기의 회복 약속이 성취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었다(신 30:1-5; 렘 25:11-12;

29:10; 스 1:1). 성전 기구가 돌아오고 제단과 유월절이 회복되며 열 두 지파를 상징하는 제물이 드려진 것은 귀환민들이 새로운 종교 집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연속임을 보여 준다.

느헤미야의 첫 기도와 9장의 공동 기도는 아브라함의 선택, 출애굽, 시내산, 광야, 가나안, 사사 시대와 포로에 이르는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이라는 언약의 틀에서 고백한다. 귀환민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그 땅의 소산을 왕들에게 바치는 종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느 9:36-37). 성전과 성벽과 율법이 회복되었지만 다윗의 왕은 보이지 않았고 백성의 마음도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았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라 죄를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더 큰 회복을 기다리게 했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라-느헤미야는 외적인 장소와 제도와 경계의 회복만으로는 죄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성전이 재건되고 율법이 낭독되며 언약이 갱신된 뒤에도 공동체는 다시 흐트러졌다. 이 반복되는 실패는 돌로 된 성전과 성벽보다 더 깊은 회복, 곧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신다(요 2:19-22; 엡 2:19-22). 하나님이 귀환민을 보존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하신 역사는 메시아가 오실 언약의 길을 지켰다. 에스라-느

헤미야가 기다리게 한 궁극적인 귀환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소외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한 백성이 되는 구원이다.

8. 읽는 방법

에스라-느헤미야를 현대 국가 건설이나 건축 사업, 교회 성장 또는 조직 리더십의 성공 공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배울 가치가 있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방해와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반복되는 명단과 조서는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름을 가진 언약 백성을 보존하셨으며, 포로 이전 이스라엘과 귀환 공동체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증언한다. 성벽은 당시 예루살렘의 안전과 예배와 공동체의 삶을 보존하는 실제 시설이었으므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물리적·문화적으로 고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다.

통혼 해소의 어려운 본문은 창조의 혼인 질서, 공동체의 거룩, 우상 숭배의 위험, 관련된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이를 인종 차별의 근거나 오늘날 불신 배우자와 자동으로 이혼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되고 언약이 갱신된 뒤에도 죄가 다시 나타나는 결말을 통해 인간 개혁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말씀의 갱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에스라 1-6장

고레스의 칙령과 첫 귀환민 명단, 제단과 성전 기초의 회복, 대적의 방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 성전 완공과 유월절을 기록한다.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신다.

에스라 7-10장

에스라의 계보와 사명, 두 번째 귀환, 공동체의 죄에 대한 기도와 통혼 문제의 개혁을 다룬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배하는 백성의 삶이 새로워진다.

느헤미야 1-7장

느헤미야의 기도와 파송, 성벽 조사와 재건,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경제적 불의, 성벽 완공과 주민 명단을 다룬다.

느헤미야 8-10장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해석, 백성의 회개, 초막절 준수와 언약 갱신을 기록한다.

느헤미야 11-12장

예루살렘 주민의 재배치와 제사장·레위인 명단, 성벽 봉헌과 공동체의 기쁨을 다룬다.

느헤미야 13장

성전 봉사와 안식일과 혼인 문제가 다시 흐트러진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행한다. 이 결말은 성벽 완공보다 말씀으로 구별된 백성의 삶이 더 중요하며 인간의 반복적인 개혁만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에스더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더는 포로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멸절의 위기에서 보존된 사건을 전하는 역사 이야기다.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수산 궁이며, 주인공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놀라운 역전을 통해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감추어진 섭리를 증언한다.

2. 책명

책명은 중심인물 에스더에게서 왔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이며 ‘도금양’을 뜻한다(2:7).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보이며 정확한 어원은 확정하기 어렵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더는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이며 부림절에 낭독되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에스더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저자는 페르시아 궁정과 행정, 유대 관습과 부림절의 기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아하수어로, 곧 크세르크세스 1세의 통치기인 주전 486-465년경에 놓이며, 책은 그 사건 이후 부림절이 자리 잡은 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저자와 연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인 인물과 장소와 조서를 제시하는 이 책의 역사적 성격을 단순한 허구나 교훈 소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은 페르시아 각지에 남아 살았다. 제국의 법과 왕의 변덕에 삶이 좌우되던 상황에서 하만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려 했다. 이 책은 흩어진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제국의 권세와 변경할 수 없다는 조서조차 섭리 가운데 뒤집어 구원하심을 가르친다. 또한 그 구원을 부림절로 기억하여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다. 에스더의 왕후 등극, 모르드개의 충성 기록, 왕의 불면, 하만의 때 이른 방문과 연속되는 잔치는 각각 우연처럼 보이지만 함께 언약 백성의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도덕적으로 복잡한 사람들과 세속 제국의 제도까지 사용하여 자기 약속을 지키신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흠 없는 영웅으로 이상화하기보다, 인간의 모호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한다.

금식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단은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4:16). 부림절은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뀐 구

원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와 선물을 나누는 절기다. 모세 율법에 제정된 순례 절기와 같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베푸신 보존의 은혜를 공동체가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만의 음모는 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넘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계보를 포함한 언약 백성 전체를 없애려는 위기였다.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부르는 표현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오랜 대립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세부의 해석 열쇠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삼상 15장; 데브라 레이드, 『틴데일 에스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서술에 나타나지 않아도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국의 왕보다 높은 보이지 않는 왕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터를 곧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중보자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용기 있는 왕후이지만 죄 없는 구속자는 아니다. 에스더서의 더 큰 복음적 방향은 하나님이 멸절의 조서 아래 놓인 언약 백성을 보존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위한 약속의 계보를 지키셨다는 데 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는 죽음처럼 보였던 사건이 죄인을 살리는 가장 큰 구원의 역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참된 왕과 중보자가 되셨다.

8. 읽는 방법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세속적인 이야기로 보거나, 반대로 모든 우연을 기적처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반복되는 잔치와 조서, 시간의 일치, 아이러니와 역전을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섭리가 드러난다. 유대인의 마지막 전투도 무분별한 민족적 복수라기보다 이미 내려진 멸절 명령에 맞선 제한된 방어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데브라 레이드의 섭리와 문학적 역전에 관한 통찰은 유익하지만, 등장인물의 모든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그의 견해를 유일한 해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데브라 레이드, 『틴데일 에스더』).

9. 전체 구조와 흐름

1-2장

와스디의 폐위와 에스더의 등극, 모르드개의 공로를 기록한다. 에스더는 잔치와 조서와 역전이 반복되는 치밀한 이야기다.

3-4장

하만의 멸절 조서와 모르드개의 탄식, 에스더의 결단을 보여 준다.

5-7장

에스더의 두 잔치 사이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르드개의 공로가 드러나며,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서 죽는다.

8-9장

새 조서와 유대인의 방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부림절을 기록한다.

10장

모르드개의 높아짐으로 끝난다. 이야기의 중심 전후로 하만과 모르드개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힌다.

시가서·지혜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에서 욥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는 흔히 시가서 또는 시가서·지혜서로 묶인다. 이 다섯 책은 고난, 예배, 지혜, 인생의 한계,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탐구하며, 역사와 율법과 예언이 가르치는 진리를 기도·노래·격언·성찰·사랑의 시라는 형식으로 마음과 삶에 새긴다. 히브리 정경의 ‘성문서’에는 이 다섯 권 외에도 룻기·예레미야애가·에스더·다니엘·에스라·느헤미야·역대기가 포함되므로, 이 책의 묶음은 더 정확하게 ‘시가서·지혜서’라고 부른다.

2. 역사·문학적 성격

히브리 시는 운율보다 평행법, 이미지, 반복, 생략, 과장과 정서의 움직임으로 뜻을 전한다. 지혜문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경외와 분별로 살아가는 길을 탐구하며, 잠언의 간결한 격언, 욥기의 논쟁과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의 성찰, 아가의 사랑 노래처럼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한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참된 삶의 원리를 제시하지만 특정 행동에 항상 동일한 결과가 따른다는 무조건적 약속은 아니다. 욥기와 전도서는 단순 인과응보와 피상적 낙관주의를 교정하면서도 허무주의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이끈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욥기-아가;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3. 전체 흐름

욥기는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 앞에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게 한다. 시편은 탄식과 찬양, 감사와 회개, 왕과 성전, 창조와 토라를 기도로 엮어 언약 백성의 예배 언어를 형성한다. 잠언은 여호와 경외를 지식의 근본으로 삼아 말·재물·성·가정·노동·우정과 권력의 일상을 훈련한다. 전도서는 ‘해 아래’ 수고와 성취가 붙잡을 수 없는 안개 같음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고 심판하실 창조주를 경외하라고 한다. 아가는 창조와 언약 안에서 남녀의 상호적 사랑과 갈망, 기쁨과 기다림을 시적으로 노래한다.

4. 핵심 신학

이 책들의 공통 중심은 여호와 경외다. 참 지혜는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언약적 태도다(잠 1:7; 9:10; 전 12:13). 성경은 믿음과 감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시편과 욥기는 슬픔·분노·두려움·의문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다. 예배는 현실을 부인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기억하며 탄식을 찬양으로 가져가는 행위다. 지혜는 개인 성공만이 아니라 의와 공의,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절제된 말과 신실한 관계를 포함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이자 다윗의 주, 의로운 고난자와 영원한 왕으로 증언한다(시 2편; 22편; 110편; 고전 1:24, 30). 시편의 왕과 고난과 부활의 소망은 그의 십자가·부활·승천 안에서 절정에 이르고, 지혜의 초청은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열린다. 욕이 갈망한 중보와 최종적 신원, 전도서가 드러낸 죽음 아래 수고의 한계, 아가가 노래한 언약적 사랑은 각각 그리스도의 직접 예언으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부활과 새 창조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경적 완성을 바라본다. 특히 아가의 각 장면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암호로 만들지 말고 창조된 혼인의 선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엡 5:25-32; 『리딩지저스』 3권).

6. 읽는 방법

시의 비유와 과장과 평행법을 산문 명제처럼 평면화하지 말고 시 전체의 화자·정서·움직임을 따라 읽어야 한다. 시편의 저주시는 개인 복수의 허가가 아니라 악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는 언약적 기도이며, 신약의 원수 사랑과 최후 심판의 소망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잠언을 번영과 성공의 보장 공식으로, 욕기를 고난의 원인을 모두 설명하는 해답집으로, 전도서를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 아가를 노골적 성 묘사나 순수한 알레고리로 축소하지 않는다. 각 책이 서로를 교정하고 보완하도록 함께 읽으며, 궁극적으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삶을 붙들어야 한다.

욥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욥기는 의인의 고난과 참된 지혜를 다루는 구약의 지혜서다. 욥은 완전한 의미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신 인물이다(1:1, 8; 2:3). 따라서 그의 재난을 특정한 숨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로 설명할 수 없다. 욥기는 고난의 모든 원인을 알려 주는 해답집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칠십인역은 중심인물의 이름을 따라 이 책을 ‘욥’이라 부른다. ‘욥’이라는 이름의 정확한 어원과 뜻은 확정하기 어렵다. 그의 족보와 이스라엘 지파도 제시되지 않으며, 우스 땅에 살았던 비이스라엘인으로 소개된다. 이러한 설정은 욥기가 고난과 하나님 경외의 문제를 이스라엘 내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다루게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욥기 본문은 저자의 이름과 기록 연대를 밝히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모세 저작설을 비롯한 여러 견해가 제안되었지만 확정할 만한 본문 근거는 없다. 욥의 장수, 가문의 제사장 역할, 재산을 가축으로 해

아리는 방식은 족장 시대와 유사한 배경을 떠올리게 하지만, 사건의 시대와 책의 기록 시기는 구분해야 한다. 문체와 어휘만으로 늦은 연대를 단정하거나 여러 시대의 자료가 결합된 책으로 해체하기보다, 현재의 통일된 정경 형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욥은 이스라엘 밖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큰 복을 누리던 사람이다. 독자는 1-2장의 천상 장면을 통해 욥이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의 경외가 보상에 의존한 것인지 시험받고 있음을 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이 배후를 모른 채 눈앞의 고난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고난을 개인의 특정한 죄와 직접 연결하는 단순한 보응 공식을 깨뜨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이지시기에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욥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의인을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참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개인의 현재 형편을 판정하는 절대 공식으로 바꾼다. 그 결과 욥의 고난을 죄의 증거로 단정하고 고난당하는 이를 정죄한다. 부분적으로 바른 교리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거짓되고 잔인한 말이 될 수 있다.

욥은 격렬하게 탄식하고 때로 지나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 그는 운명 앞에서 독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며, 자신을 들으시고 판단하실 분을 찾는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욥에게 천상 회의의 비밀이나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신다. 대신 창조 세계의 광대함과 질서, 베헤못과 리워야단까지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 주신다. 욥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피조물의 지식이 창조주의 통치를 재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욥기는 이스라엘의 언약 역사를 직접 서술하지 않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과 지혜를 증언한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을 벗어나 행동하지 못하며, 혼돈처럼 보이는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이 현세적 보상만을 위한 거래가 아님을 드러낸다. 또한 욥이 재판관과 증인, 중보자와 구속자를 갈망하는 과정은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실 중보를 기다리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욥은 죄 없는 구속자도 아니며 그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욥의 모든 경험을 예수님의 생애와 일대일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고난받고, 거짓 고발과 친구들의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설 중보자를 갈망하는 흐름은 더 크고 참된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부활로 의롭다 인정되신 참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지 못해도 정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확신을 얻는다(롬 8:1, 31-39; 딤후 2:5).

8. 읽는 방법

욥기를 읽을 때는 각 화자의 말을 곧바로 성경 전체의 최종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와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를 함께 보아야 한다.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에는 참된 진술과 잘못된 적용, 믿음과 혼란이 섞여 있다. 또한 욥의 마지막 회개를 친구들의 주장처럼 그가 숨은 중죄를 인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욥은 하나님의 실제 임재 앞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말한 것을 거두고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간다. 결말의 갑절 회복도 모든 신자에게 현세의 건강과 재물을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그의 이야기를 은혜로 마치셨다는 표지로 읽어야 한다.

크리스토퍼 애쉬는 욥기의 중심을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고난 속에서도 신뢰받기에 합당하신가’에 둔다. 애쉬는 욥기를 단순한 고난 극복서가 아니라, 보상이 사라져도 하나님

을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는 믿음에 관한 책으로 읽으며, 욥의 ‘흠 있는 지각’과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마음’을 구분한다(크리스토퍼 애쉬, 『욥기』). 이 관점은 욥의 잘못된 표현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탄식을 불신앙으로만 정죄하지 않게 돕는다. 다만 애쉬의 개별 해석을 유일한 견해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과 다른 개혁주의 주석, 욥기 전체의 지혜문학적 논증을 함께 대조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욥기는 산문과 시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다. 산문 서론은 욥의 경건과 두 차례의 시험, 세 친구의 방문을 보여 준다(1-2장). 욥의 탄식(3장) 뒤에는 엘리바스·빌닷·소발과의 세 차례 논쟁이 이어지고(4-27장)

28장

인간이 찾을 수 없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를 노래한다.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결백을 호소하고(29-31장), 엘리후가 새로운 관점에서 말한다(32-37장).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고 욥이 응답하며(38:1-42:6), 산문 결말은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욥의 중보, 욥의 회복을 전한다(42:7-17).

시편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시편은 구약의 시가서 가운데 중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양을 정경의 말씀으로 모은 책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 ‘테힐림’은 ‘찬양들’을 뜻하고,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에서 유래한 ‘시편’이라는 이름은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와 관련된다. 그러나 시편에는 찬양뿐 아니라 탄식, 회개, 감사, 지혜, 왕권, 순례의 노래도 들어 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가져가 기도하고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예배와 신학의 책이다.

2. 책명

히브리어 명칭 ‘테힐림’은 ‘찬양들’을 뜻한다. 헬라어 칠십인역의 ‘프살모이’는 현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며, 여기에서 ‘시편’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책 전체가 탄식과 질문까지 포함하면서도 ‘찬양들’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시편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방향을 향함을 보여 준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시편은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 기록된 책이 아니다. 표제는 다윗을 가장 자주 언급하며, 모세,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에스라인 에단과 연결된 시들도 제시한다. 시편 90편이 회상하는 모세 시대부터 다윗

왕국, 성전 예배, 바벨론 포로와 귀환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별 시가 기록되고 예배 가운데 사용되었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경적 모음집으로 형성되었다. 표제의 히브리어 표현이 언제나 현대적 의미의 저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시편 저작을 연결하는 성경의 증언과 오랜 전통은 분명히 존중해야 한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시편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시편의 개별 노래들은 왕의 즉위, 전쟁과 박해, 죄의 회개, 성전 순례, 공동체의 재난과 구원 같은 실제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노래들은 개인의 체험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의 공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 수집되었으며, 모든 시대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되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고통, 죄와 용서, 기다림과 감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석하도록 형성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시편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풍부한 이미지, 반복과 대조를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 각 시는 찬양시, 탄식시, 감사시, 신뢰시, 지혜시, 왕권시 같은 유형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한 시가 여러 특성을 함께 지니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편을 교리 명제처럼 평면적으로 읽거나 모든 표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시적 화자의 상황과 감정의 움직임, 반복되는 이미지, 하나님께 향하는 논지의 전환을 따라 읽어야

한다. 특히 저주시의 호소도 개인적 복수의 허가가 아니라 악을 공의롭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언약적 기도로 이해해야 한다.

시편의 핵심에는 여호와와 왕권과 언약적 신실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왕, 목자와 피난처, 의로운 재판장이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시편은 다윗 언약과 시온,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죄의 고백과 용서, 고난 속의 탄식,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다. 그러므로 시편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백성이 어떤 믿음과 예배로 살아야 하는지를 형성하는 ‘기도로 된 신학’이다.

시편에는 삶의 두 길, 여호와 경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다루는 지혜시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편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에서 얻은 처세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예배, 구원 역사 안에서 삶의 현실을 해석한다. 시편 7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수수께끼를 성소에서 새롭게 이해한 것처럼, 믿음의 지혜는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마지막 심판의 빛에서 현재를 바라본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시편의 탄식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다. 시인은 두려움, 버림받은 느낌, 죄책감, 분노와 죽음의 위협을 숨기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단절된 독백으로 남겨 두지 않는다. 그는 불평과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아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신뢰와 찬양으로 나아간다.

시편은 성도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언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도록 훈련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시편은 창조주이자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열방을 다스리실 것을 노래한다. 성전과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출애굽과 과거의 구원은 언약적 신실하심을, 포로기의 탄식과 회복의 찬양은 심판 뒤에도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증언한다. 특히 시편 78편은 출애굽부터 다윗의 통치까지를 지혜의 교훈으로 들려주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반역과 백성을 성실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목양하는 다윗을 대조한다. 왕국이 무너진 뒤에도 시편은 인간 왕조가 아니라 여호와와 영원한 통치와 장차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다윗의 왕을 바라보게 한다(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7. 그리스도와 복음

시편은 다윗의 왕권과 고난, 의로운 왕의 통치, 버림받은 자의 부르짖음과 승리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신약은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고난과 부활과 왕권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읽으며, 예수님 자신도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셨다(눅 24:44; 마 27:46; 행 2:25-36).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반역을 바로잡고 자기 백성을 지혜롭게 목양할 왕에 대한 소망은 참된 지혜이자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 그렇다고 모든 구절을 역사적 문맥에서 떼어 곧바로 예수님께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시편의 원래 화자와 언

약적 상황을 듣고, 이어 다윗의 자손이며 참된 의인과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도와 소망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아야 한다(트렘퍼 롱맨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브루스 윌트키의 시편 기독교론적 읽기를 요약함).

8. 읽는 방법

교회는 오랫동안 시편을 공예배와 개인 기도의 언어로 사용해 왔다. 시편을 읽는 독자는 자신의 기분과 비슷한 구절만 골라 소비하기보다 시편 전체가 가르치는 찬양, 탄식, 회개, 기다림, 정의와 소망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또한 시편의 ‘나’를 언제나 개인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왕과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읽을 때 시편은 고난 중에도 여호와와의 통치를 신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마침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결론으로 독자를 이끈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시편 150편은 다섯 권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권은 송영으로 끝난다(1-41편; 42-72편; 73-89편; 90-106편; 107-150편). 1편과 2편은 토라를 즐거워하는 의인의 길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부음 받은 왕을 함께 제시하여 시편 전체의 문을 연다. 제1-2권은 다윗 왕권과 언약의 소망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고, 제3권은 왕국의 붕괴와 다윗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위기를 탄식한다. 제4-5권은 인간 왕

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여호와께서 왕이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온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대답으로 나아간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시편 서론).

잠언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잠언은 구약의 지혜문학을 대표하는 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언약 백성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세속적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대하는 경건한 삶의 능력이다. 잠언은 부모와 자녀, 말과 침묵, 노동과 재물, 성과 결혼, 우정과 갈등, 통치와 정의 등 삶의 구체적인 영역을 다루며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지 않는다.

2. 책명

히브리어 책명은 첫 구절의 ‘미솔레’에서 왔으며 ‘잠언들’ 또는 ‘격언들’을 뜻한다. ‘마살’은 짧은 교훈문만 아니라 비유·비교·풍자처럼 삶의 이치를 압축하여 생각하게 하는 여러 형태의 지혜 발언을 포함한다.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을 거쳐 한국어 성경의 ‘잠언’이라는 명칭이 자리 잡았다. 이 이름은 짧은 문장들의 모음이라는 형식뿐 아니라 독자가 분별하고 적용해야 할 지혜 교육의 성격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잠언 1장 1절은 책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으로 소개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많은 잠언을 말했으므로 책의 중심 전승과 가장 큰 두 모음은 그와 연결된다(왕상 4:29-

34; 잠 10:1; 25:1). 그러나 책은 아굴과 르무엘의 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자들의 말씀도 포함하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밝힌다(22:17; 24:23; 25:1; 30:1; 31:1). 따라서 솔로몬의 실제 저작과 지혜 전승을 중심으로 여러 시대의 자료가 영감 아래 수집·편집되어 현재의 정경적 형태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최종 편집 시기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솔로몬 전승이나 책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잠언은 왕실과 가정과 지혜자들의 교육 환경에서 형성되어, 경험 이 부족한 젊은이와 이미 지혜로운 사람 모두를 가르친다(1:2-6). 고대 근동의 다른 지혜 전통과 표현상의 유사성이 있지만, 잠언은 모든 지식과 삶을 창조주이자 언약의 주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뿌리 내린다. 기록 목적은 독자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한 말을 깨닫게 하며, 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도록 분별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1:2-7). 이는 단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을 세우려는 교육이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잠언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선언이다(1:7; 9:10). 경외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언약의 주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적 태도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율적 이성이나 삶의 기술이

아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사랑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도덕적 질서를 세우셨으며 인간의 선택에는 실제 결과가 따른다고 가르친다. 의와 정직, 부지런함, 절제, 진실한 말,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은 생명으로 향하고, 교만과 게으름, 탐욕, 거짓말, 음행과 폭력은 파괴를 낳는다. 그러나 이 질서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동 법칙이 아니다. 잠언은 일반적으로 참된 삶의 원리를 가르치며, 각 격언을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즉시 성취되는 개별 약속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트럼퍼 롱맨 3세, 『잠언』). 욕기와 전도서는 같은 지혜 정경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함께 보여 준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잠언은 시내산 언약의 법 조항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언약적 삶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어떤 모양을 갖는지 보여 준다. 왕과 지도자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변호하고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야 하며, 부와 권력도 여호와와 심판 아래 있다. 지혜는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한 질서로 시적으로 묘사되고, 왕과 가정과 공동체는 그 질서를 따라 생명의 길을 드러내도록 부름 받는다(8:22-31). 따라서 잠언은 창조와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일상의 성화와 연결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하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말한다(고전 1:24, 30; 골 2:3). 그는 잠언의 모든 격언을 단순히 의인화한 인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온전히 경외하고 말과 행동과 관계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신 의로운 아들이시다. 인간은 혼계를 멸시하고 자기 소전에 옳은 길을 택하여 미련의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어 지혜의 길을 걷게 하신다. 잠언 8장의 의인화된 지혜를 곧바로 성자의 존재 기원에 관한 진술로 읽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 전체 안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지혜가 충만히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8. 읽는 방법

잠언은 한 절씩 떼어 확정적 약속이나 성공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문맥과 주제별 평행 구절, 다른 지혜서와 성경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26장 4-5절은 상황에 따라 어느 말이 적절한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지혜임을 보여 준다. ‘대답하지 말라’와 ‘대답하라’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는 상대와 목적과 결과를 살피는 성숙한 판단을 요구한다. 부지런함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번영신학으로 바꾸거나 가난과 고난을 모두 개인의 게으름과 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또한 1-9장의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두 길과 두 초대를 뒤의 짧은 잠언들을 읽는 해석적 문으로 삼아야 한다. 개별 격언은 기억하

기 쉽도록 압축되어 있으므로 모든 조건과 예외를 한 문장 안에서 말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실제 관계와 습관에 적용하면서, 단순한 자가 슬기를 얻고 지혜로운 자도 더 배우게 하려는 책의 교육 목적을 따라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7

책의 표제와 목적, ‘여호와 경외’라는 신학적 표어를 제시한다.

1:8-9:18

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긴 교훈들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대조한다.

10:1-22:16

첫 번째 큰 솔로몬 잠언 모음이다.

22:17-24:34

지혜자들의 말씀과 추가 말씀을 담는다.

25-29장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30장

아굴의 말을 다룬다.

31:1-9

르무엘 왕에게 준 교훈이다. 31:10-31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부지런함·가정·경제·자비·말과 명예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책을 마친다.

전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전도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수고와 지혜, 즐거움과 재물, 불의와 죽음을 정직하게 탐구하는 지혜서다. 이 책은 삶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언하는 허무주의 문서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삶을 붙잡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덧없고 제한적인지를 드러낸다. 전도서는 쉬운 낙관주의와 절망적인 허무주의를 모두 거부하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고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2. 책명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이며, 회중을 모아 가르치는 사람 또는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여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성경의 ‘전도자’라는 번역도 여기에서 나왔다. 헬라어 칠십인역은 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로 옮겼고 영어 제목 Ecclesiastes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이 명칭은 현대적 의미의 전도 활동만을 뜻하기보다, 삶을 탐구하고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화자의 역할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코헬렛은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며 왕의 지혜와 부와 사업을 회상한다(1:1, 12; 2:4-9).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

은 이를 솔로몬과 연결해 왔다. 일부 보수 학자들은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다고 보며, 다른 이들은 솔로몬의 인격과 경험을 문학적 틀로 사용한 후대의 지혜 교사가 최종 형태를 이루었다고 본다. 본문만으로 정확한 저자와 연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솔로몬과의 분명한 연관성을 존중하되 이를 허구적 장치나 포로기 이후의 작품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마지막 화자는 코헬렛을 ‘지혜자’로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정경적 교훈으로 제시한다(12:9-14).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전도서는 노동과 축적, 권력과 억압, 재판의 불의, 부와 가난, 늙음과 죽음이라는 모든 시대의 현실을 다룬다. 코헬렛은 인간의 경험과 관찰을 끝까지 밀어붙여,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고 자기 수고의 결과도 통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3:11; 8:17). 목적은 독자를 냉소에 빠뜨리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의 자율적 지혜와 우상화된 성취를 무너뜨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몫을 감사히 받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도록 부른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전도서의 핵심어 ‘헛벨’은 본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며, 덧없고 붙잡히지 않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성격을 나타낸다. 문맥에 따라 ‘헛됨’, ‘덧없음’, ‘부조리’, ‘수수께끼’의 의미가 겹친다. 크레이그 바솔로뮤는 특히 삶이 인간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 ‘수수께끼’라는 면을 강조한다(크레이그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간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좌절된다는 선언이다.

코헬렛은 반복해서 먹고 마시며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다(2:24; 3:12-13; 5:18-20; 9:7-10). 이것은 죽기 전에 즐기자는 쾌락주의가 아니다. 미래를 통제하거나 삶 전체를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오늘 주신 양식과 일과 관계를 감사로 받는 피조물의 지혜다. 전도서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고 인정하면서도 지혜자 역시 죽고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해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참된 지혜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전도서는 타락 이후 창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한 현실을 지혜의 언어로 증언한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지만 수고는 가시와 엉성퀴에 방해받고, 세대는 지나가며, 죽음은 지혜자와 어리석은자를 함께 삼킨다(창 3:17-19; 전 1:3-4; 2:14-16).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와 삶의 뒤편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 마지막 심판의 약속은 불의와 수수께끼가 역사의 최종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판단이 인간의 감추어진 행위까지 밝힐 것을 바라보게 한다(12:13-14).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해 아래’의 헛됨과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수고와 슬픔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셨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드러내셨고,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셨다(롬 8:20-23; 고전 15:54-58). 전도서가 인간의 지혜와 성취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을 묻는다면, 복음은 그 유익이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새 창조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것을 궁극적 만족으로 삼지 않고 부활과 새 창조를 소망한다.

8. 읽는 방법

전도서를 읽을 때는 ‘해 아래’라는 관찰의 범위와 책 전체의 결론을 함께 보아야 한다. 코헬렛의 개별 발언을 마지막 교리 명제처럼 떼어 읽으면 허무주의나 쾌락주의로 오해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모순을 억지로 제거하기보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며 지혜로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직하게 느껴야 한다. 그 긴장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선물’과 마지막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을 함께 들을 때, 전도서는 절망이 아니라 겸손한 기쁨과 책임 있는 믿음으로 이끈다.

크레이그 바솔로뮤는 전도서의 수수께끼 같은 긴장을 강조하고, 더글러스 손 오도넬은 이를 성경 전체의 복음적 소망 안에서 읽는다. 다만 ‘헤벨’을 모든 문맥에서 한 단어로 고정하지 않고, 전도서 자체의

지혜문학적 긴장과 각 문맥을 먼저 살핀 뒤 복음과 연결한다(크레이그 바솔로뮤, 『전도서 주석』; 더글러스 손 오도넬, 『전도서』).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전도서는 표제와 주제 선언으로 시작하고(1:1-11), 코헬렛의 긴 탐구가 이어진 뒤(1:12-12:7), 마지막 화자의 평가와 결론으로 끝난다(12:8-14). 중심부에서 코헬렛은 지혜와 쾌락과 업적을 시험하고(1:12-2:26), 시간과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하며(3장), 억압·경쟁·재물·예배의 현실을 살핀다(4-6장). 이어 지혜의 가치와 한계, 의인과 악인의 뒤섞인 현실을 논하고(7-8장), 모두에게 닥치는 죽음 앞에서 지혜롭고 기쁘게 살 것을 권한다(9-11장). 마지막에는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권면과 하나님 경외와 심판의 결론이 제시된다(12장).

아가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아가서는 구약 성문서에 속한 지혜문학적 사랑의 노래다. 욕기와 전도서가 고난과 허무 속에서 지혜의 한계를 묻고, 시편과 잠언이 하나님 앞의 예배와 일상의 지혜를 가르친다면, 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사랑과 몸의 아름다움을 시적 언어로 노래한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표현이 거의 없어도 창조·혼인·육망·기다림·상호성·충실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증언한다. 성을 우상화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언약적 책임과 적절한 때 안에서 기뻐하도록 가르치는 정경의 지혜다.

2. 책명

히브리어 제목 ‘노래 중의 노래’는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최상급 표현이다(1:1). 전통적 한국어 명칭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며, ‘솔로몬의 노래 중의 노래’라는 표제 때문에 ‘솔로몬의 아가’라고도 부른다. 영어 Song of Songs와 Canticles도 같은 뜻이다. 책명은 이 작품이 단순한 연애 기술서가 아니라 정경 안에 보존된 탁월한 사랑의 시임을 드러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1:1의 ‘솔로몬의’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직접 썼다는 뜻, 솔로몬에게 속하거나 헌정된 노래, 솔로몬과 관련된 노래로 해석될 수 있다.

솔로몬은 많은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에는 왕궁·예루살렘·레바논과 풍부한 자연 이미지가 나타나므로 전통적 솔로몬 저작을 가볍게 배제할 필요가 없다(왕상 4:32-33; 『개혁주의 스테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다만 ‘솔로몬의’라는 문법만으로 모든 시의 직접 저자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사랑의 시가 솔로몬 전승 아래 수집·편집되었다는 보수적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솔로몬 직접 저작이면 주전 10세기경이며, 편집 가능성을 포함하면 정확한 최종 연대는 확정하기 어렵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아가서는 왕궁과 목축지, 포도원·동산·예루살렘과 레바논을 오가며 연인과 예루살렘의 딸들, 마지막의 형제들이 말하는 사랑의 시들을 모은다. 특정 결혼식 한 번을 재구성하거나 솔로몬·술람미 여인·목자 사이의 삼각관계로 모든 장면을 연결하려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은 일관된 등장인물 명단이나 사건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이언 프로반, 『전도서·아가』 서론). 첫 독자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이며, 목적은 몸과 성을 창조주의 선물로 받아들이되 욕망을 조급하게 깨우거나 사람을 소유물로 만들지 않고, 상호 기쁨·충실함·기다림 속에서 사랑의 힘과 한계를 지혜롭게 배우게 하는 데 있다(2:7; 8:4, 6-7).

5. 핵심 주제와 신학

아가서는 몸과 성을 악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매우 좋다’고 선언하신 창조

신학 안에서, 혼인 언약의 사랑과 친밀함은 감사히 누릴 선물이다(창 1:27-31; 2:18-25). 여인과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고 찾으며 기뻐하는 주체로 나타나고, 사랑은 일방적 지배나 소비가 아니라 상호적인 소속과 즐거움이다(2:16; 6:3; 7:10). 동산·샘·열매·향기 이미지는 에덴의 풍요와 닫힌 동산의 배타적 친밀함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4:12-16; 리처드 S. 헤스, 『아가』).

사랑은 아름답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강한 힘이다. 반복되는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라’는 후렴은 친밀함의 때를 조급하게 앞당기지 말라는 지혜이며,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많은 물도 끄지 못하는 불꽃’은 충실한 사랑의 압도적 힘을 노래한다(2:7; 3:5; 8:4, 6-7).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은 몸과 관계의 상품화를 거부한다. 이 시적 찬미를 모든 결혼의 현실을 보장하는 약속으로 만들지 말고, 타락으로 상처 입은 관계가 지향해야 할 창조적 선택으로 받아야 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세기의 혼인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남녀의 연합은 죄로 수치·지배·갈등을 겪지만, 아가서는 상호 기쁨과 신뢰가 회복된 사랑의 가능성을 노래한다(창 2:23-25; 3:7, 16; 아 4:12-5:1).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가 되고, 선지자들은 배신과 회복을 혼인 언어로 말한다(사 54:5-8; 호 2:14-23). 아가서의 인간 사랑을 먼저 존중하면서 정경 전체 안에서 읽을 때, 혼인의 선택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와 새 창조의

충만한 교제를 향하는 구속사적 표지가 된다(엡 5:31-32; 계 19:7-9).

7. 그리스도와 복음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을 모든 구절에서 곧바로 그리스도로, 여인을 교회로 바꾸는 세부 알레고리는 본문의 인간 사랑과 시적 문맥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창조의 혼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가리키는 신비로 읽으며,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신부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어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신다고 선포한다(엡 5:25-32). 아가서가 노래하는 몸의 선행·배타적 충실함·값으로 살 수 없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죄로 훼손된 인간 사랑이 치유될 토대를 얻는다. 복음은 성을 부정하거나 신격화하지 않고, 몸과 관계를 구속하여 사랑이 자기희생과 신실함을 닦게 한다.

8. 읽는 방법

먼저 각 시의 화자와 이미지, 반복되는 후렴과 감정의 움직임을 따라 인간의 사랑에 관한 문자적·시적 의미를 읽어야 한다. 고대 근동의 과장과 은유를 현대인의 외모 평가나 해부학적 암호로 바꾸지 말고, 모든 세부를 성행위나 영적 비밀로 환원하지 않는다. 아가서의 아름다움 찬미는 특정 체형·피부색·결혼 상태를 이상화하는 기준이 아니며, 독신자를 불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도 않는다. 혼인 안의 성을 찬미한다는 이유로 욕망의 강요, 배우자 소유, 폭력이나 동의 없는 관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아가서를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읽어 온 전통에는 성경 전체의 혼인 비유를 붙드는 통찰이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는 세부 대응은 피하고, 창조의 인간 사랑을 충분히 읽은 뒤 언약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경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시의 개방성을 존중하되 사랑의 선택과 때, 충실함이라는 분명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

특별 주제: 아가서는 알레고리인가 사랑의 노래인가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아가서를 각각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한 알레고리로 폭넓게 읽었다. 이러한 전통은 아가서를 경건하게 읽고 정경 안에 보존하는 데 기여했지만, 머리카락·치아·향품 같은 모든 이미지에 별도의 영적 실체를 대응시키면 저자가 노래한 남녀의 사랑과 몸의 선택이 사라진다(트렘퍼 롱맨 3세, 『아가』 서론; 리처드 S. 헤스, 『아가』 서론). 반대로 아가서를 세속적 연애시로만 격리하면 창조주와 혼인 언약, 성경 전체의 신랑·신부 모티프를 놓친다.

따라서 문법적·역사적 의미에서는 혼인으로 향하는 남녀의 사랑을 우선하고, 정경적·구속사적 의미에서는 이 선택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안에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표지가 됨을 살피는 접근이 균형 있다(엡 5:31-32; 계 19:7-9;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아가서 서론). 이는 남자의 모든 행동을 그리

스도에게 직접 예언된 것으로 보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혼인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른 정경적 적용이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7

서로를 갈망하고 찬미하는 사랑을 다룬다.

2:8-3:5

연인을 찾고 만나는 기다림을 다룬다.

3:6-5:1

왕과 혼인·동산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는 연합을 다룬다.

5:2-6:3

상실과 탐색 및 사랑의 재확인을 다룬다.

6:4-8:4

서로의 아름다움과 소속을 노래하는 성숙을 다룬다.

8:5-14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결론이다. 화자는 여인과 남자, 예루살렘의 딸들 및 8장의 형제들로 구분하되, 모든 대사의 화자를 지나치게 확정하지 않는다.

대선지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한국어 성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예레미야·예레미야애가·에스겔·다니엘을 가리킨다. ‘대’는 권위나 영감의 등급이 아니라 책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히브리 정경에서는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이 후기 예언서에 속하고, 예레미야애가와 다니엘은 성문서에 배열된다. 이 다섯 책은 앗수르와 바벨론의 위기,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귀환 이후까지 이어지는 격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언약적 회복,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언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선지자는 미래를 점치는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현재의 언약 백성을 고발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부른 사자다. 대선지서에는 심판 신탁, 구원 약속, 환상, 상징 행동, 애가, 기도, 역사 이야기와 묵시가 함께 나타난다. 예언은 실제 역사적 청중에게 주어졌으면서 가까운 성취와 포로 후 회복, 메시아의 초림과 교회 시대, 최종 심판과 새 창조가 예언적 전망 안에서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사야를 여러 익명 저자에게 분해하거나 다니엘을 사건 이후에 기록한 예언으로 돌려 참된 예언 가능성과 책의 자기증언을 약화하는 비평적 전제를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롱맨·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이사야·다니엘 서론;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

3. 전체 흐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다와 열방의 죄를 폭로하고, 임마누엘·다윗의 왕·여호와의 종·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구원을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이후에 거짓 평안을 거부하고 포로 심판을 알리면서 마음에 기록될 새 언약을 약속한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과 성전의 참상을 공동체의 탄식과 회개로 하나님께 가져간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 포로지에서도 주권적으로 임하시며 새 마음·새 영·새 목자·새 성전으로 회복하실 것을 보여 준다. 다니엘은 포로 제국 속의 신실한 증언과 환상을 통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지나가고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질 것을 선포한다.

4. 핵심 신학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말씀의 확실성,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과 주권적 은혜가 대선지서를 관통한다. 우상숭배와 형식적 예배, 정치동맹에 대한 불신앙,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불의는 언약 파기의 구체적 모습이다. 포로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오래 경고하신 말씀의 성취이며, 하나님은 바벨론과 다른 제국까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다시 그 교만을 판단하신다. 회복은 단순한 영토 귀환보다 깊다. 죄 사함, 마음에 기록된 법, 새 영과 성령, 죽은 뼈의 생명, 의로운 목자와 왕, 하나님의 임재와 새 창조가 함께 약속된다(렘 31:31-34; 겔 36:24-28; 37장; 사 65-66장).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나신 임마누엘, 다윗의 보좌에 앉은 평강의 왕,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여호와와 종이시다(사 7:14; 9:6-7; 52:13-53:12; 마 1:22-23; 행 8:32-35). 그는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선한 목자로 양을 모으며,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 마음과 생명의 약속을 시작하신다(렘 31:31-34; 겔 34장; 눅 22:20; 히 8장). 다니엘이 본 인자는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자기 호칭과 승천·재림을 이해하는 핵심 배경이다(단 7:13-14; 막 14:62). 복음은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대리적 속죄와 새 언약의 은혜로 남은 자와 열방을 한 나라로 모아 새 창조에 이르게 한다.

6. 읽는 방법

먼저 각 예언의 역사적 배경과 첫 청중, 언약적 고발과 가까운 성취를 살핀 뒤 신약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가야 한다. 모든 지명과 숫자를 현대 국가·정치인·전쟁 일정에 즉시 대응시키거나, 반대로 미래와 실제 심판을 모두 인간 내면의 상징으로 바꾸지 않는다. 선지자의 회복 약속은 ‘건강과 번영’의 개인적 보장도, 특정 현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신적 승인하는 근거도 아니다. 예레미야애가의 탄식은 성급한 긍정으로 지우지 말고, 에스겔과 다니엘의 환상은 불확실한 세부보다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주권·거룩·보존·최종 승리를 중심으로 읽는다.

이사야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의 첫 책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열방을 포함하는 종말의 구원과 새 창조까지 장대한 시야를 펼친다. 역사적 설교와 심판 신탁, 구원 약속, 노래와 환상, 왕과 종에 관한 예언이 어우러져 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교만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심판하면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고 시온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증언한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언약과 메시아 소망을 신약의 복음에 풍성하게 연결하는 정경적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2. 책명

히브리어 책명 ‘예사야후’는 선지자의 이름이며 ‘여호와와 구원이 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 이름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위기에서 유다가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지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지 묻는 책의 중심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 헬라어와 라틴어 전통을 거쳐 ‘이사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본문은 책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으로 소개한다(1:1).

3. 저자와 기록 연대

이사야는 웃시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서 거룩하신 왕을 뵈고 선지자로 부름 받았으며, 웃시야·요담·아하스·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

(1:1; 6:1). 그의 공적 사역은 대체로 주전 740년경부터 700년 전후에 걸치며, 유대 전통은 그가 므낫세 때 순교했다고 전한다. 이사야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봉하고 가르침을 인봉했으며, 후대에 그의 예언이 보존·정리되었을 수 있다(8:16). 그러나 책은 전체를 이사야의 예언적 권위 아래 제시하고 신약도 전후반의 말씀을 모두 이사야에게 돌린다(요 12:38-41; 롬 9:27-29; 10:16, 20). 바벨론 포로와 고레스에 대한 구체적 예언을 이유로 40-66장을 반드시 포로기 역명의 저자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장래를 미리 선포하신다는 본문의 신학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41:21-29; 44:24-45:7).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이사야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압박하고 앗수르가 서아시아를 휩쓸었으며,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보다 앗수르에 도움을 구했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했다. 유다는 성전 예배를 지속하면서도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 사치와 교만에 빠져 있었다. 이사야는 인간 동맹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한다. 동시에 장차 올 바벨론 포로를 내다보며 낙심한 백성을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새 출애굽을 이루어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열방에 구원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이사야 신학의 중심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계신다. 그분의 거룩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도덕적 순결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열방 위에 뛰어난 위엄과 주권을 뜻한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제단의 솥으로 정결함을 받은 뒤 사명을 받았다(6:1-8). 은혜로 정결해진 사람이 말씀의 종으로 보내지는 이 순서는 이사야서 전체의 심판과 구원 구조를 압축한다.

참된 믿음은 국제 정세와 인간 권력을 부정하는 무책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약속을 최종 안전으로 삼는 것이다. 아하스는 임마누엘의 표징을 거절하고 앗수르를 의지했으며, 히스기야는 위기에서 기도했지만 바벨론 사절 앞에서는 자신의 보물을 자랑했다. 하나님은 앗수르와 바벨론과 고레스를 자기 목적에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교만과 폭력도 심판하신다. 예배와 금식이 공의·공휼·회개와 분리될 때 하나님은 이를 받지 않으신다(1:10-17; 58:1-12). 심판 가운데 보존되는 남은 자는 인간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남는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이사야는 아브라함의 열방 복, 시내산 언약의 거룩과 심판, 다윗 왕조의 약속을 한 구원의 전망 안에 결합한다. 시온은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말씀과 공의가 열방으로 흘러나오는 중심으로 회복되고, 이세의 줄기에서 난 왕은 성령으로 다스리며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한

다(2:1-4; 11:1-10). 여호와와 종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뿐 아니라 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49:5-6). 새 출애굽은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죄 사함, 성령의 부으심, 새 언약적 평화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왕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열방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우주적 통치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역을 여러 갈래로 증언한다. 그는 처녀에게서 나실 임마누엘이며, 다윗의 보좌에서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아들이고, 성령이 머무는 이새의 싹이다(7:14; 9:6-7; 11:1-5). 동시에 여호와와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열방에 정의를 베풀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찢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뒤 높임을 받으신다(42:1-4; 52:13-53:12).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61장의 말씀을 자신의 사명으로 선포하셨고, 신약은 그의 치유·고난·죽음·부활과 이방 선교를 이사야의 성취로 설명한다(눅 4:16-21; 마 8:17; 행 8:32-35; 13:47). 복음은 죄인이 스스로 정결해지는 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종의 대속을 통해 죄를 담당하고 성령으로 새 백성을 창조하시는 구원이다.

8. 읽는 방법

이사야를 서로 무관한 예언 조각이나 미래 사건의 암호표로 읽지 말고, 이사야 시대의 역사적 위기에서 시작하여 포로와 귀환, 메시아와 교회, 마지막 새 창조로 확장되는 예언의 지평을 따라야 한다. 한

예언이 가까운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와 종말에 더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피되, 모든 지명과 사건을 임의로 현대 정치에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심판과 위로, 왕과 종, 시온과 열방, 첫 출애굽과 새 출애굽이 책 전체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추적해야 한다.

또한 ‘종’이 문맥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사야, 고레스, 궁극적으로 죄 없는 대표적 종을 가리키는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단순히 대립시키거나 모든 시온 약속을 물질적 번영으로 축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정경적 성취를 보아야 한다.

특별 주제: 이사야서의 통일성

현대 비평학은 1-39장과 40-55장, 56-66장의 역사적 배경과 문체 차이를 근거로 흔히 제1·제2·제3이사야라는 복수 저자설을 제안한다. 그러나 주제와 어휘의 차이는 심판에서 위로와 회복으로 바뀌는 목적과 청중의 지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시온, 남은 자, 길, 창조와 구속 같은 주제가 전권을 결속한다. 1-39장에도 먼 미래의 회복이 있고 40-66장에도 죄와 심판이 있어 단순한 시대 구분만으로 책을 나누기 어렵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38-41절은 53장 1절과 6장 10절을 함께 인용하며 둘 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으로 증언한다. 자료의 보존과 제자 공동체의 편집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예언을 불가능하다고 전제하여 고레스 예언 이후에 익명 저자를 만들어 내거나 책의 이사야적

통일성을 해체하는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알렉 모티어, 『이사야』; 존 오스왈트, 『이사야』 I-II).

9. 전체 구조와 흐름

1-5장

하나님 백성의 죄와 심판, 정결하게 회복될 시온의 미래를 소개한다.

6장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고 섬김으로 부름 받는 장면을 기록한다.

7-39장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 누구를 신뢰할지를 묻는다. 이 가운데 13-35장은 열방의 교만과 심판, 여호와의 세계 통치와 회복을 넓게 보여 준다.

36-39장

앗수르 위기에서의 구원과 바벨론 포로의 예고를 연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40-55장

은혜와 속죄로 이루실 새 출애굽과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다룬다.

56-66장

회복된 공동체의 성결과 공의, 시온의 영광, 최종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룬다(존 오스왈트, 『이사야』 I-II).

예레미야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수십 년과 예루살렘 멸망 전후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다. 선지자의 설교와 탄식, 상징 행동, 전기적 이야기, 왕과 열방을 향한 신탁이 서로 얹혀 있으며 반드시 연대순으로 배열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 위에 세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동시에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1:10). 이 두 방향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그 심판을 넘어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중심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이르메야후’의 정확한 어원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흔히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히브리어 성경은 첫 구절을 ‘예레미야의 말이라’로 시작하면서도 곧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한다(1:1-2). 따라서 책은 한 인간의 종교적 명상보다, 고난받는 선지자의 생애와 입을 통해 역사 속에 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기록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요시야 왕 제13년인 주전 627/626년경에 부름 받아 예루살렘이 무너진 주전 587/586년 이후까지 사역했다(1:1-3). 그는 여호야김이 첫 두루마리를 불태운 뒤 서기관 바룩에게 말씀을 다시 받아쓰게 했고 많은 말씀을 더하였다(36장). 이는 예레미야의 구두 설교와 기록, 바룩의 서기관적 참여, 후대의 영감받은 보존과 배열을 함께 생각하게 한다. 본문에 일인칭 시와 삼인칭 전기가 공존하고 사건 순서가 연대순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레미야의 역사적 사역과 저자적 권위를 해체할 필요는 없다. 최종 형태는 예루살렘 멸망과 여호야긴의 석방을 아는 시점에 정리되었을 것이다(52:31-34).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예레미야는 앗수르가 쇠퇴하고 애굽과 신바벨론이 패권을 다투던 격변기에 사역했다. 요시야의 개혁 이후 여호아하스·여호야김·여호야긴·시드기야가 차례로 통치했지만 왕과 지도자와 백성은 우상숭배, 피 흘림, 착취와 거짓에 머물렀다. 바벨론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세력을 확장했고, 예루살렘은 주전 597년에 첫 함락을 겪은 뒤 주전 587/586년에 성전과 성벽까지 파괴되었다. 예레미야는 애굽이나 반바벨론 동맹을 구원의 길로 여기지 말고,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라고 선포했다. 책은 멸망이 여호와와 무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언약의 주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심판임

을 밝히고, 포로와 남은 자에게 회복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치료하기 어려운 마음의 반역으로 진단한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으며, 우상과 강대국에 의지했다(2:13). 성전과 제사와 할례를 소유했다는 사실도 불순종을 덮어 주지 못한다. 성전 설교는 ‘여호와와 성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웃을 억압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다른 신을 따르는 거짓 안전을 폭로한다(7:1-15).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고 참된 자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데 있다(4:4; 9:23-24).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개인적 소망이나 국가적 낙관론에 종속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며 ‘평강하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회개 없는 평화를 거절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멸망을 냉정하게 즐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품고 울며, 말씀 때문에 고립·조롱·구타·감금과 죽음의 위협을 겪었다. 그의 탄식은 믿음 없는 불평의 기록만이 아니라, 말씀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의문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버릴 수 없었던 언약적 씨름을 보여 준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는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의 은혜를 잊고 언약을 깨뜨렸으며, 바벨론 포로는 신명기가 경고한 저주의 역사적 성취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뽑고 허무는 심판 뒤에 다시 심고 세우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흠어진 양 떼를 모으며, 포로민을 새 출애굽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16:14-15; 23:1-8; 30-33장).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 밖에만 두지 않고 백성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31:31-34). 이 약속은 옛 언약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새롭게 하셔야 언약 순종이 가능함을 밝힌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레미야서의 복음적 중심은 무너진 왕권과 깨진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이며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불릴 왕으로서 정의롭게 다스리신다(23:5-6; 33:14-16).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선포하여 새 언약의 죄 사함을 십자가 죽음과 연결 하였고, 히브리서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마음에 새겨진 법의 성취를 설명한다(눅 22:20; 히 8:8-12; 10:14-18). 예루살렘이 거절한 선지자의 눈물과 고난은 예수님의 모든 면을 직접 예표하는 도식은 아니지만, 거절하는 도성을 향해 우시

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새 언약을 자기 희생으로 세우신 참 선지자의 길을 바라보게 한다.

8. 읽는 방법

예레미야서는 연대순 전기가 아니므로 왕의 통치 시기와 반복되는 사건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배열이 심판과 소망을 어떤 신학적 흐름으로 배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선지자의 상징 행동과 개인적 탄식을 오늘날 사역자의 행동을 그대로 명령하는 본문으로 만들지 말고, 특정한 언약 심판을 알리는 예언적 소명 안에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29장 11절도 개인의 즉각적 성공을 보장하는 표어가 아니라, 칠십 년의 포로를 지나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명령을 모든 정치적 굴복의 일반 원칙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심판에 대한 순종이었다.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판단할 때에는 듣기 좋은 결과나 단기적 성취만 보지 말고, 이미 주신 언약 말씀과 선지자의 거룩한 삶,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함께 살펴야 한다. 새 언약을 교회의 내면적 체험으로만 축소하지 말고 죄사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공동체 회복과 의로운 다윗 왕의 통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장

예레미야의 소명과 책 전체의 사명을 소개한다.

2-24장

유다의 언약 배반과 임박한 북방 심판을 고발하는 설교·시·상징 행동을 모은다.

25장

칠십 년의 바벨론 통치와 열방이 마실 진노의 잔을 선포해 앞부분을 요약하고 시야를 열방으로 돌린다.

26-29장

성전 설교를 둘러싼 갈등, 거짓 선지자 하나냐, 포로민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참된 예언과 거짓 평안을 대조한다. 30-33장의 ‘위로의 책’은 귀환, 새 언약,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한다.

34-45장

멸망 직전과 이후 왕·백성·예레미야·바룩의 행적을 기록한다.

46-51장

애굽에서 바벨론에 이르는 열방 심판을 선포한다. 52장의 예루살렘 함락과 여호야긴 석방은 심판의 성취와 남아 있는 다윗 계열의 작은 소망으로 책을 맺는다.

예레미야애가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예레미야애가는 주전 587/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참상을 다섯 편의 시로 애도하는 공동체 탄식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의 다섯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로 아브월 9일 성전 파괴를 기억하며 낭독되었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뒤에 놓여 그의 멸망 예언과 역사적으로 연결된다. 이 책은 고통을 서둘러 설명하거나 신앙적인 말로 덮지 않고, 죄와 심판, 굶주림과 죽음, 피해자의 눈물과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말하게 한다.

2. 책명

히브리어 전통은 첫 단어 ‘에카’, 곧 ‘어찌하여’ 또는 ‘슬프다’에서 책명을 취했다. 이 외침은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과부처럼 외롭게 된 충격을 담는다. 후대 랍비 전통은 이 책을 ‘애가들’을 뜻하는 ‘키노트’라 불렀고,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의 명칭도 ‘탄식들’이라는 뜻이다. 한국어의 ‘예레미야애가’는 전통적 저자 이해와 장르를 함께 반영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책명 자체에는 예레미야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예루살렘을 위해 울며 애가를 지었던 예레미야와 책을 연결해 왔고, 칠

십인역도 예레미야가 앉아 이 애가를 지었다는 표제를 붙인다. 예레미야의 시대와 정서, 언어적 접점은 이 전통을 가능하게 하지만, 역대하 35장 25절의 요시아 애가는 현재의 애가와 주제가 다르고 다섯 시의 다양한 목소리도 저자를 확정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예레미야 저작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나 성경이 밝히지 않은 사항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생생한 폐허와 포위의 기억을 볼 때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주전 6세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 군대의 장기 포위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탔으며, 왕과 지도자들은 죽거나 끌려가고 땅에는 극빈자들만 남았다. 굶주림과 살육, 강제 이주와 사회 질서의 붕괴는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애가는 이 재난을 단순히 바벨론의 군사적 우세로 설명하지 않고, 언약을 거역한 유다에게 오래 경고된 심판이 임한 것으로 고백한다.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기억하며 죄를 살피고, 심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공회와 회복을 호소하도록 기도의 언어를 제공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애가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시온을 공의롭게 심판하셨다고 고백한다. 성전과 절기와 왕권도 회개 없는 백성을 자동으로 보호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신 언약의 저주를 이루셨다(2:17; 신 28장). 그러나 이 신학적 설명은 굶어 죽는 어린이와 폭력을 당한 여성, 무너진 노인과 포로의 고통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시인

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참상을 바라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동체의 기도 안에 들인다.

책의 중심 고백은 폐허가 사라진 뒤가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서 나온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은 끝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며 그의 신실하심은 크다(3:21-24).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버리거나 고생시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3:31-33). 이 소망은 심판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게 한다. 탄식과 신뢰는 서로 배제되지 않으며, 믿음은 답을 다 얻기 전에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죄를 고백하며 긍휼을 구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예루살렘 멸망은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선지자들의 경고가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인간 제도와 상징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공동체는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한다(5:19-21). 회복은 죄인이 스스로 돌아설 능력에서 나오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 애가의 열린 결말은 포로 귀환만 아니라 죄와 죽음과 추방을 근본적으로 이길 더 큰 회복을 기다리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레미야애가는 한 구절이나 ‘고난을 본 사람’을 곧바로 예수님과 동일시하기보다, 언약의 저주 아래 신음하는 백성의 탄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게 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거절당한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고, 성 밖에서 수치와 버림받음의 고통을 당하시며 자기 백성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담당하셨다(눅 19:41-44; 갈 3:13; 히 13:12-13). 십자가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긍휼의 길을 열고, 부활은 폐허와 죽음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확증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울며, 최종적으로 모든 눈물을 닦으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린다(계 21:1-4).

8. 읽는 방법

애가를 읽을 때 3장 22-23절만 떼어 위로의 표어로 사용하고 그 앞뒤의 참상과 항의를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책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성급한 해답이나 빠른 감정 회복을 요구하지 않고, 슬픔을 충분히 말하고 기억할 공간을 준다. 동시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특별한 언약 심판을 오늘의 모든 재난과 개인적 고난에 그대로 적용하여 피해자의 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의 죄와 지도자의 책임을 고백하되 구체적 피해자의 고통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알파벳 형식은 혼돈을 말로 담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도록 돕지만 고통을 말끔히 해결하지 않는다. 특히 5장의 마지막 질문을 성급히 지워 버리지 말고,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붙들면서

도 이해되지 않는 침묵 앞에서 계속 부르짖을 수 있음을 배워야 한다. 애기는 개인 경건뿐 아니라 전쟁·재난·박해·공동체적 죄와 상실을 예배 안에서 기억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교회의 기도문으로 읽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장

과부가 된 여인으로 의인화된 예루살렘의 외로움과 죄, 위로자 없는 탄식을 노래한다.

2장

주께서 원수같이 시온을 치시고 성전과 성벽을 허무신 진노를 바라보며 밤낮 부르짖으라고 촉구한다.

중심인 3장

‘고난을 본 사람’의 절망에서 시작하여 여호와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고 기다림과 공동체적 회개로 나아간 뒤 다시 박해 속의 간구로 돌아간다.

4장

시온의 과거 영광과 포위 아래의 참상을 대조하고 지도자와 백성의 죄를 고발한다.

5장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는 공동체 기도로 수치와 상실을 열거하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호소하지만, 버림받은 듯한 질문을 남긴 채 끝난다.

1-4장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르는 아크로스틱 형식을 사용한다.

3장

각 글자가 세 절씩 반복되는 66절의 정교한 중심시다.

에스겔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한 제사장 출신 선지자의 예언서다. 환상과 상징 행동, 비유와 애가, 심판과 구원 신탁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와 포로 공동체의 미래를 해석한다. 책의 흐름은 에스겔을 압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우상숭배 때문에 성전을 떠나는 영광과 심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백성, 다시 성전에 임하는 영광과 ‘여호와 삼마’라는 새 성읍으로 나아간다. 반복되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선언은 심판과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자기 계시에 있음을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예헤즈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 앞에 서야 할 에스겔의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게 하시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2:3-7; 3:8-11).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라틴어 전통 모두 선지자의 이름으로 책을 부르며, 본문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3).

3. 저자와 기록 연대

에스겔서는 대부분 일인칭으로 환상과 말씀과 상징 행동을 기록하고, 열세 개의 연대 표지를 통해 사역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포로 제5년인 주전 593년경에 부름 받았고 적어도 포로 제27년인 주전 571년경까지 말씀을 받았다(1:1-3; 29:17). 책의 정교한 배열과 일부 설명은 에스겔 또는 그의 제자들이 예언 자료를 보존·정리했을 가능성을 허용하지만, 이를 이유로 선지자의 역사적 인격과 핵심 저작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예루살렘 멸망 전후의 구체적인 날짜와 포로 공동체의 상황은 책의 역사적 토대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긴과 지도층·기술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의 포로 공동체 가운데 살았고,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와 성전이 남아 있었다. 많은 사람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고 성전이 자신들을 보호하리라 기대했지만,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폭력은 계속되었다. 에스겔은 성이 반드시 무너지고 성전도 심판받을 것을 상징 행동과 환상으로 선포했다. 주전 587/586년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도착한 뒤에는 메시지의 무게중심이 회복으로 이동한다. 책은 포로민이 헛된 낙관과 절망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그분이 친히 이루실 내적 갱신과 임재의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이다. 여호와 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 포로지에도 나타나며 어느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인다. 하나님은 성전 안의 은밀한 우상숭배와 폭력을 보시고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하신다(8-11장).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 신들이 여호와를 이긴 사건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힌 백성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백성을 씻고 회복하신다(36:16-32).

파수꾼인 선지자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각 사람이 자기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을 전해야 한다. 18장의 개인 책임은 조상과 사회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재 세대가 조상의 죄를 핑계 삼아 회개를 거절할 수 없음을 밝힌다. 동시에 새 삶은 인간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자기 영을 그들 안에 두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36:26-27). 하나님의 주권적 갱신과 인간의 회개 책임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반복된 언약 배반으로 되돌아본다. 왕과 제사장과 거짓 목자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양을 친히 찾고 ‘내 종 다윗’ 한 목자를 세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신다(34:11-31; 37:24-28). 새 출애굽과 정결, 새 마음과 성령, 마른 뼈의 부활과 남북 왕국의 연합은 포로 귀환을

넘어 새 언약 공동체의 창조를 바라본다. 마지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은 죽은 땅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왕이 정결하게 된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새 창조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에스겔서의 그리스도와 복음은 흩어진 양을 찾는 목자, 새 언약의 성령, 회복된 하나님의 임재라는 고유한 흐름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은 양을 착취한 목자들과 달리 양을 알고 찾아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며, 다윗의 한 목자로서 한 무리를 이루신다(겔 34:23; 요 10:11-16).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정결의 길을 열고 높아지신 뒤 성령을 부어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숨과 말씀은 절망한 백성을 다시 창조하시는 성령의 생명 사역을 보여 준다(37:1-14).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참 성전이며,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은 성령과 새 창조 안에서 충만해진다(요 2:19-21; 7:37-39; 계 22:1-5).

8. 읽는 방법

에스겔의 기괴하고 강렬한 환상을 현대 기술이나 특정 국가와 억지로 대응시키지 말고, 고대 성전·왕권·제사장직·언약의 상징과 책 전체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보좌마차의 세부를 상상력으로 채우기보다 어디서나 자유롭게 임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곡과 마곡도 오늘의 어느 민족을 단정하는 암

호로 사용하지 말고, 회복된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최종 집결과 하나님의 결정적 승리를 상징하는 예언적 그림으로 읽어야 한다.

40-48장의 성전 환상은 포로 귀환기의 문자적 건축 설계도로 축소하거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뒤로 돌려 동물 제사가 구원의 수단으로 다시 필요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환상이 강조하는 완전한 거룩과 질서, 돌아온 영광, 생명수와 새 땅을 먼저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 및 최종 새 창조에서 전개되는 정경적 성취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성적으로 충격적인 비유들은 우상숭배의 배신을 고발하는 예언적 수사임을 이해하되, 폭력 피해자에게 수치와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3장

이동하는 보좌와 여호와의 영광 환상, 두루마리를 먹는 소명, 파수꾼의 책임을 다룬다.

4-24장

예루살렘 포위와 멸망을 알리는 상징 행동, 성전의 가증한 우상숭배와 영광의 이탈,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 개인 책임과 이스라엘의 반복된 반역을 선포한다.

25-32장

암몬·모압·에돔·블레셋·두로·시돈·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 여호와께서 열방도 다스리심을 밝힌다.

33장

예루살렘 함락 소식과 함께 파수꾼 사명을 새롭게 하며 책의 전환점이 된다.

34-37장

거짓 목자 대신 다윗의 한 목자, 새 마음과 새 영, 마른 뼈의 소생과 두 막대기의 연합을 약속한다.

38-39장

곡의 최종 공격과 패배를 다룬다.

40-48장

새 성전과 예배, 돌아온 영광, 생명의 강, 새 땅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성읍을 보여 준다.

다니엘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다니엘서는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 아래 살게 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의 참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선포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기독교 성경에서는 대선지서에 놓인다. 1-6장의 궁정 이야기와 7-12장의 묵시적 환상은 장르가 다르지만, 짐승 같은 제국이 잠시 권세를 얻어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심판하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는 한 메시지로 결합된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보다 제국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지혜와 인내를 가르친다.

2. 책명

책명은 중심 인물인 다니엘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다.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제국의 신과 문화에 편입하려 했지만, 책은 계속 다니엘이라는 언약적 이름을 사용한다. 이는 포로가 된 성도가 이방 사회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공적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최종적인 판단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책의 주제와 연결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책은 다니엘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청년이자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시대까지 섬긴 지혜자와 선지자로 제시한다.

7-12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예수님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을 인용하신다(7:1-2; 8:1; 9:2; 12:4; 마 24:15). 전통적 견해는 핵심 기록을 주전 6세기의 다니엘에게 돌리고, 그의 장수한 사역 말기 또는 가까운 시기에 책이 정리되었다고 본다. 일부 역사·언어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하지만, 상세한 예언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마카비 시대의 익명 저자가 다니엘의 이름으로 사후 예언을 썼다고 단정하는 견해는 책 자체와 예수님의 증언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벨론은 주전 605년경부터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주전 587/586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국의 언어·학문·이름·음식을 통해 바벨론의 충실한 관리로 재교육받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메대-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유다인의 귀환을 허락했다. 책은 포로와 흩어진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패배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심판이며,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뒤이은 제국도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아래 있음을 가르친다. 압력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격려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다니엘서는 나라와 왕권을 주고 빼앗으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2:20-23). 느부갓네살의 군사력, 벨사살의 잔치, 왕

의 금령과 짐승들의 폭력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지 못한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낮추고 자기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신들을 섬기지 않는 성도를 지키신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기적적 구조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한다(3:16-18).

성도의 지혜는 제국과 완전히 단절하거나 무비판적으로 동화되는 데 있지 않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을 성실히 섬기지만 예배와 정결, 기도에 관한 충성은 타협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환상을 받았어도 자기 민족의 죄를 남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해 기도한다(9장). 묵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현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계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포로는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폐기는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은 제국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산을 이루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백성과 나라가 섬길 영원한 권세를 주신다(2:34-35, 44-45; 7:9-14). 성도들은 짐승 같은 나라의 박해를 받지만 마침내 나라를 상속한다. 12장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귀환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속사의 목표를 밝히며, 하나님 나라가 죄와 제국뿐 아니라 죽음까지 이길 것을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자신을 다니엘 7장의 ‘인자’로 부르시며,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 영원한 왕권을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다(막 14:61-62). 짐승 같은 제국은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인자는 성도를 대표하고 그들과 나라를 함께 받으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세상 권세의 심판을 담당하고 부활·승천하여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앉으셨으며, 재림 때 그 통치를 공개적으로 완성하신다. 다니엘의 복음은 성도가 자신의 영웅적 결단으로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자의 승리와 중보 안에서 죄 사함과 부활과 영원한 기업을 받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붙들린다는 소식이다.

8. 읽는 방법

다니엘서를 도덕적 영웅담이나 종말 날짜 계산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 불, 사자굴 이야기를 건강법이나 성공 공식으로 만들지 말고, 제국의 동화 압력 속에서 예배의 충성을 지킨 문맥을 보아야 한다. 환상의 짐승·뿔·숫자와 기간은 실제 역사와 연결되지만 상징적·묵시적 언어이므로 모든 세부를 오늘의 인물과 국가에 곧바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처럼 가까운 역사적 성취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종 세력의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되, 성경이 밝히지 않은 날짜와 시간표를 확정하지 않는다.

칠십 이레와 1,290일·1,335일 등 난해한 기간에는 정통적 해석 안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계산 체계 하나를 복음의 기준으로 삼

지 말아야 한다.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이 고난의 기간을 제한하시고 악을 심판하며 죽은 성도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을 주는 데 있다. 요한 계시록이 다니엘의 짐승·기간·바벨론·인자 이미지를 이어받는 것을 살피면서, 두 책 모두 두려움과 추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성도의 인내를 가르친다는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

특별 주제: 다니엘서의 연대와 역사성

비평학의 널리 알려진 견해는 다니엘의 정밀한 제국 예언을 근거로 책을 안티오코스 4세 박해기인 주전 2세기의 위명 문서로 본다. 그러나 이는 초자연적 예언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전제에 크게 의존한다. 책은 바벨론·바사 궁정의 제도와 언어, 포로 시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자신을 다니엘의 증언으로 제시하며, 예수님도 다니엘을 역사적 선지자로 인용하신다. 벨사살의 신분이나 ‘메대 사람 다리오’ 같은 난제는 겸손히 연구해야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동일시를 곧 오류나 후대 창작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람어와 헬라어 차용어도 장기간 국제 환경에서 형성된 언어 자료로 설명 가능하며 주전 2세기 연대를 강제하지 않는다(에드워드 J. 영, 『다니엘서 주석』; 어니스트 C. 루카스, 『다니엘』).

9. 전체 구조와 흐름

1장

포로 청년들의 정체성과 지혜를 소개한다.

2장

네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땅을 채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준다. 3장과 6장은 우상숭배와 기도 금지 앞에서도 충성한 성도를 하나님이 불과 사자굴에서 지키시는 평행 이야기다. 4장과 5장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낮아짐과 회복, 배우지 못한 벨사살의 몰락을 대조한다.

7장

2장의 제국 전망을 짐승과 인자 환상으로 다시 보여 주는 중심부다.

8장

메대-바사와 헬라 및 작은 뿔의 박해를 다룬다.

9장

예레미야의 칠십 년을 읽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칠십 이레를 다룬다.

10-12장

보이는 제국 배후의 영적 전쟁과 마지막 박해, 부활과 성도의 기업을 다룬다. 다니엘 2:4 하반절부터 7장까지는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기록되어 바벨론과 열방의 왕권 및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강조하고, 1장과 8-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언약 백성의 고난과 회복에 초점을 둔다. 아람어 부분은 2장과 7장의 네 나라, 3장과 6장의 구원, 4장과 5장의 왕 심판이 서로 대응하는 동심 구조를 이룬다.

소선지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열두 예언서를 가리킨다. ‘소’는 영감이나 신학적 중요성이 작다는 뜻이 아니라 각 책의 분량이 대선지서보다 짧다는 뜻이다. 유대 전통은 열두 책을 한 두루마리에 보존하여 ‘열두 선지자’로 불렀다. 각 책은 고유한 역사와 메시지를 지니지만,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전부터 포로 이후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죄와 심판, 회개와 남은 자, 여호와의 날과 열방을 포함하는 회복을 함께 증언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열두 책은 혼인과 가족의 상징 행동, 언약 소송, 애가와 화 선언, 환상, 논쟁, 기도과 찬송, 짧은 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뿐 아니라 정의 없는 예배, 경제적 착취, 거짓 지도력과 열방의 폭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했다. 열두 책 사이의 주제적 연결과 정경적 배열을 살피는 일은 유익하지만, 각 책의 역사적 상황과 고유한 목소리를 지워 하나의 후대 편집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첫 청중에게 실제로 주어진 말씀과 최종 정경 안에서 함께 들리는 증언을 모두 존중해야 한다(『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호세아-말라기;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

3. 전체 흐름

호세아·요엘·아모스는 언약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사랑과 회개, 여호와와 의의 날과 정의를 선포한다. 오바다·요나·미가·나훔은 에돔과 니느웨를 포함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원수에게 미치는 공훈과 폭력 제국의 심판, 베들레헴의 통치자와 남은 자의 소망을 보여 준다. 하박국·스바냐는 바벨론의 위협과 여호와와 의의 날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 포로 이후의 학개·스가랴·말라기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촉구하지만, 외적 재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와 장차 오실 왕·목자·사자와 주의 날을 바라보게 한다.

4. 핵심 신학

열두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에 신실하시며 동시에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증언한다. 예배와 윤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거짓과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미워하신다(암 5:21-24; 미 6:6-8). ‘여호와와 의의 날’은 이스라엘의 적만 무너뜨리는 민족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는 날이며, 궁극적으로 악을 제거하고 남은 자와 열방을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앗수르·바벨론·에돔·니느웨와 페르시아 시대의 공동체까지 미치고, 그의 공훈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간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열두 선지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열방 선교 안에서 성취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베들레헴의 통치자는 자기 백성을 목양하고, 겸손한 왕은 나귀를 타고 오며, 버림받은 목자는 은 삼십에 평가되고 찢린 이를 바라보는 자에게 죄 씻는 샘이 열린다(미 5:2; 스 9:9; 11:12-13; 12:10; 13:1; 마 2:5-6; 21:5; 요 19:37). 요엘의 성령 약속은 오순절에 부어지고, 아모스의 무너진 다윗 장막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은혜로 한 백성이 되는 복음 선교와 연결된다(을 2:28-32; 암 9:11-12; 행 2:16-21; 15:13-18). 세레 요한은 말라기가 약속한 사자로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한다.

6. 읽는 방법

각 책의 첫 역사적 상황을 먼저 확인하되 열두 책에 반복되는 출애굽·언약·여호와와 의 날·남은 자·다윗 왕권·시온과 열방의 주제를 함께 추적해야 한다. 상징 행동과 환상을 문자적 현대 뉴스의 암호로만 들지 말고, 선지자의 사회 정의를 복음과 예배에서 떼어 정치 구호로만 축소하지도 않는다. 심판 신탁을 오늘의 개인이나 민족에게 선지자적 권위로 직접 선언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나를 선교 성공담이나 큰 물고기 논쟁으로만, 학개를 건축 현금 독려로만, 말라기의 십일조를 물질적 축복 보장으로만 읽지 말고 각 책의 언약적 문맥과 그리스도 안의 성취를 따라야 한다.

호세아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호세아서는 열두 소先知서의 첫 책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에 언약을 배반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다. 선지자의 결혼과 자녀 이름이라는 상징 행동, 부부와 부모·자녀의 은유, 언약 소송과 역사 회고, 탄식과 사랑의 호소가 결합되어 있다. 호세아는 이상숭배를 단순한 종교 선택이 아니라 사랑과 언약을 배신한 영적 음행으로 폭로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배신한 백성을 징계하고 다시 사랑하여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에서 왔다. 히브리어 ‘호세아’는 ‘구원’ 또는 ‘그가 구원하셨다’는 뜻으로,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과도 같다(민 13:8, 16).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선지자 호세아와는 다른 인물이다. 선지자의 이름은 앗수르와 애굽, 바알과 인간 왕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증언하는 책의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13:4; 14:3).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1). 그는 유다 왕 웃시아·요담·아하스·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으므로, 대략 주전 8세기 중엽부터 북왕국 멸망 전후까지 오랜 기간 사역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이스라엘의 지명과 정치·종교 상황에 대한 친숙함, 왕조의 혼란과 앗수르 위협에 관한 생생한 언급은 그가 북왕국 출신이었음을 시사한다. 후대의 유다 공동체가 그의 예언을 보존·편집했을 수 있으나, 난해한 본문과 형식 변화를 이유로 호세아의 역사적 사역이나 책의 본질적 통일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군사적으로 번영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한 예배, 사회적 폭력, 성적 타락과 권력 투쟁이 깊어졌다. 벤엘과 단의 송아지 예배는 여호와 신앙과 바알 숭배를 혼합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여로보암 사후 왕들이 암살과 반역으로 교체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동맹을 바꾸며 생존을 구했다. 결국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앗수르에게 함락되었다. 호세아는 나라의 병이 외교 전략의 실패보다 여호와를 버린 언약 배반에 있음을 밝히고, 형식적 제사 대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호세아의 중심에는 언약적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정보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길에 순종하는 관계적 삶이다. 이스라엘에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리자 백성도 망했

다(4:1-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양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는 제사 자체를 폐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과 순종 없는 예배를 거절한다는 뜻이다(6:6).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감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음행과 폭력, 탐욕과 거짓 외교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선물과 우상과 왕권을 제거하신다. 그러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는 말 씬은 그의 긍휼이 심판 한가운데서 뜨겁게 움직임을 보여 준다(11:8-9).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럽게 진노에 지배되지 않으며,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기 언약 목적을 이루신다. 회개도 값싼 말이나 잠시의 종교 감정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모든 불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여호와만 의지하는 전인적 귀환이어야 한다(14:1-3).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로암미라는 이름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 공식이 뒤집힌 심판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전에는 자기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한 지도자 아래 모으겠다고 약속하신다(1:9-2:1).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 타이르고, 공의·정의·인애·긍휼·진실로 영원히 자기와 약혼시키며, 짐승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언약적 평화를 이루신다(2:14-23).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다시 새출애굽을 이루고, 백성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3:4-5; 11:1-11). 회복은 이스라엘의 신실함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호세아의 회복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펼쳐 보인다. 예수님은 참 아들이로서 애굽에서 불러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호 11:1; 마 2:15). 바울과 베드로는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말씀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은혜로 불러 모으시는 복음에 적용한다(호 1:10; 2:23; 롬 9:24-26; 벧전 2:10).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는 흠어진 백성을 한 머리 아래 모으는 왕이시며, 신랑으로서 자신을 내어 주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과 스올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값없이 사랑하신다(호 13:14; 고전 15:54-57).

8. 읽는 방법

호세아를 읽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왕조 혼란, 앗수르·애굽 의존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따라야 한다. 결혼과 음행의 은유를 개인 연애나 부부 갈등에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여호와와 언약 백성 사이의 독점적 충성과 배신을 고발하는 예언적 언어로 읽어야 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공예배와 성례를 무시하는 근거로 삼거나, 반대로 종교 의식이 정의와 사랑 없는 삶을 덮게 해서는 안 된다.

6장 1-3절의 ‘돌아가자’는 말도 문맥상 진정한 회개인지 피상적 낙관인지 살펴야 한다. 하나님을 계절의 비처럼 자동으로 나타나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6장 4절 이하가 고발하는 덧없는 인애와 대조하

여 읽어야 한다. 14장 9절의 결론처럼 의인은 여호와와 의의 곧은 길을 걷지만 반역자는 그 길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특별 주제: 호세아의 결혼과 음행의 은유

호세아 1-3장을 환상이나 비유로만 보려는 견해도 있지만, 본문은 고멜과의 실제 결혼과 자녀 출생을 선지자의 상징 행동으로 제시한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고멜이 결혼 전부터 직업적 매춘부였거나 모든 자녀가 간음으로 태어났음을 반드시 뜻하지는 않으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언약 불충실을 호세아의 가정 안에 드러내는 표현일 수 있다(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3장의 여인이 고멜과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본문은 배우자의 간음·학대·폭력을 무조건 참고 관계를 유지하라는 일반 명령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제와 수치 주기의 모형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특정 선지자에게 주어진 고통스러운 표징으로서, 죄를 심판하면서도 값주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 사랑을 증언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3장

호세아의 결혼과 이스라엘·로루하마·로암미라는 자녀 이름을 통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들이 ‘심으심’, ‘궁핍히 여김’, ‘내 백성’으로 뒤집히는 회복을 약속한다.

4:1-6:3

여호와와 언약 소송과 제사장·지도자·백성의 죄, 심판과 돌아오라는 초대를 담는다.

6:4-11:11

아침 이슬 같은 이스라엘의 인애, 형식적 제사, 정치적 배신과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새 출애굽을 선포한다.

11:12-13:16

야곱의 역사와 현재의 거짓을 연결하고 사망과 스올의 심판을 말한다.

14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마지막 호소와 치료·사랑·번성의 약속, 지혜로운 독자에게 여호와와 길을 분별하라는 결론으로 끝난다.

요엘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엘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 책으로, 유다를 덮친 메뚜기와 가뭄의 재앙을 ‘여호와와 날’이라는 더 큰 심판과 구원의 전망으로 확장한다. 시적 예언과 예배 공동체를 향한 호소, 묵시적 우주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른다. 심판의 날은 죄인에게 두렵지만, 회개하며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성령의 선물,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

2. 책명

책명은 브두엘의 아들 선지자 요엘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요엘’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와 ‘엘’이 결합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메뚜기와 군대, 열방과 자연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에게 영을 부으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책의 내용과 어울린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 외에 확실히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이라고 밝히며,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장로·시온 공동체에 익숙했음

을 보여 준다. 기록 연대는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특히 논쟁적이다. 왕을 언급하지 않고 제사장과 성전을 강조하는 점은 포로 후기 연대를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지만, 두로·시돈·블레셋과의 관계 및 아모스와 의 문학적 접점은 포로 이전 연대와의도 잘 맞는다. 주전 9세기부터 5세기 이후까지 여러 견해가 제안되므로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연대의 불확실성이 요엘의 역사적 재앙이나 예언의 권위를 약화하지 않으며, 본문은 실제 위기 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어진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유다 땅은 전례 없는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곡식·포도주·기름과 목초를 잃었고, 성전에 드릴 소제와 전제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농부와 포도원지기, 제사장과 장로, 어린아이와 신혼부부까지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요엘은 이 재앙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무시하지 않고 신명기의 언약 저주와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깨닫게 하는 경고로 해석한다(신 28:38-42). 목적은 특정 개인을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세대가 사건을 기억하며 금식과 성회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요엘의 중심 주제인 ‘여호와의 날’은 한 번의 단순한 사건만 가리키지 않는다. 눈앞의 메뚜기 재앙과 임박한 역사적 심판에서 시작하여 열방의 최종 심판과 시온의 구원까지 여러 지평을 가진다. 그 날을 민족적 특권 때문에 자동으로 기뻐할 수 없으며, 언약 백성도 회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대 앞에 설 수 없다. 반대로 여호와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가 크시므로, 죄인은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 돌아갈 수 있다(2:12-14).

참된 회개는 외적 애곡을 무시하지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옷을 찢는 종교적 표현과 함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회개는 하나님을 조종하여 재앙을 취소시키는 기술이 아니며, 선지자는 하나님이 복을 남기실지 ‘누가 알겠느냐’고 겸손히 말한다(2:14). 회복은 농업적 풍요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아는 지식, 모든 계층에 부어지는 영과 수치의 제거로 나아간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메뚜기와 가뭄은 땅의 풍요와 예배가 언약의 주께 달려 있음을 보여 주며, 회복의 비와 곡식은 신명기의 복을 되돌린다. 그러나 요엘의 전망은 옛 질서의 복구보다 크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영을 부어 자기 말씀을 알고 선포하게 하신다(2:28-29).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고 여호와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며, 열방의 폭력과 노예 매매를 심판하신다. 마지막에는 성전에서 샘이 흘러 메마른 골짜기를 적시고 하나님이 시온에 영원히 거하신다. 이는 새 언약의 성령 공동체와 새 창조의 임재를 준비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는 오순절에 요엘의 성령 약속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으셨다고 선포한다(행 2:16-36). 성령은 특정 선지자나 지도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류의 백성에게 주어져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신다. 바울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적용한다(골 2:32; 롬 10:9-13). 오순절은 약속의 결정적 성취이지만 최종 여호와와 날과 새 창조는 아직 기다린다.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재림 때 악을 심판하고 완전한 피난처와 생명을 이루신다.

8. 읽는 방법

메뚜기 떼를 실제 재앙과 무관한 침략군의 암호로만 읽거나, 반대로 자연재해의 기록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 실제 재앙이 군대와 우주적 심판의 언어로 확대되면서 여호와와 날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언적 기능을 살피야 한다. 오늘의 모든 재난을 특정 집단의 죄에 대한 직접 심판이라고 단정하거나 피해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재난은 모든 사람이 자기 유한성과 죄, 하나님의 통치를 돌아보게 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 원인을 계시 없이 함부로 확정할 수 없다.

성령 부으심을 새로운 개인 계시나 특별 체험의 우열을 세우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모든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도록 성령을 받았다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꿈과 환상

은 성령의 보편적 선물을 묘사하는 예언적 언어이며 성경의 최종 권위를 대체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날을 공포만 조장하는 종말론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최종 심판과 회복을 기다리라는 부르심으로 받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0

메뚜기 재앙과 가뭄의 참상을 묘사하고 장로·주민·농부·제사장에게 애곡과 성회를 명한다.

2:1-11

메뚜기 군대의 언어를 사용하여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선포한다.

2:12-17

‘이제라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공동체 전체를 부른다.

2:18-27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질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 곡식과 비와 수치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한다.

2:28-32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종말의 약속이다. 한국어 성경 3장은 열방을 심판의 골짜기에 모

으고 시온을 피난처로 삼으며, 성전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실 최종 회복을 보여 준다.

아모스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아모스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외적 번영 뒤에 감추어진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폭로하는 예언서다. 열방에 대한 심판 신탁, 이스라엘을 향한 설교와 애가, 다섯 환상과 아마샤와의 대결, 마지막 회복 약속이 결합되어 있다. 여호와께는 시온에서 포효하시며 모든 민족의 잔혹함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언약 백성의 왜곡된 예배와 약자 착취를 엄중히 물으신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기 백성을 다시 심으실 은혜가 남아 있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아모스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이름의 정확한 뜻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짐을 진 자’ 또는 ‘짐을 나르는 자’와 관련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 이름은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북왕국에 전한 그의 사역과 잘 어울리지만, 이름의 어원만으로 책의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아모스는 이사야의 아버지인 ‘아모츠’와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드고아의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유다 왕 웃시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큰 지진 두 해 전에 이스라엘에

관하여 받은 말씀이라고 밝힌다(1:1). 그는 직업적 선지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고 목축과 뿔나무 재배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 양 떼를 따르던 그를 데려다가 북왕국에 예언하도록 부르셨다(7:14-15). 두 왕의 통치가 겹치고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이 절정에 이른 주전 760-750년경의 사역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책의 메시지는 익명의 후대 공동체가 만든 사회 비평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은 영토를 회복하고 무역과 농업으로 부를 누렸지만,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었다. 권력자와 상인은 가난한 자를 은 한 조각과 신 한 켤레 값에 팔고 거짓 저울을 사용했으며, 재판에서는 뇌물로 정의를 굽게 했다. 상아 궁과 겨울·여름 별장을 누리던 지도층은 요셉의 파멸을 근심하지 않았다. 한편 베엘과 길갈에서는 절기와 제사가 활발했지만 금송아지와 혼합된 예배였고 삶의 불의를 가렸다. 아모스는 번영과 종교 활동을 하나님의 자동적 승인으로 여기는 첫 독자의 착각을 깨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앗수르를 통한 포로와 멸망이 임할 것을 경고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아모스는 정의와 예배를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절기·성회·번제·노래 자체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짓밟으면서 종교 행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위선을 미워하신다.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선을 사랑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구다(5:14-15, 21-24). 사회적 죄는 개인의 탐욕과 우상숭배, 부패한 법정과 경제 관행이 결합된 언약적 반역이며, 하나님은 이웃 사랑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여호와의 날은 자동적 승리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심판의 날이 된다(5:18-20).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전쟁 범죄와 노예 매매, 형제에 대한 무자비도 심판하시므로 어느 민족의 신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분은 별자리와 바다와 땅을 지으시고 나라들을 이동시키시는 만군의 주이시다. 동시에 첫 두 환상에서 선지자의 중보를 들으시고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며, 아무 공로도 제시되지 않은 마지막에 회복을 약속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는 말씀은 선택이 죄의 면책 특권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언약적 책임을 동반함을 보여 준다(3:1-2). 출애굽과 가나안 선물, 나실인과 선지자를 주신 은혜를 거부한 백성에게 신명기의 기근·가뭄·전쟁·포로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체질 가운데 남은 자가 보존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되며,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 포함되고 땅의 저주가 풍요로 바뀐다(9:8-15). 이 결말은 언약 심판을 통과해 다윗의 왕권과 열방의 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 아모스 9:11-12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는 일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 약속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행 15:13-18). 부활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할레나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은혜로 한 백성이 된다. 아모스의 마지막 약속은 인간이 먼저 정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그 은혜는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예배와 삶에서 정의와 공훈의 열매를 맺게 한다.

8. 읽는 방법

아모스를 현대의 특정 정치 이념을 정당화하는 구호집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사회적 불의를 개인 경건과 무관한 부차적 문제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책이 모든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자의 희생 위에 쌓인 사치와 부정한 거래, 법정의 부패와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분명히 심판한다. 5:24을 문맥에서 떼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 거짓 예배의 거절, 언약의 공의와 함께 읽어야 한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도 단순한 전도 집회 초청문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은 백성이 심판주를 대면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4:12).

아모스 3:6은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우연히 일어나지 않음을 밝히지만, 오늘의 모든 재난에 대해 계시 없이 특정 죄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선언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선지자가 실제로 받은 말씀과 우리의 제한된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여호와의 날을 교회나 신앙 집단의 자동적 승리로 여기지 말고 먼저 자기 확신과 위선을 살펴야 하며, 심판 신탁과 환상을 마지막 회복 약속과 함께 읽되 회복을 값싼 낙관론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

표제와 여호와의 포효로 책을 연다.

1:3-2:16

다메섹에서 시작해 주변 열방과 유다를 지나 북이스라엘에 이르는 심판의 원을 좁히며 청중 자신을 피고석에 세운다.

3:1-6:14

선택받은 백성의 더 큰 책임, 돌이키지 않은 징계,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거짓 예배와 뒤집힌 여호와의 날, 지도층의 안일을 고발한다.

7:1-9:10

메뚜기·불·다림줄·여름 과일·제단의 다섯 환상과 베엘 제사장 아마샤의 말씀 거부를 통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확증한다.

9:11-15

분위기를 전환하여 다윗의 무너진 장막, 풍성한 땅과 귀환, 다시 뽑히지 않을 심음을 약속한다.

오바다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오바다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네 번째 책이며, 21절로 이루어진 구약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다. 짧지만 한 민족에 대한 보복의 감정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 형제의 재난을 이용한 에돔의 교만과 폭력을 고발하고 모든 나라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예언서다. 에돔의 높은 요새와 인간적 지혜는 무너지고, 고난받은 시온에는 피할 자와 거룩함과 기업의 회복이 있으며, 결론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보편적 왕권 선언으로 나아간다.

2. 책명

책명은 1절의 선지자 오바다에게서 왔다. 히브리어 ‘오바드야’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책의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누구와 동일시할 확실한 근거는 없다. 본문이 전기적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명성보다 그에게 보여 주신 주 여호와의 묵시와 말씀의 권위를 앞세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이 예언을 ‘오바다의 묵시’라고 밝히므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대 집단의 창작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 다만 왕이나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지 않아 기록 시기는 논쟁적이다. 11-14절이 묘사하는

예루살렘 함락을 여호람 시대의 침입으로 보는 주전 9세기설과 바벨론이 성을 파괴한 주전 587/586년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에돔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고 도망자를 넘긴 사실은 시편 137:7과 예레미야애가 4:21-22의 포로기 상황과 잘 맞으므로, 바벨론 멸망 직후인 주전 6세기 견해가 유력하다(데이비드 W. 베이커, 『요엘·오바다·말라기』). 그러나 연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어느 견해를 택하더라도 실제 역사 속 에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본문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남동쪽 세일 산지에 자리 잡았다. 험한 바위 요새와 교역로, 지혜 전통을 의지하여 안전하다고 자부했지만, 형제 나라인 유다가 침략당할 때 멀리 서서 방관하고 패망을 기뻐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재물에 손을 대고 피난길을 막으며 생존자들을 원수에게 넘겼다(10-14절). 첫 독자는 성전과 땅을 잃고 에돔의 조롱과 배신까지 겪은 유다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바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악의 도구가 한계를 넘은 죄도 심판하시며, 시온과 기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위로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오바다의 첫째 주제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기만성이다. 에돔은 천연 요새와 보물, 동맹과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며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별 사이에 깃들어도 끌어내리신다(3-4절). 인간의 안전과 국제 관계는 하나님의 심판

을 막지 못한다. 둘째 주제는 방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에돔은 단지 돕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형제의 고통을 즐기고 이익을 취하며 폭력에 가담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태도와 공동체적 행위까지 공의롭게 갚으신다.

여호와와 나라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보응의 원리가 에돔과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15절). 이는 맹목적인 민족 보복을 허가하는 말이 아니라 보복을 하나님의 재판에 맡기게 하는 선언이다. 유다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으므로 혈통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고 시온에 피할 자를 두시며 빼앗긴 기업을 회복하신다. 심판과 구원의 최종 목적은 인간 민족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야곱과 에서의 형제 관계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오랜 갈등을 배경으로 하지만, 오바다는 민족적 적대감을 숙명처럼 정당화하지 않는다. 에돔은 형제의 언약적 의무를 배반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주한 행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창 12:3). 반대로 심판받아 흩어진 야곱과 요셉의 집은 다시 기업을 얻고 포로들은 돌아온다. 시온의 거룩함과 회복된 땅은 포로 귀환을 포함하면서도 만국을 심판하고 모든 통치가 여호와께 속하는 더 큰 종말론적 나라를 바라본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오바द्या는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시온의 구원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결말은 성경 전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 성취된다. 예수님은 원수의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셨으며, 부활·승천하여 모든 권세 위에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혈통과 민족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하늘의 시온에 속하고,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 형제의 고통을 이용하는 삶에서 돌이킨다 (히 12:22-29). 마지막 날에는 교만한 권세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나라가 공개적으로 완성된다.

8. 읽는 방법

오바द्या서를 오늘의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에돔이라는 이름을 붙여 적대감과 보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으로 원수를 응징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만국의 재판장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게 한다. 먼저 다른 사람의 재난을 구경하고 기뻐하며 이익을 얻는 태도, 안전·재산·동맹·지혜를 절대화하는 자기 교만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고통을 성급히 죄의 결과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며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는 위로를 들려주어야 한다.

예레미야 49:7-22과 오바द्या 1-9절에는 많은 공통 표현이 있지만 어느 저자가 다른 저자를 직접 사용했는지, 또는 공통된 예언 전승을 사용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 문학적 관계를 책의 권위나 진실

성을 훼손하는 증거로 삼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에돔에 일관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정경적 연관을 보아야 한다. 19-20절의 지명은 위치가 불확실한 곳이 있으므로 세부 지도를 단정하기보다 포로들이 사방의 기업을 회복한다는 중심을 붙든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1절은 오바다의 묵시와 에돔을 치도록 열방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식을 제시한다. 2-9절은 높은 바위 거처를 믿는 에돔의 교만을 폭로하고, 동맹국의 배신과 지혜자·용사의 몰락을 선포한다. 10-14절은 형제 야곱에게 가한 포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방관에서 기쁨, 약탈, 도망자 차단과 인도에 이르는 죄의 진행을 보여 준다. 15-16절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에돔에서 만국의 여호와의 날로 확대한다. 17-21절은 시온의 피난과 거룩함, 야곱과 요셉의 기업 회복, 구원받은 자들의 다스림을 거쳐 여호와의 나라로 끝난다.

요나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나서는 열두 소先知서 가운데 다섯 번째 책으로, 다른 예언서와 달리 선지자의 신탁보다 선지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적·교훈적 예언 서사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방 선원과 니느웨 사람이 역설적으로 대조된다. 바다·물고기·박멸궤·벌레·바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종을 추적하여 구원하시고, 폭력적인 이방 성읍에도 회개의 말씀을 보내신다. 책은 마지막 질문을 독자에게 열어 두어 하나님의 공휼을 기뻐하는지 묻는다.

2. 책명

책명은 중심인물인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서 왔다(1:1). 히브리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다. 같은 인물은 열왕기하 14:25에서 가드헤벨 출신 선지자로 등장하며, 여로보암 2세 시대 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했다. 비둘기라는 이름에 여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책 자체가 그 어원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이름만으로 요나의 성품이나 이스라엘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요나서는 본문 안에서 저자를 직접 밝히지 않으며 대부분 요나를 삼인칭으로 서술한다. 전통적으로 요나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 보기

도 하지만, 익명의 영감받은 저자가 요나의 역사적 사역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한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주전 8세기 전반에 활동했다(왕하 14:23-25). 책의 최종 기록 시기는 언어와 문체에 대한 평가에 따라 주전 8세기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제안되지만 확정할 단서가 부족하다. 후대 기록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야기를 역사와 무관한 허구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은 영토를 회복하고 민족적 자신감이 높아졌지만 우상숭배와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앗수르는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나 잔혹함으로 두려움을 주던 제국이었고, 니느웨는 그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와 용서를 원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낯선 문화에 대한 불편보다 원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4:2). 책은 이스라엘 독자에게 자신이 받은 긍휼을 독점하려는 민족적·종교적 교만을 드러내고, 창조주 하나님이 열방과 짐승까지 돌보시며 경고의 말씀으로 죄인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요나서의 중심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이다(2:9). 하나님은 선지자의 불순종에도 목적을 이루시며 바다와 육지, 폭풍과 물고기, 식물과 벌레와 바람을 명하신다. 그러나 주권은 죄인을 억누르는 독단이 아니라 거역하는 종을 죽음에서 건지고 원수의 도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유로운 긍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은혜

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애가 크시다는 언약의 성품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웨에도 나타내신다(4:2; 출 34:6). 동시에 니느웨의 악과 폭력은 실제 심판을 받아 마땅하며, 궁핍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관용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과 함께 온다.

책의 가장 날카로운 역설은 신학적으로 바른 말을 아는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 수 있다는 데 있다. 요나는 바다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니느웨가 같은 궁핍을 받는 것은 싫어한다. 선원들은 생명을 보존하려 애쓰고 니느웨 사람들은 경고에 반응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에 저항한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질문으로 그의 분노와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며, 수고하지 않은 박녕쿨보다 수많은 사람과 가축을 아끼시는 창조주의 궁핍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아브라함의 자손은 열방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거부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좁은 마음에 구속 계획을 가두지 않고 이방 선원과 니느웨 주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고를 알리신다. 니느웨의 회개는 앗수르의 영구적 변화나 최종 구원을 뜻하지 않으며 훗날 나훔은 그 도시의 다시 쌓인 폭력을 심판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지역 신이 아니라 열방의 주이시며, 회개하는 이방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언약 목적을 이루심을 미리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었던 일을 자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가리키는 ‘요나의 표적’으로 제시하셨다(마 12:39-41).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깊음에 내려갔다가 은혜로 살아나 니느웨에 말씀을 전했다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 죄인의 심판을 담당하고 죽음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순종하는 선지자이시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짧은 선포를 듣고 회개했으나 요나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세대는 더 큰 책임을 진다. 복음은 원수를 파괴하기만 바라는 마음을 폭로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전하게 한다.

8. 읽는 방법

요나서를 어린이를 위한 물고기 기적 이야기나 선교에 성공한 영웅담으로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 표적이지만 책의 초점은 물고기의 종류나 생존 가능성을 추측하는 데 있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고도 다른 죄인의 구원을 싫어하는 선지자의 마음에 있다. 요나의 감사시는 참된 은혜의 경험을 담지만 그의 이후 분노는 신앙고백과 성품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니느웨의 반응도 금식이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폭력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거나 영원한 계획을 수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예고된 심판은 죄인이 계속 악한 길에 머문다는 조건을 내포하며, 하나님은 본래의 거룩하고 자

비로운 성품에 따라 회개에 응답하여 재앙을 거두신다(렘 18:7-10). 마지막 질문에 요나의 답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낙관적 결말로 채우지 말고, 독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는지 답하도록 하는 문학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

특별 주제: 요나서의 역사성과 문학적 성격

일부 비평적 해석은 과장과 풍자, 반복과 반전이 두드러진다는 이유로 요나서를 역사와 무관한 비유나 교훈 소설로 본다. 그러나 정교한 문학적성은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열왕기하는 아밋대의 아들 요나를 실제 왕과 시대에 연결하고, 요나서는 실제 지명과 항해·제국 도시를 배경으로 사건을 서술한다. 예수님도 요나의 사흘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자신의 죽음·부활 및 마지막 심판과 연결하셨다(왕하 14:25; 마 12:40-41). 앗수르 왕실 기록에 대규모 회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침묵만으로 사건을 부정할 수 없고, 주전 763년 일식이나 재난을 회개의 직접 원인으로 확정할 수도 없다(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그러므로 요나서는 실제 역사에 뿌리를 두면서 문학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예언 서사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3

니느웨로 가라는 첫 명령과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보여 준다.

1:4-16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고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과정을 다룬다.

1:17-2:10

준비된 큰 물고기와 요나의 감사 기도 및 육지로의 구원을 기록한다. 3:1-3a는 동일한 명령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3:3b-10은 짧은 심판 선포를 들은 니느웨의 광범위한 회개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일을 보여 준다.

4:1-11

용서에 분노하는 요나와 박넝쿨·벌레·동풍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다루고,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으냐는 질문으로 끝난다. 1-2장과 3-4장은 명령·반응·이방인의 변화·요나의 기도 또는 대화가 서로 대응한다.

미가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미가서는 열두 소先知서 가운데 여섯 번째 책으로,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을 법정에 세워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고발하는 예언서다. 심판의 신탁과 애가, 논쟁과 구원 약속, 기도와 찬양이 교차하며 ‘들으라’는 세 차례의 부름이 책의 큰 단락을 이끈다(1:2; 3:1; 6:1). 땅과 집을 빼앗는 권력자, 뇌물로 재판하는 지도자, 돈에 따라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책망받는다. 그러나 시온에서 말씀이 열방으로 나가고, 베들레헬에서 참된 목자 왕이 나오며, 하나님은 남은 자의 죄를 용서하고 언약의 인애를 이루신다.

2. 책명

책명은 모레셋 사람 선지자 미가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미카’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지닌 이름의 축약형이다. 책 마지막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찬양은 그의 이름과 절묘하게 호응한다(7:18). 미가는 사사기 17-18장의 에브라임 사람 미가나 열왕기상 22장의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와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유다 왕 요담·아하스·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힌다(1:1).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 농

촌 지역 출신으로 이사야와 같은 주전 8세기에 활동했으며, 사마리아가 앗수르에 멸망한 주전 722년과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주전 701년 전후의 위기를 보았다. 예레미야 26:17-19은 미가 3:12의 시온 심판 예언을 히스기야 시대의 실제 선포로 기억하며, 왕과 백성의 반응 때문에 재앙이 유예되었다고 증언한다. 심판과 소망의 교차를 서로 다른 시대의 상충 자료로 해체할 필요 없이,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면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통일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가 서아시아를 압도하던 시대에 북왕국은 멸망을 향했고 남유다는 침공과 조공의 압박을 받았다. 내부적으로 권력자들은 탐내는 밭과 집을 빼앗고 여성과 아이를 삶의 터전에서 몰아냈으며, 통치자들은 백성을 먹잇감처럼 다뤘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대가를 따라 가르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했다(2:1-2, 8-9; 3:1-3, 9-12). 미가는 수도와 지방의 첫 독자에게 국가적 위기의 뿌리가 단지 외교 실패가 아니라 언약 파괴임을 밝히고, 거짓 안전을 버려 정의와 인애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된 회복을 기다리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미가는 예배와 공의를 분리하는 신앙을 거부한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자신의 의로운 구원을 먼저 베푸셨다(6:3-5).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

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구원을 사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다(6:8). 수많은 제물이나 만아들까지 바치려는 종교적 열심도 이웃의 기업을 빼앗고 뇌물을 받는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참 선지자는 청중이 원하는 평화를 판매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영과 정의와 능력으로 죄를 밝힌다(3:5-8).

심판과 소망은 미가서에서 반복적으로 맞물린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실제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자를 이루고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4:6-8). 마지막 찬양은 구원의 근거를 남은 자의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죄악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둔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면서도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죄를 발로 밟아 바다 깊은 곳에 던지며,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진실과 인애를 지키신다(7:18-20).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미가의 언약 소송에는 출애굽, 모세·아론·미리암의 인도, 발락과 발람, 싯딤에서 길갈까지의 구원 역사가 증거로 제시된다. 땅은 개인의 무제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파와 가족에게 맡긴 기업이므로 약자의 집과 밭을 빼앗는 행위는 언약 질서를 파괴한다. 심판으로 시온과 성전이 폐허가 되더라도 마지막 날 여호와와의 산이 높아지고 율법과 말씀이 열방으로 나가며, 칼이 농기구로 바뀌고 백성이 평화를 누린다(3:12-4:5). 하나님은 흩어진 남은 자를 모으고 다윗의 고

향 베들레헴에서 왕을 세워 땅끝까지 다스리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열방의 복을 완성하신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미가 5:2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며, 마태복음은 이를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마 2:5-6). 그는 무기력하고 부패한 재판관과 달리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양 떼를 먹이고, 그의 위대함이 땅끝에 이르며 친히 평화가 되시는 다윗의 왕이다(미 5:4-5).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여 흠어진 자를 한 무리로 모으시며, 시온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 열방을 말씀의 길로 부르신다. 복음은 정의를 행한 공로로 용서를 얻는 소식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정의·인애·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소식이다.

8. 읽는 방법

미가 6:8을 복음과 무관한 도덕 표어나 특정 사회운동의 구호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 소송의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동시에 ‘마음의 신앙’만 강조하여 토지 강탈, 경제적 속임, 뇌물 재판관과 지도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 고발을 영적인 비유로 없애서도 안 된다. 정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른 바른 판단과 행동이고, 인애는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여 실천하는 것이며, 겸손한 동행은 자기 공로와 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다.

‘베들레헴 통치자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말씀은 메시아의 영원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지만 표현 자체는 다윗 왕조의 오래된 기원을 함께 가리킬 수 있으므로 그 한 구절의 어휘만으로 모든 기독교론을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신약의 성취와 미가 전체의 목자 왕·여호와의 통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또한 4장의 평화를 인간 정치가 종말 이전에 완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바꾸거나, 반대로 현재의 화해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지워 버리지 말아야 한다. 최종 평화는 왕이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며 교회는 지금 그 나라의 성품을 증언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

표제다.

1:2-2:13

‘형벌과 약속’으로, 여호와의 심판 강림과 선지자의 애가, 토지 강탈과 거짓 예언을 고발한 뒤 남은 자를 모으실 목자 왕을 약속한다.

3:1-5:15

‘고통 너머의 소망’으로, 부패한 지도자와 시온의 파괴를 선포하고 마지막 날 열방이 시온의 말씀을 배우며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와 남은 자를 목양할 것을 보여 준다.

6:1-7:20

‘죄를 정복하는 은혜’로, 언약 소송과 정의·인애·겸손의 요구, 타락한 사회의 애가를 거쳐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와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언약적 긍휼의 찬양으로 끝난다.

나훔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나훔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일곱 번째 책으로,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신탁과 묵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유다를 향한 구원 신탁, 니느웨 함락을 눈앞의 전쟁처럼 묘사하는 시와 조롱 노래가 결합되어 있다. 요나서가 니느웨에 베푸신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를 보여 준다면, 나훔서는 다시 폭력과 거짓과 약탈로 가득 찬 도시에 마침내 임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 준다. 세계 최강 제국의 몰락은 압제받는 유다에게 위로와 해방의 좋은 소식이 된다.

2. 책명

책명은 엘고스 사람 선지자 나훔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나훔’은 ‘위로’ 또는 ‘위로받은 자’와 관련된 이름이다. 책의 대부분이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지만, 그 심판이 앗수르의 땅에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된다는 점에서 이름과 메시지가 맞닿는다. 엘고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갈릴리, 유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므로 특정 지역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받은 묵시의 책이라고 저자와 계시의 성격을 밝힌다. 나훔은 애굽의 테베, 곧 노아몬이 앗수르에 의해 함락된 사건을 과거의 예로 들고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로 선포한다(3:8-

10). 따라서 앓수르바니팔이 테베를 정복한 주전 663년 이후,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한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니느웨 멸망을 사후 예언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며, 구체적인 역사와 생생한 시적 묘사는 예언의 역사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는 여러 민족을 잔혹하게 정복하고 포로로 옮겼으며, 북왕국 사마리아를 주전 722년에 멸망시키고 남유다에도 오랫동안 조공과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산헤립은 니느웨를 화려한 수도로 확장했고 에살하돈과 앓수르바니팔 시대에 제국은 절정에 이르렀다. 니느웨는 난공불락처럼 보였으나 피와 거짓과 탈취가 가득한 도시였다(3:1). 나훔은 강대국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던 유다에게 여호와가 앓수르보다 크시며 그 명예와 결박을 끊으실 것을 확신시키고, 제국의 폭력이 영원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위로를 주기 위해 선포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나훔은 여호와를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한다(1:2). 하나님의 질투는 결핍이나 경쟁심에서 나온 인간의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 관계를 침해하는 우상숭배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보복도 상처받은 자아의 충동적 복수가 아니라 온 세상의 재판장이 악을 공정하게 갚으시는 사법적 행위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 하지만 죄인을 결코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며,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1:3).

같은 하나님이 대적에게는 범람하는 진멸이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1:7-8). 이 대조는 유대인 이면 자동으로 안전하다는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니느웨의 군사력과 부, 성벽과 동맹, 상인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무 보호가 되지 못한다. 역사에서 제국을 심판하시는 사건은 모든 교만한 권세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날을 미리 보여 주며,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증언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앗수르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제국이었지만, 자기 권력을 절대화하고 정복의 한계를 넘어 잔혹함을 자랑했으므로 그 자신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임시로 고난을 허락하셨으나 그의 멍에를 깨뜨리고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여 절기와 서원을 다시 지키게 하신다(1:12-15; 2:2). 이는 언약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약속과 이름을 지키시는 주권적 구원이다. 니느웨의 몰락은 역사 속 한 제국의 교체를 넘어, 짐승 같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여호와와의 의로운 통치가 드러날 최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나훔 1:15은 산 위를 달려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을 보라고 외치며 압제자의 멸망과 유다의 예배 회복을 좋은 소식으로 선포한다. 이사야의 유사한 약속을 이어받은 바울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적용한다(사 52:7; 롬 10:15).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구원의 사랑이 함께 드러났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고 부활하여 죄와 사망과 악한 권세를 이기셨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만 끝까지 악을 붙드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으며, 재림 때 모든 폭력적 권세가 무너지고 복음의 평화가 완성된다.

8. 읽는 방법

나훔서를 개인적 원수나 오늘의 특정 국가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는 보복문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책이 기뻐하는 것은 한 민족의 고통 자체가 아니라 치료할 수 없는 폭력 체제가 끝나고 수많은 피해자가 해방되는 하나님의 공의다(3:19). 피해자에게 성급한 용서나 가해자와의 화해를 강요하는 대신 하나님이 악을 보고 심판하신다는 위로를 전해야 하며, 동시에 개인과 교회가 심판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요나서와 나훔서를 모순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재앙이 유예되었지만, 그 회개가 후대 모든 세대의 자동적 면책을 보장하지 않았다. 한 세기 이상 지난 나훔 시대의 도시는 다시 피와 거짓과 약탈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한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며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속되는 악을 끝까지 방치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 묘사의 시적 과장과 조롱을 현대 폭력의 모방 명령으로 읽지 말고, 실제 역사 속 니느웨 몰락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예언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

니느웨에 관한 신탁과 나훔의 묵시라는 표제다.

1:2-14

여호와와 질투와 진노, 오래 참으심과 권능을 찬양하고, 대적을 진멸하면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유다의 명에가 끊어질 것을 약속한다.

1:15-2:13

평화를 전하는 전령과 유다의 예배 회복을 보여 준 뒤, 니느웨의 공격·함락·약탈과 사자굴의 종말을 극적으로 묘사한다.

3:1-19

피의 성의 죄를 밝히고, 테베도 무너졌다는 역사적 예와 풍자적 방언 명령을 통해 니느웨의 패망이 확실하며 열방이 그 소식에 박수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하박국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하박국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여덟 번째 책으로, 선지자가 백성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독특한 예언서다. 유다 안의 폭력과 왜곡된 정의를 탄식하는 첫 질문,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 도구로 쓰시는 일을 묻는 둘째 질문, 하나님의 두 응답과 바벨론을 향한 다섯 화, 마지막 기도와 찬양으로 진행된다. 책은 믿음이 어려운 질문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심을 붙들고 정직하게 묻고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형편이 무너져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보여 준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에서 왔다(1:1; 3:1). 이름의 정확한 히브리어 어원은 불확실하며, 흔히 ‘꺼안다’ 또는 ‘포옹하다’와 연결하거나 아카드어 식물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한다. 본문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붙드는 선지자의 모습과 연결하는 것은 설교적 연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와 선지자의 기도라고 밝힌다(1:1; 3:1). 개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3장의 음악 지시와 시편 형태는 그가 성전 예배와 가까웠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

람을 새 심판 세력으로 일으키실 것을 선포하는 점은 바벨론이 부상 하던 주전 7세기 말, 대략 요시아 말기부터 여호야김 초기의 상황과 잘 맞는다. 주전 612년 니느웨 함락과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전 후가 자주 제안되지만 정확한 연도는 확정할 수 없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앗수르의 세력은 쇠퇴하고 바벨론이 급속히 부상하던 때, 유다 내 부에는 강포와 죄악과 분쟁이 가득했고 율법과 정의가 마비되었다(1:2-4). 하박국이 하나님의 침묵을 탄식하자 하나님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답하신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사람을 물고기처럼 잡아들이는 더 잔혹한 제국이었다. 책은 이러한 충격적인 섭리 앞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유다와 바벨론의 죄를 모두 심판하시며 정한 때에 목시를 성취하실 것을 확신시키고, 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박국의 핵심 문제는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이다.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지 않으며 역사 속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도구의 교만과 잔혹함을 승인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끝없이 삼키지만 피로 세운 문명은 무너지며,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듯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2:14).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여호와와 거룩한 성전에 계시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2:18-20).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교만하여 마음이 바르지 않은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실히 기다리는 자를 대조한다(2:4). 히브리어 ‘에무나’에는 믿음·신실함·견고함의 의미가 함께 있으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인내를 낳는다. 이것은 행위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의인은 자기 공로나 제국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심판의 때까지 충성으로 나타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의 율법 마비와 바벨론 포로는 언약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약속을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 반석’이라 부르며 심판도 언약 백성을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붙든다(1:12). 3장의 하나님은 데만과 바란에서 오시고 바다를 밟으며 자기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용사로 나타난다. 과거 구원을 기억하는 기도는 바벨론과 모든 악한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을 채우실 새 출애굽과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바울은 하박국 2:4을 인용하여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계시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선포한다(롬 1:17; 갈 3:11). 히브리서는 같은 말씀을 사용하여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권한다(히 10:37-39). 두 적용은 충돌하지 않는다. 죄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

다 함을 받고, 그 믿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낳는다. 예수님은 악한 권세의 폭력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부활하여 승리하셨으며, 그 안에서 성도는 이해되지 않는 섭리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8. 읽는 방법

하박국의 질문을 불신앙으로 정죄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인간 법정에 세우는 자율적 비판으로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악과 계시된 성품 사이의 긴장을 하나님께 가져가며, 답을 요구한 뒤 파수대에서 겸손히 기다린다. 모든 고난의 구체적 이유가 개인에게 직접 계시된 것처럼 설명하지 말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 인간의 책임을 붙들면서 밝혀지지 않은 섭리 앞에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2:4을 단지 긍정적 사고나 위기를 견디는 인간적 성실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신약의 이신칭의를 원문과 무관한 재해석으로 대립시켜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한 인내를 함께 보아야 한다. 3:17-19도 가난과 재난을 낭만화하거나 감정을 억지로 즐겁게 만들라는 명령이 아니다. 선지자는 침략과 기근 앞에서 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이 아니라 언약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

표제다.

1:2-17

‘항의의 대화’로, 유다의 불의에 대한 첫 탄식과 바벨론을 일으키 시켰다는 응답, 더 악한 나라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 이유를 묻는 둘째 탄식을 담는다.

2:1-20

‘지혜의 결의’로, 선지자가 파수대에서 기다리고 하나님ی 정한 때의 묵시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주신 뒤 약탈·부당 이익·피로 세운 성·수치·우상숭배에 다섯 화를 선언한다.

3:1-19

‘순종의 시’로, 진노 중 긍휼을 구하고 출애굽의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결핍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끝난다.

스바냐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스바냐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아홉 번째 책으로, ‘여호와와 날’을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예언서 가운데 하나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와 안일함을 고발하는 심판 신탁은 주변 열방과 온 창조 세계로 확대되고,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마지막 기회를 제시한다. 책은 진노로 끝나지 않고 교만이 제거된 남은 자,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와의 회복으로 나아간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스바냐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츠판야’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뜻이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자가 ‘숨김을 얻을’ 가능성을 말하는 2:3과 의미상 잘 어울린다. 그러나 이름 자체가 그 구절을 의도적으로 예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시대에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밝히며, 그의 계보를 히스기야까지 네 대에 걸쳐 제시한다(1:1). 이 히스기야를 유다 왕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혼한 이름일 가능성도 있어 왕족 출신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니느웨

가 아직 존재하지만 멸망이 예고되고 유다에 바알·별·밀곰 숭배가 남아 있는 상황은 요시아의 개혁이 본격화된 주전 621년 이전, 대략 주전 630년대와 잘 맞는다. 다만 일부 말씀은 개혁 이후에도 선포되었을 수 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거치며 유다에는 바알과 하늘의 별 숭배, 여호와와 밀곰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깊어졌다. 방백과 왕족은 이방 풍습을 따르고 폭력과 속임으로 집을 채웠으며, 상인들은 재물을 의지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여 영적 무관심에 빠졌다(1:4-13). 한편 앗수르는 쇠퇴하고 국제 질서는 흔들리고 있었다.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첫 독자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찾으며 왕의 임재와 남은 자의 회복을 소망하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여호와의 날은 유다의 적들만 무너뜨리는 민족적 승리의 날이 아니다. 언약 백성의 우상숭배와 영적 무관심부터 심판하며, 사람과 짐승·새와 물고기까지 쓸어버리는 표현으로 죄가 창조 세계에 미친 파괴와 심판의 우주적 범위를 보여 준다(1:2-6). 은과 금도 여호와와 분노에서 구하지 못하고, 군사력과 상업적 번영과 종교적 외형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심판 경고는 회개할 기회를 없애지 않는다. 겸손한 자들은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부름을 받는다(2:3).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는 의로운 분으로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시지만, 지도자·재판관·선지자·제사장은 각자의 직분을 부패시켰다(3:3-5). 회복은 단순히 옛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제거하고 곤고하고 가난하여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는 남은 자를 새롭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을 버리고 안전하게 먹으며, 열방도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한마음으로 섬긴다(3:9-13). 이 변화의 중심에는 형벌을 제거하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느 왕의 용서와 사랑이 있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스바냐의 심판 언어는 홍수 때처럼 창조 질서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며, 언약을 떠난 유다도 열방과 함께 심판 아래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경배자들을 먼 곳에서 모으고 수치당한 백성의 운명을 돌키며, 남은 자를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재구성하신다. 열방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약속은 바벨탑에서 언어와 민족이 흩어진 역사를 되돌리는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한다(창 11:1-9; 습 3:9).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 거하시며 악을 제거하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모으신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스바냐가 약속한 ‘시온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난다(3:15-17).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형벌을 담당하여 정죄를 제거하고,

부활하여 죄와 원수를 이긴 구원의 용사이자 왕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오순절에 여러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사건은 열방이 정결한 입술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함께 섬길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여 준다(행 2:5-11). 복음 안에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모든 민족의 겸손한 자가 한 백성으로 모이며, 재림 때 여호와와의 날의 심판과 왕의 기쁨이 완성된다.

8. 읽는 방법

여호와와의 날을 먼 미래의 재난 시간표로만 읽거나 특정 현대 국가에 기계적으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스바냐의 예언은 요시야 시대 유다와 주변 열방에 실제 역사적 심판을 경고하면서 최종 심판까지 내다본다. 먼저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실천적 무신론과 혼합주의, 재물과 권력에 대한 자기 확신을 우리 안에서 살펴야 한다. 2:3의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회개를 심판 회피의 기술이나 당연한 권리로 만들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한다.

3:17을 심판과 회개와 정결의 흐름에서 떼어내어 아무 조건 없이 현재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감상적 문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은 은혜로 형벌이 제거되고 겸손하게 그 이름을 의지하도록 새로워진 언약 백성이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구절은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다’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번역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표현에 지나친 교리를 세

우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중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노래하신다는 놀라운 회복이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

표제다.

1:2-18

여호와와 그의 큰 날과 함께 오는 우주적·언약적 심판으로, 창조 세계를 휩쓰는 선언에서 유다의 우상숭배와 지도층·상인·안일한 자의 심판으로 좁혀 간다.

2:1-15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와 공의와 겸손을 찾으라고 부르고, 서쪽 블레셋부터 동쪽 모압·암몬, 남쪽 구스, 북쪽 앓수르까지 열방의 교만을 심판한다.

3:1-20

패역한 예루살렘을 고발한 뒤 열방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겸손한 남은 자를 보존하며, 시온 가운데 계신 왕의 사랑과 포로 회복의 새 노래로 끝난다.

학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학개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열 번째 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중단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한 네 말씀들을 기록한다. 날짜가 매우 구체적인 짧은 예언서이며, 책망과 순종, 격려와 약속이 빠르게 이어진다. 황폐한 성전과 자기 집에만 몰두한 백성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는 임재와 언약의 영으로 낙심한 공동체를 일으킨다. 마지막에는 열방을 혼드시고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실 약속으로 시야를 넓힌다.

2. 책명

책명은 선지자 학개의 이름에서 왔다(1:1). 히브리어 ‘학가이’는 ‘절기’ 또는 ‘축제’와 관련된 이름으로, 흔히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설명된다. 그가 절기에 태어났거나 이름이 성전 예배 회복과 연결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본문은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에스라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완공되었다고 증언한다(스 5:1-2; 6:14).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학개를 ‘여호와의 사자’로 부르며 그의 입을 통해 여호와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밝힌다(1:13). 네 말씀은 모두 바사 왕 다리오 1세

제2년인 주전 520년 여섯째 달부터 아홉째 달 사이의 정확한 날짜를 가진다. 학개의 가문과 나이는 알려지지 않는다.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노인이었다는 추측도 있지만 2:3은 청중 가운데 이전 영광을 본 사람에게 묻는 말이므로 학개의 나이를 입증하지 않는다. 짧은 사역 기간에도 그의 말씀은 역사 속 지도자와 공동체를 실제 순종으로 이끌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주전 538년경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제단과 성전 기초를 놓았지만, 대적의 방해와 정치적 압박,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심 속에서 공사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다리오 시대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공동체를 이끌었으나 백성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꾸미는 데 힘썼다. 학개는 홍작과 가물을 언약적 징계로 해석하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촉구한다. 목적은 단순히 건물을 완성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삶과 예배의 중심에 모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학개의 반복 명령인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는 경제적 실패를 자기 성찰과 언약적 순종의 문제로 보게 한다(1:5, 7; 2:15, 18). 백성은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벌어도 구멍 난 전대에 넣었는데, 이는 우연이나 노동 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뒤로 미룬 우선순위에 대한 언약적 징계였다. 그러나 이 원리를 모든 현대의 가난과 실패

에 직접 적용해 개인의 불순종 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개에게는 선지자를 통해 밝혀진 특정한 언약 상황과 해석이 있었다.

참된 회복은 인간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성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약속하시고 지도자와 남은 백성의 영을 일으켜 일하게 하신다(1:12-14). 출애굽 때 맺은 언약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다(2:4-5). 거룩함은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은 공동체의 일과 제물을 더럽히므로, 외적 성전 공사 자체가 마음과 삶의 정결을 대신하지 못한다(2:10-14).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성전 재건은 포로에서의 귀환만으로 회복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세운 언약과 영의 임재를 재확인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며 예배받으실 처소를 회복하신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의 외적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했고 정치적으로도 다윗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열방을 흔들어 모든 은금이 자신에게 속했음을 드러내고 이 성전에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2:6-9).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시는 말씀은 여호야긴에게 선언된 심판을 넘어 다윗 언약의 계보가 보존되고 참 왕이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한다(렘 22:24; 학 2:23).

7. 그리스도와 복음

스룹바벨은 바사의 총독에 불과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고, 인장반지 약속은 다윗 왕권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마 1:12-13; 눅 3:27).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성전이며, 죽고 부활하여 자기 몸으로 새 성전을 세우셨다(요 1:14; 2:19-21). 그와 연합한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고 열방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엡 2:19-22). 히브리서는 학개의 ‘한 번 더’ 혼드심을 인용하여 피조된 나라들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남을 것을 선포한다(히 12:26-28).

8. 읽는 방법

학개서를 현대 교회 건축 헌금이나 대형 예배당 건설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포로 귀환기의 성전은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명하신 예배 처소였으며,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하시는 백성이 성전이다. 오늘의 적용은 건물의 크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 말씀과 공동체를 자기 안락보다 우선하는지 묻는 데 있다. 또한 물질을 드리면 반드시 경제적 번영을 얻는다는 공식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 왔지만 히브리어 문법과 문맥상 열방의 귀한 것들 또는 재물이 들어오는 뜻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고 기독교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열방을 혼드시고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성전에 영광과 평화를 주시는 약속은 정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에 완성된다. 가까운 성전 재건과 그리스도의 초림, 교회의 성전됨, 최종적인 만물의 흔들림을 구분하면서 연결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2:10-19

제사장에게 정결과 부정에 관해 묻고 공동체의 부정을 밝힌 뒤 ‘오늘부터’ 복을 주실 것을 선언한다. 1:1-15a은 자기 집을 우선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둔 백성을 책망하며 재건을 명하고, 지도자와 남은 백성이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일으키시는 첫 말씀이다. 1:15b-2:9은 새 성전이 초라해 보이는 이들을 향해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언약과 영의 임재 및 열방을 흔들어 주실 더 큰 영광과 평화를 약속한다.

2:20-23

나라들을 뒤엎는 날에 스룹바벨을 택한 종과 인장반지로 삼겠다는 다윗 계열의 소망으로 끝난다.

스가랴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스가랴서는 열두 소선지서 가운데 열한 번째이자 가장 긴 책으로, 포로 귀환 공동체를 향한 회개 촉구와 밤의 환상, 설교, 상징 행위와 종말론적 신탁을 결합한다. 1-8장은 성전 재건 시기의 구체적 날짜와 인물 속에서 시온의 회복과 공동체 정결을 말하고, 9-14장은 오실 왕과 참 목자의 고난, 예루살렘의 정결과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와의 최종 통치를 바라본다. 난해한 상징이 많지만 중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죄를 제거하고 성령으로 일을 이루며 열방까지 자신의 왕권 아래 모으신다는 약속이다.

2. 책명

책명은 잇도의 후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에게서 왔다(1:1). 히브리어 ‘즈카르야’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언약을 잊지 않고 다시 공활을 베푸신다는 책의 메시지와 잘 어울린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스가랴를 잇도의 후손으로 부르는데, 히브리어 ‘아들’은 더 먼 후손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본문의 베레가 언급과 모순되지 않는다(스 5:1; 6:14; 느 12:16).

3. 저자와 기록 연대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선지자로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했다. 첫 말씀은 다리오 1세 제2년인 주전 520년에, 금식 질문

은 제4년인 주전 518년에 주어졌으며 그의 사역은 성전이 완공된 주전 516년 무렵 이후까지 이어졌을 수 있다. 1-8장은 스가라의 이름과 날짜를 분명히 제시하지만 9-14장은 날짜와 이름 없이 두 ‘신탁’으로 시작하고 문체와 배경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후반부가 더 장기적이고 종말론적인 계시를 담는 데서 설명할 수 있으며, 스가라의 핵심 주제와 앞부분의 이미지가 후반부에도 이어진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귀환민은 성전 기초를 놓은 뒤 방해와 낙심으로 공사를 중단했고, 예루살렘은 성벽과 인구와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바사 제국은 평온해 보였지만 시온은 여전히 황폐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듯했다.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주어진 환상은 하나님이 열방을 살피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며 죄와 악을 제거하고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보증한다. 책은 조상의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행하며, 현재의 작은 순종 너머에 오실 왕과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게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스가라의 환상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준다. 천상 순찰자와 뿔, 대장장이와 병거는 세상 제국이 독립적 주권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홀은 권세를 심판하심을 나타낸다. 예루살렘의 참 안전은 성벽보다 둘러싼 불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성전과 공동체의 회복도 군사력이나 정치 능력

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4:6). 그러나 은혜는 윤리와 분리되지 않아 도둑질과 거짓 맹세, 억압과 형식적 금식은 제거되어야 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정결한 옷이 입혀지는 환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심을 보여 준다(3장). ‘씩’은 성전을 세우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조화롭게 이루는 메시아 소망으로 발전한다(3:8; 6:12-13). 후반부에서는 참왕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고, 선한 목자는 은 삼십에 평가절하되어 버림받으며, 찢린 이를 바라보는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과 죄 씻는 샘이 주어진다. 구원은 인간 지도자의 성공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와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온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부름은 포로 심판 후에도 언약이 유효함을 밝힌다(1:3).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택하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관계를 진실과 공의로 회복하신다(8:8). 출애굽의 언약의 피는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 주고, 흩어진 유다와 에브라임은 새 출애굽처럼 돌아온다(9:11; 10:6-12). 마지막에는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 되고 열방이 예배하며 말방울과 술까지 거룩해져 성전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지는 새 창조적 거룩함이 완성된다(14:9, 16-21).

7. 그리스도와 복음

신약은 스가랴의 여러 약속을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연결한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의롭고 구원하는 왕이며(슥 9:9; 마 21:4-5), 배신의 은 삼십과 토기장이 받은 버림받은 목자의 이야기를 반영한다(슥 11:12-13; 마 26:15; 27:9-10). 십자가에서 찢리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애통하며(슥 12:10; 요 19:37), 목자가 맞으매 제자들이 흩어진다(슥 13:7; 막 14:27).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고 부활한 왕은 성령을 부어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재림 때 만유의 왕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열방의 예배를 받으신다.

8. 읽는 방법

환상의 말 색깔, 뿔과 병거, 숫자와 지명을 오늘의 국가·정치인·사건과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말아야 한다. 상징의 세부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시온을 회복하며 죄를 제거하신다는 중심은 분명하다. 4:6을 준비와 책임을 무시한 채 기적만 기다리라는 구호로 쓰지 말고, 스룹바벨이 실제로 성전 공사를 수행하되 성공의 근원이 성령임을 고백한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금식도 종교 행위 자체보다 정의·진실·인애를 사랑하는 회개가 중요하다.

9-14장의 전쟁과 예루살렘 이미지는 가까운 역사와 메시아의 초림, 교회 시대와 최종 심판이 겹쳐 보이는 예언적 전망을 가진다. 모든 세부를 문자적 현대 전쟁 일정으로 만들거나 반대로 역사와 무관한 영적 은유로 없애지 말아야 한다. 신약이 명시적으로 그리스도에

게 적용한 본문은 확실히 따르되, 모든 환상 인물을 곧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단정하지 않는다.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는 결말은 구약 절기 제도의 단순 복귀보다 만유의 왕께 드리는 보편적 예배와 완전한 거룩함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특별 주제: 스가랴서의 통일성과 9-14장

비평학에서는 1-8장과 9-14장의 날짜·문체·역사적 분위기 차이를 근거로 후반부를 알렉산더 시대나 그 이후 익명의 저자들에게 돌리는 견해가 널리 제안되었다. 그러나 문체 차이만으로 저자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 전반부는 성전 재건기의 날짜 있는 환상과 설교이고 후반부는 더 먼 메시아적·종말론적 신탁이므로 형식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두 부분에는 여호와와 질투와 시온의 회복, 열방 심판과 포함, 목자와 남은 자, 정결과 만유의 왕권이라는 주제가 이어진다. 마태복음도 스가랴 11장의 말씀을 예언의 권위 아래 인용한다(마 27:9-10). 역사적 배경의 난제를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결정적 증거 없이 후반부를 여러 익명 문서로 해체하기보다 스가랴의 계시와 정경적 통일성 안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F. F. 브루스; 랄프 L. 스미스, 『미가-말라기』).

9. 전체 구조와 흐름

1:1-6

조상들의 불순종을 경고하며 언약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른다.

1:7-6:15

여덟 환상을 동심적으로 배열하여 열방의 거짓 평안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확립되는 데 이르고, 중심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과 성령으로 일하는 스룹바벨이 놓인다.

7-8장

금식 질문을 참된 회개와 진실·정의·인애의 삶으로 돌리고, 금식을 기쁨으로 바꾸며 열방이 여호와를 찾을 것을 약속한다.

9-11장

겸손한 왕의 오심과 거절당한 목자를 다룬다.

12-14장

찢린 자를 위한 애통과 죄 씻는 샘, 맞아 죽은 목자와 정결한 남은 자, 예루살렘의 최종 구원과 만유의 왕께 드리는 열방의 예배를 보여 준다.

말라기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말라기는 열두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기독교 성경 배열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다.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지만 약속된 회복의 영광이 눈앞에 충만히 나타나지 않자, 제사장과 백성의 예배는 형식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언약적 신실함이 식어 갔다. 말라기는 냉소와 무관심에 빠진 공동체의 말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려주며, 회개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도록 부르는 언약의 예언이다.

2. 책명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를 뜻한다. 이것이 3장 1절의 사자 주제와 연결된 직함이라는 견해와 에스라의 필명이라는 유대 전통도 있지만, 표제가 다른 소선지서처럼 예언을 전달한 인물을 소개하므로 실제 선지자의 고유 이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앤드류 E. 힐, 『학개·스가랴·말라기』).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의 생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알려진 정보의 부족이 말씀의 권위를 약화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말라기 외에는 저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다. 성전과 제사장 직무가 운영되고 있었고 유다는 페르시아 총독의 통치를 받

았으며,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제사장 부패·십일조 소홀·통혼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전 완공 이후인 주전 500-430년 사이가 널리 제안되고, 에스라·느헤미야보다 앞선 시기 또는 그들과 가까운 때라는 견해가 가능하다(앤드류 E. 힐; 랄프 L. 스미스). 정확한 연대를 단정하기보다 포로 귀환의 첫 열정이 식고 공동체가 영적 권태에 빠진 시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성전은 주전 516년에 재건되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다는 페르시아의 작은 속주였고 풍요와 영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백성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했다(1:2; 2:17). 제사장들은 흠 있는 제물을 드렸고, 백성은 혼인 언약과 십일조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고 말했다. 말라기는 그들의 자기기만을 폭로하고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며, 임박한 주의 오심을 앞두고 예배와 가정과 공동체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촉구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말라기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선언하시며, 백성의 죄에도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다(1:2; 3:6). 이 선택의 사랑은 죄

를 묵인하는 감상적 호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정결하게 하여 언약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예배의 외형보다 자신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과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신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쳐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했지만 오히려 편파적으로 가르쳐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2:5-9). 혼인도 개인적 감정에만 맡겨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증인이 되시는 언약이므로 배우자를 배신하고 폭력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2:10-16). 이방인과의 혼인 자체보다 우상숭배를 받아들이고 언약의 아내를 버리는 불신실함이 문제다. 십일조 역시 하나님을 조종하여 부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성전 예배와 공동체의 필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언약적 순종의 한 부분이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말라기는 레위와의 언약, 조상들과의 언약, 혼인 언약을 함께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제사장과 백성은 언약을 더럽혔고 외적 성전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누릴 수 없었다. 장차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는 은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잿물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악을 심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3:1-5, 16-18). 여호와의 남은 교만한 자에게 불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와 기쁨의 날이다(4:1-3).

7. 그리스도와 복음

말라기 3:1은 여호와 앞에서 길을 준비할 ‘내 사자’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실 ‘주’, 곧 ‘언약의 사자’를 구별하면서 연결한다. 신약은 첫 사자를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고, 예수님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씀하셨다(마 11:10-14; 막 1:2-3; 눅 1:16-17).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호와와의 구원 방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성전에 임해 부패한 예배를 심판하고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며, 재림 때 연단과 심판을 완성하신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와 치료의 빛이 비친다(말 4:2).

8. 읽는 방법

말라기를 읽을 때는 백성의 반문을 따라가며 종교적 냉소가 예배·가르침·혼인·재물·공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살펴야 한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인간적 변덕이나 민족적 증오로 읽지 말고 언약 역사 속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심판으로 이해해야 한다. 2:16의 히브리어는 매우 어려워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와 ‘아내를 미워하여 내보내는 자’ 등 번역이 갈린다. 중심은 남편이 언약의 아내를 배신하고 폭력으로 덮는 행위를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것이므로, 이 구절을 학대받는 배우자에게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십일조 본문은 하나님께 일정 금액을 바치면 반드시 물질적 부를 돌려받는 거래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포로 이후 성전 공동

체의 언약 의무와 레위인 및 공동체의 필요라는 문맥을 먼저 보고, 신약에서 정해진 비율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고 넉넉하게 나누는 원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약의 마지막도 계시가 실패한 막다른 골목으로 보지 말고,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열린 약속으로 읽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5

첫 논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에게 야곱을 향한 선택의 사랑을 확인한다.

1:6-2:9

둘째 논쟁으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그릇 가르친 제사장들을 기소한다.

2:10-16

셋째 논쟁으로 언약 공동체와 혼인의 신실함을 다룬다.

2:17-3:5

넷째 논쟁으로 길을 준비할 사자와 성전에 임하실 주의 정결과 심판을 선포한다.

3:6-12

다섯째 논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고 부르고를 다룬다.

3:13-4:3

여섯째 논쟁으로 경외하는 자의 기념책과 여호와와 날을 제시한다. 4:4-6의 부기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의 사역을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끝난다.

제2부 신약 성경

복음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은 신약의 문을 여는 네 복음서다. 네 책은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네 증언자의 관점에서 선포한다. 마태·마가·누가는 내용과 배열이 많이 겹쳐 ‘함께 본다’는 뜻의 공관복음이라 불리고, 요한복음은 표적과 긴 담화 및 예수님의 신성을 독특하게 강조한다. 복음서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왕을 증언하고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설명할 복음 사건의 역사적 토대를 놓는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복음서는 현대식 전기나 모든 낱자를 빠짐없이 기록한 연대기는 아니지만 실제 역사 속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하는 신학적 전기다. 저자들은 목격자와 신뢰할 만한 전승을 조사하고, 목적에 따라 사건을 선택·요약·배열하면서도 사실을 창작하지 않았다(눅 1:1-4; 요 19:35; 20:30-31). 초기 교회가 붙인 ‘마태·마가·누가·요한에 따른 복음’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복음과 네 정경적 증언을 함께 나타낸다. 자료·양식·편집 비평은 문학적 관계와 저자의 강조를 관찰하는 제한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적과 부활의 역사성을 미리 배제하거나 초대교회가 예수 전승을 자유롭게 창작했다는 전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카슨·무,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공관복음」).

3. 전체 흐름

네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준비와 예수님의 공적 사역,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권능,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수난과 십자가, 빈 무덤과 부활 증언으로 모인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을 성취하는 메시아 왕과 새 모세로 제시하며 다섯 강화와 대위임령을 강조한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고난받는 종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도를 빠르게 전개한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잃은 자를 찾는 구원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을 부각한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말씀, 일곱 표적과 ‘나는 …이다’ 선언, 아버지과 아들, 보혜사 성령과 영생을 깊이 증언한다.

4. 핵심 신학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병 고침과 귀신 축출, 죄 사함과 식탁 교제는 왕의 통치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있음을 보이며, 비유와 제자도 말씀은 그 나라의 성격과 백성의 삶을 가르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과 인자, 선한 목자와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은혜로 부르받지만 반복해서 오해하고 실패하며, 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님의 모범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죽고 몸으로 부활하신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유월절의 새 언약을 자기 피로 세우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으신다(막 10:45; 눅 22:20; 요 1:29).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아들이심과 왕권을 드러내고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 말씀과 세례와 증언으로 사람을 삼게 하며 성령을 약속하신다.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순종·대속적 죽음·몸의 부활·승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역사적이고 구원하는 소식이다.

6. 읽는 방법

각 복음서의 고유한 배열과 강조를 먼저 존중한 뒤 네 증언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차이를 성급히 모순으로 만들거나 네 책을 하나의 ‘합성 복음서’로 섞어 각 저자의 논지를 지우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를 모든 세부에 숨은 뜻을 붙이는 알레고리로 만들지 말고, 기적을 윤리적 상징으로만 약화하거나 번영과 건강의 자동 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산상수훈과 제자도 명령을 은혜 없는 새 율법으로 읽지 않으면서도 값싼 은혜로 순종의 요구를 지워서는 안 된다. 수난과 부활을 결말에 덧붙은 교리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마태복음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마태복음은 신약 정경의 첫 책이자 네 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 왕이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다. 구약과 신약 사이를 잇는 족보와 성취 인용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행적, 배척과 십자가, 부활과 모든 민족을 향한 명령을 하나의 이야기로 전한다. 단순한 전기나 교훈집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사도적 복음 증언이며, 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책이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마태에 따른 복음’이라고 불렀다. ‘복음’은 예수님이 남기신 종교적 충고가 아니라, 약속된 왕이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마태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복음이 네 개라는 뜻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의 증언과 신학적 배열을 통해 전한다는 뜻이다. 마태복음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표제에 쓰지 않지만, 모든 현존 고대 사본의 표제와 초기 교회의 일관된 전승은 이 복음서를 마태와 연결한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마태복음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3. 저자와 기록 연대

교회의 오랜 전승은 저자를 열두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인 마태로 보아 왔다(9:9; 10:3). 본문이 저자를 직접 지명하지 않으므로 전승을 수학적 확실성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도와 무관한 익명 공동체의 산물이었다면 초대교회가 비교적 덜 두드러진 마태의 이름을 일관되게 붙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마가복음과 공유하는 자료와 문구는 사도적 저작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목격자가 다른 신뢰할 만한 복음 전승을 사용할 수 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러 견해가 있으나, 예루살렘 멸망 전후인 주후 68-70년경을 가능성 있는 기록 시기로 볼 수 있다. 22:7과 24장의 말씀을 성전 멸망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예언처럼 취급하여 늦은 연대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장래의 심판을 참되게 예언하실 수 있다(R. T. 프랑스, 『마태복음』; D. A. 카슨, 『마태복음』).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마태는 구약과 유대 관습을 잘 아는 독자들을 전제하면서도 아람어 표현을 설명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강조한다. 수리아 안디옥 같은 혼합 공동체가 기록 장소로 자주 제안되지만 확정할 수 없다. 첫 독자들은 회당과 유대 지도층의 반대, 로마 세계의 압력,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율법의 관계, 이방인의 유입이라는 문제를 마주했다. 마태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성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임을 확증하는 데 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

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준비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마태복음의 중심은 예수님 안에서 가까이 온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왕적 통치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죄를 용서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드러내지만, 의인과 악인의 최종 분리와 모든 피조물의 회복은 재림 때 완성된다(4:17; 12:28; 13장; 25장).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현재의 교회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나라를 내세의 소망으로만 미루는 두 오류를 막는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보다 크신 왕, 모세보다 권위 있게 율법의 참뜻을 밝히는 아들, 성전보다 크신 임마누엘이다.

율법과 의도 중요한 주제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으며, 산상수훈은 외적 규칙을 넘어 살인과 간음의 뿌리인 마음의 욕망, 원수 사랑, 은밀한 경건과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5:17-48). 이 더 나은 의는 행위로 칭의를 얻는 길이 아니라, 왕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제자의 열매다. 마태는 ‘교회’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며 권징·용서·섬김과 작은 자 보호를 가르친다(16:18; 18장).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서 죄인을 회복하고 복음을 섬기는 권위이지 지도자의 자기 높임이나 통제의 허가 아니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첫 구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창세기의 열방을 향한 복과 다윗 언약의 영원한 왕권을 예수님 안에 모은다(1:1).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소 되짚어 애굽에서 나오고, 물을 통과하며, 광야에서 시험받고, 산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과 달리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한다. 열두 제자를 세우신 일은 언약 백성의 갱신을 나타내고,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과 동방 박사 같은 이방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으로 향함을 미리 보여 준다. 포도원과 혼인 잔치 비유는 혈통적 특권이 불신앙을 보호하지 못함을 경고하지만, 이를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미워하거나 교회가 교만하게 대체했다는 반유대주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한 메시아 안에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언약의 복에 참여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마태가 선포하는 복음은 이름 자체에 압축되어 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밝힌다(1:21-23). 왕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을 내어 주며, 마지막 식탁에서 자신의 피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선언한다(20:28; 26:28).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듯 죽으신 유대인의 왕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도덕적 가르침만도 정치적 왕국 건설도 아니다. 대속의 죽음과 실제 부활로 죄인을 용서하고 임마누엘의 임재 안에 모아,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왕의 모든 말씀을 배우며 열방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소식이다(28:18-20).

8. 읽는 방법

마태복음을 산상수훈의 높은 윤리만 모은 책으로 읽거나, 반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칭의와 무관한 부록처럼 약화하지 말아야 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에 근거하지만,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 참된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자비와 정의와 신실함으로 나타난다(7:15-27; 23:23). 행위에 따른 심판 본문은 공로로 구원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이 삶에서 드러남을 말한다. 기적은 번영과 치유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메시아의 공훈과 왕권, 하나님 나라의 침투를 나타내는 표적이며, 제자에게는 십자가와 고난과 끝까지 견디는 믿음도 함께 요구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을 유대인 전체에 대한 정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태 자신이 유대인이며 논쟁은 이스라엘 내부의 언약적·예언자적 책망이다. 27:25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도 모든 시대 유대인에게 집단 죄책을 전가하거나 박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한 24장의 성전 멸망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현대 사건표에 성급히 대입하지 말고, 가까운 예루살렘 심판과 최종적 인자의 오심이 겹쳐 보이는 예언적 시야를 구분해야 한다. 날짜 계산보다 깨어 충성하는 제자도의 요구가 중심이다.

특별 주제: 마태복음의 구약 성취 방식

마태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공식은 언제나 구약의 한 문장이 미래 사건을 직접 예고했다는 단일 방식만 뜻하지 않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직접적 약속, 베들레헴에서 나올 통치자 같은 메시아 예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역사와 라헬의 통곡, 나사렛이라는 주제처럼 이전의 인물·사건·유형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마 1:22-23; 2:5-6, 15, 17-18, 23; R. T. 프랑스, 『마태복음』). ‘성취’는 원래 문맥을 폐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약속에 심어 두신 방향과 의미를 메시아 안에서 목표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구약 인용을 문맥 없는 암호나 우연한 문구 일치로 다루어서도 안 되고, 마태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구약을 왜곡했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먼저 인용된 구약 본문의 역사적 의미와 정경적 발전을 살피고, 마태가 예수님의 사건에서 어떤 반복·대조·완성을 보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수님은 구약을 버리는 새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목표이며, 성경의 여러 약속과 유형을 자신의 삶·죽음·부활 안에서 권위 있게 완성하시는 분이다(D. A. 카슨, 『마태복음』; 그레엄 골즈워디, 『복음중심 해석학』).

9. 전체 구조와 흐름

1-2장

메시아의 족보와 탄생, 유년기를 통해 예수님의 기원과 정체성을 소개한다.

3:1-7:29

사역 준비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다룬다.

8:1-11:1

왕의 권능을 드러내는 기적과 열두 제자를 보내는 선교 강화를 다룬다.

11:2-13:53

다양한 반응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연결한다.

13:54-19:2

배척 속에서 제자들의 고백과 공동체 생활을 가르친다.

19:3-26:2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과 성전 논쟁, 종말 강화를 통해 왕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한다.

26:3-28:20

수난과 죽음, 부활과 대위임령을 기록한다. 다섯 강화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는 문구로 구분되며, 말씀과 행적이 서로 해석

하여 왕의 권위와 제자도의 삶을 함께 보여 준다(D. A. 카슨, 『마태복음』 서론).

마가복음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고 빠르게 전개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1:1). 탄생 이야기 없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로 곧바로 들어가 병 고침·축귀·가르침·논쟁·제자 훈련을 생생하게 연결하고, 전체 이야기의 큰 비중을 예루살렘에서의 수난과 죽음과 빈 무덤에 둔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왕과 고난받는 종을 분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참된 메시아의 정체성과 제자도의 길이 드러나는 역사적 복음서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마가에 따른 복음’이라고 불렀다. ‘복음’은 황제의 업적이나 인간에게 주는 충고가 아니라, 이사야가 약속한 하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왕의 기쁜 소식이다(1:1-3; 사 40:3). ‘시작’이라는 첫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그 복음이 교회의 선포를 통해 계속 전진함을 암시한다. 마가의 이름은 본문 안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고대 표제와 초기 교회의 증언이 일관되게 이 복음서를 요한 마가와 연결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초기 교부 파피아스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베드로가 기억하여 전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정확히 기록했다고 전한다(유세비우스, 『교회사』 3.39;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서론). 요한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바나바·바울의 동역자였고, 후에는 베드로와 가까이 사역했다(행 12:12, 25; 골 4:10; 벧전 5:13). 본문이 저자를 지명하지 않으므로 세부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생생한 목격자적 특성과 초기의 일관된 전승은 마가 저작을 잘 뒷받침한다. 기록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전후인 주후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이 주로 제안된다. 마가 우선설은 유력한 공관복음 관계 이론이지만 확정된 신앙 조항은 아니며, 어떤 기록 순서를 택하더라도 각 복음서의 영감과 역사적 신뢰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마가는 유대 정결 관습을 설명하고 아람어를 번역하며 라틴어 계통 표현을 사용하므로, 로마를 포함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첫 독자로 자주 제안된다(5:41; 7:3-4, 11, 34; 12:42; 15:16, 34). 네로 시대의 박해나 그에 가까운 고난의 상황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는 강조와 잘 어울리지만 장소와 정확한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다. 목적은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과 자연과 죄와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섬기고 대속물로 죽는 인자이심을 선포하는 데 있다. 고난받는 독자들은 영광과 승리를 십자가에서 분리하지 말고, 실

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일으킨다. 하늘의 음성과 귀신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군중과 종교 지도자와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행동하며 바다와 악한 영을 꾸짖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메시아 이해는 사탄의 유혹이며, 죽으신 예수님을 본 이방 백부장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가 절정에 이른다(8:27-33; 15:39).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 안에서 가까이 왔지만, 씨앗처럼 감추어 자라고 박해와 실패 가운데 전진하다가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올 때 완성된다(1:15; 4장; 13장). 제자들은 부름받고 권능을 받았지만 두려워하고 다투며 도망한다. 마가는 이들의 실패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약속으로 회복의 은혜를 보여 준다(16:7). 참된 위대함은 지배가 아니라 작은 자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의존이다(9:24, 35-37; 10:42-45).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마가는 출애굽기와 이사야의 언어로 여호와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지만, 그 길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1:2-3).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먹이며, 바다를 다스리고 새 출애굽과 새 창조의 권능을 나타내신다. 열두 제자는 회복될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성전 정결과 포도원 비유는 열매 없는 지도자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한다. 그러나 언약의 목적은 폐기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에서 자신의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시며,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열방의 참여가 십자가를 통해 열림을 보여 준다(14:24; 15:38-39).

7. 그리스도와 복음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신다(10:45).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잠들고 도망할 때 그는 아버지의 뜻에 홀로 순종하며, 죄 없는 왕이 신성모독자와 반역자처럼 정죄받고 버림의 어둠을 담당한다. 그 죽음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무덤은 비어 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선언이 울린다(15:37-39; 16:6). 복음은 힘으로 자신을 구원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어 죄인을 속량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8. 읽는 방법

마가복음을 빠른 기적 모음으로만 읽지 말고, 반복되는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답을 얻는지 따라가야 한다. 기적을 건강과 성공을 보장하는 기술로 사용하지 말며, 치유받지 못한 신자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된다. 침묵 명령은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려는 기만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정치적·기적 중심 메시아 오해를 막고 정하신 때를 따라 사역하시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귀신의 고백처럼 정확한 지식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제자들의 둔함과 도망을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재료로 삼지 말고 교회 자신의 거울로 읽어야 한다. 지도자는 세상 권력자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종이 되어야 하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학대 피해자에게 부당한 폭력을 계속 견디라고 강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 자기 지위와 안전을 내려놓는 제자도의 부름이다. 13장의 징조는 날짜 계산표보다 미혹을 경계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깨어 있으라는 권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특별 주제: 마가복음의 결말 16:9-20

많은 성경에 실린 16:9-20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빠져 있고, 일부 고대 역본과 교부의 증언도 16:8에서 끝나는 본문을 알고 있다. 긴 결말의 어휘와 문체가 마가복음의 앞부

분과 다르고, 막달라 마리아·두 제자·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심과 승천을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전승처럼 요약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본문비평 학자는 이것을 마가의 원래 결말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덧붙은 결말로 판단한다(로버트 H. 스타인, 『마가복음』 16:9-20;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결론). 일부 사본의 짧은 결말과 여러 결말 형태도 초기 필사자들이 16:8을 갑작스럽게 느꼈음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하는 자유주의적 삭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본 자료를 정직하게 비교하여 가장 이른 본문을 확인하는 일이다. 긴 결말의 부활 현현·복음 전파·승천은 다른 확실한 신약 본문과 조화를 이루지만, 뱀을 집거나 독을 마시는 표적을 신앙 시험이나 예배 의식으로 시행해서는 안 되며 이 부분만으로 독립 교리를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16:8이 원래 의도된 결말인지 원결말이 유실되었는지는 열려 있지만, 마가복음 자체가 이미 세 차례 부활을 예고하고 16:6-7에서 빈 무덤과 부활 및 제자들과의 만남을 확증하므로 부활 신앙은 결말 논쟁에 흔들리지 않는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3:6

복음의 시작과 갈릴리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 및 첫 갈등, 3:7-6:6a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능력 및 배척, 6:6b-8:26은 제자 파송과 떡의 기적, 정결 논쟁 속에서 깊어지는 제자들의 무지를 보여 준다. 8:27-30의 베드로 고백은 책의 전환점이다.

8:31-10:52

세 차례 수난 예고와 그때마다 드러나는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 십자가의 제자도를 가르친다.

11:1-13:37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심판 및 종말 말씀을 다룬다.

14:1-15:47

유월절 식사·체포·재판·십자가와 장사를 다룬다.

16:1-8

빈 무덤과 부활의 소식으로 이어진다. 마가가 한 사건 사이에 다른 사건을 끼워 넣는 ‘샌드위치’ 구성은 서로의 의미를 해석하므로 함께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서 가운데 하나이며 사도행전과 한 쌍을 이루는 첫 번째 책이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면서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여는 복음임을 해석한다. 누가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에 근거한 신학적 역사다.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누가에 따른 복음’이라 불렀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하며, ‘누가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복음이 여러 개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가 증언한 방식이라는 뜻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지만, 초기 교회의 일관된 증언은 저자를 바울의 동역자이며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와 연결한다(골 4:14; 몬 24; 딤후 4:1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문체·헌정 대상·연속된 서술은 같은 저자의 두 권임을 보여 준다(눅 1:1-4; 행 1:1-2).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과 함께 주후 60년대 초 또는 그 이후로 제안되며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 예루살렘 멸망 예고를 반드시 사건

이후의 창작으로 보는 비평적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메시아로서 심판을 참되게 예고하셨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누가는 여러 사람이 전한 자료와 처음부터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자세히 조사하여 데오빌로가 배운 내용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고 ‘차레대로’ 기록했다(1:1-4). ‘각하’라는 호칭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실제 지위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 누가의 목적은 호기심을 위한 연대기 작성이 아니라, 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역사에 뿌리내린 확실한 말씀임을 보여 주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누가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메시아, 구주와 주, 선지자이자 인자로 제시한다. 성령·기도·기쁨·찬양·식탁 교제·회개와 용서가 반복되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여인과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처럼 주변으로 밀려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는 죄나 가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아 구원하심을 보여 준다(19:10). 재물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며, 받은 은혜는 이웃 사랑과 관대한 나눔으로 열매 맺는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누가복음의 구원은 구약과 단절된 새 종교가 아니다. 마리아·사라·시므온의 찬송은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출애굽과 선지자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노래한다. 나사렛 선언은 성령의 기름부음과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고(4:18-21),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되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인자이시다(19:10).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시고, 마지막 식사에서 자기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는 희생으로 해석하시며,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9:51; 22:19-20).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자신의 고난과 영광,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회개와 죄 사함을 증언한다고 밝히신다(24:25-27, 44-49). 복음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범만이 아니라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주권과 죄 사함의 소식이다.

8. 읽는 방법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개별 비유와 치유 이야기를 도덕적 교훈으로만 떼어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루살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시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가난한 자와 부자에 관

한 말씀도 물질 상태만으로 구원 여부를 판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재물을 우상화하는 마음, 은혜가 낳는 회개와 나눔이라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의 결말을 사도행전과 연결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을 교회의 증언을 통해 열방으로 확장하심을 보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및 준비로 시작하고(1:1-4:13), 갈릴리에서 권능 있는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전한다(4:14-9:50). 9:51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굳게 나아가시며 제자도를 가르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9:51-19:27).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사역, 고난과 십자가가 이어지고(19:28-23:56), 부활하신 주께서 성경을 열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며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난다(24장). 이 결말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직접 연결된다.

요한복음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로,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과 수난·부활을 선별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사도적 증언이다(20:30-31). 공관복음과 같은 역사적 예수님을 증언하면서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성육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표적과 긴 담화, 보혜사 성령을 특별히 깊게 설명한다. 단순한 추상 신학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 역사와 몸 안에 들어오셨고 목격자가 그 영광과 십자가와 빈 무덤을 증언한다는 복음서다(1:14; 19:35; 21:24).

2. 책명

초기 교회는 이 책을 ‘요한에 따른 복음’이라 불렀다. ‘복음’은 영적 비밀을 깨닫는 소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공개된 구원의 소식이다(3:16). ‘요한에 따른’이라는 표제는 한 복음을 사도 요한의 증언과 신학적 배열로 전한다는 뜻이다. 본문은 저자의 이름 대신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를 증언의 주체로 제시하며, 초기 교회는 이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연결했다(21:20-24; 레온 모리스, 『요한복음』 서론).

3. 저자와 기록 연대

본문은 저자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와 십자가·빈 무덤·갈릴리 현장에 있었던 ‘사랑하신 제자’로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참되다고 밝힌다(13:23; 19:26, 35; 20:2-8; 21:20-24). 이레나이우스를 비롯한 초기 전승은 그를 사도 요한으로 보았고, 복음서의 팔레스타인 지리와 유대 절기·관습에 관한 상세한 지식도 목격자적 뿌리와 잘 맞는다(안드레아스 J. 퀴스텐베르거, 『요한복음』 서론). 마지막 편집 과정에 요한의 제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인정해도 사도적 증언과 저작권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기록 시기는 대체로 주후 80-90년대가 유력하지만 더 이른 견해도 있으며, 2세기 초 파피루스 P52는 요한복음이 늦은 영지주의 시대의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1세기 후반의 교회로 보이며, 회당과의 갈등, 세상의 미움, 예수님의 참된 신성과 성육신을 흐리는 가르침에 직면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유대 사람 일반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특정 지도층이나 유대 지역 사람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민족 전체에 대한 적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요한은 독자가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증언을 듣고 믿거나 계속 믿어 생명을 누리도록 기록했다(20:31의 동사 형태에는 두 가능성이 있다; D. A. 카슨, 『요한복음』). 이 책은 불신자를 초대하면

서 동시에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서 증언하도록 세운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영원한 말씀이며, 참으로 육신이 되어 아버지를 알려 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1:1, 14, 18). 아버지와 아들은 인격적으로 구별되지만 하나이며, 아들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경배받으신다(5:18-29; 10:30; 20:28). ‘나는 생명의 떡·세상의 빛·문·선택한 목자·부활과 생명·길과 진리와 생명·참포도나무다’라는 선언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인도와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밝힌다. 특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씀은 영원한 선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8:58; 출 3:14; 사 43:10).

표적은 놀라운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정체를 가리킨다. 같은 표적 앞에서도 믿음과 불신이 갈라지며, 표적만 요구하는 믿음은 말씀에 머무는 신뢰로 자라야 한다. 영생은 죽은 뒤의 무한한 시간만이 아니라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언약적 관계이며 마지막 날 몸의 부활에서 완성된다(5:24-29; 17:3).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별도의 중심이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제자들이 증언하게 하신다(14:16-18, 26; 15:26; 16:13-15).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요한복음은 창조의 첫말 ‘태초에’를 다시 열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말씀은 성막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의 몸은 파괴되어 사흘 만에 일어날 참 성전이며, 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새 벤엘이다(1:14, 51; 2:19-21). 유월절 어린양, 광야의 늦뱀과 만나, 초막절의 물과 빛, 선한 목자와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성경과 절기와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에 이른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종교적 특권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한 한 양 떼이며, 예수님은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양들을 모으신다(10:16; 11:51-52).

7. 그리스도와 복음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때’와 높아짐과 영광으로 묘사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은 강제로 생명을 빼앗기는 희생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는 선한 목자다(1:29; 10:11, 17-18).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함으로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실제 죽음의 목격자적 증언과 정결·생명의 구원을 함께 가리킨다(19:30, 34-35).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며,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선언한다(20:28-29). 복음은 성육신·대속적 죽음·몸의 부활

을 통해 믿는 자를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에 참여시키는 소식이다.

8. 읽는 방법

요한복음의 긴 담화와 높은 기독교론을 역사적 예수와 무관한 후대 교회의 창작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요한은 선택과 배열, 해설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깊이 밝히지만 반복해서 목격자적 증언을 주장한다. 공관복음과 성전 정결 위치나 사역 기간·말씀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모순된 예수들을 만들기보다, 선택한 사건과 주제적 배열 및 보완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숫자와 물건에 숨은 상징을 임의로 부여하지 말고, 요한이 직접 ‘표적’과 성경 성취로 연결하는 방향을 따라야 한다.

‘유대인들’에 대한 논쟁과 ‘너희 아비 마귀’ 같은 말씀을 모든 유대 민족의 본성으로 일반화하거나 반유대주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8:44). 논쟁의 기준은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거부하는 불신앙이며, 예수님과 사도들과 최초 신자들도 유대인이다.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약속을 욕망 성취의 백지수표로 읽지 말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그의 말씀과 사명에 일치하는 기도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15:7-8).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경과 무관한 새 계시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사도적 증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다.

특별 주제: 요한복음 7:53-8:11의 사본 문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긍휼과 위선적 정죄를 폭로하는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가장 이른 파피루스와 주요 헬라어 사본들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서는 요한복음의 서로 다른 위치나 누가복음 뒤에 나타난다. 어휘와 문체도 요한의 일반적 표현과 다르므로 다수의 본문비평 학자는 이 사건이 오래된 예수 전승일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요한이 처음 기록한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D. A. 카슨, 『요한복음』 7:53-8:11; 브루스 M. 메츠거, 『신약성서 본문 주석』). 따라서 설교하거나 읽을 때 사본 상태를 밝혀야 하며, 이 단락만으로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

이 판단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본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본을 통해 보존된 자료를 비교하여 가장 이른 형태를 정직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과 조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죄인 환대와 회개 촉구, 위선적 심판에 대한 경고는 확실한 다른 본문들에도 충분히 증언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을 죄를 가볍게 허용하는 선언으로 떼어내지 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회개의 요구와 함께 읽어야 한다. 동시에 본문을 이용해 여성에게만 성적 죄의 수치와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8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서문을 다룬다.

1:19-10:42

세례 요한의 증언부터 여러 표적과 절기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부분이다.

11:1-12:50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과 예루살렘 입성으로 생명과 죽음, 믿음과 불신이 절정에 이르는 전환부다.

13:1-17:26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새 계명과 보혜사 약속을 주며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고별사를 다룬다.

18:1-20:31

체포·재판·십자가·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부분이다.

21:1-25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사명과 베드로의 회복을 새롭게 하는 결문이다. 표적과 담화는 능력과 의미를 함께 밝히며 ‘때’와 ‘영광’의 흐름이 십자가를 향한다.

신약 역사서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신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두 권으로 기록한 연속 역사다. 첫 권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죽음·부활·승천을, 둘째 권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다룬다(눅 1:1-4; 행 1:1-8).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서 바울과 여러 교회가 어떤 역사 속에서 등장했는지 보여 주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적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 경로를 설명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누가는 장소·여행·관리의 직함·재판과 항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 단락으로 자신이 일부 여행의 동행자였음을 나타낸다(16:10-17; 20:5-21:18; 27:1-28:16). 사도행전은 정확한 역사 서술이면서 동시에 설교·기도·회의·기적과 성령의 인도를 선택적으로 배열한 신학적 역사다. 모든 사도와 교회의 모든 지역을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은 신뢰성을 약화하지 않는다. 목적은 데오빌로와 교회가 복음의 역사적 기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기독교 신앙이 정치 반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에 대한 증언임을 알게 하는 데 있다(대럴 벅, 『사도행전』; 카슨·무, 『신약 개론』).

3. 전체 흐름

누가-행전 전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시작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중심 전환점으로 삼고,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선교로 이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말씀이 제국의 중심 로마에서 막힘없이 선포되는 장면으로 열린 결말을 맺는다. 이 흐름은 지리적 확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약속의 확장을 보여 준다(사 49:6; 눅 24:44-49; 행 13:46-47).

4. 핵심 신학

누가-행전은 약속과 성취, 성령과 기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한 긍휼, 재물의 청지기직, 증언과 박해를 한 흐름으로 묶는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잇고, 기도는 중요한 구속사적 전환과 사역의 결정마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사람에게 이르지만 죄 사함과 회개를 생략한 사회적 포용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초기 공동체의 나눔과 다민족적 연합은 성령이 만드신 새 언약 백성의 표지이며, 교회 내부의 죄와 갈등을 숨기지 않는 기록은 선교의 주체가 이상화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5. 그리스도와 복음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부활해야 한다는 성경의 뜻을 이루신다(눅 4:18-21; 19:10; 24:25-27). 사도행전의 증언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높아져 성령을 부어 주시는 주이심을 밝힌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대신하는 별도 계획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이 약속하신 구원을 열방에 적용하시는 계속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서로 낮선 사람들을 한 식탁과 한 성령안의 공동체로 세우신다.

6. 읽는 방법

역사 서술에서 ‘일어난 일’과 ‘모든 교회에 명령된 일’을 구분하려면 반복되는 서술, 사도들의 해석, 누가-행전의 약속과 성취, 신약 서신의 명시적 교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오순절과 복음이 새 집단에 처음 이르는 장면은 반복 가능한 체험 순서보다 한 교회의 형성을 보여주는 전환 사건이다(롬 8:9; 고전 12:13; 싱클레어 퍼거슨, 『성령』).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서로 경쟁하는 두 기독교의 대표자로 나누지 말고, 설교와 회의와 성령의 동일한 증언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들로 읽어야 한다. 개별 사건은 이런 정경적 기준과 해당 본문 문맥을 함께 살펴 적용한다.

사도행전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자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를 잇는 신약의 역사서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을 전한다면, 사도행전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확장하시는 일을 보여 준다(1:1-8).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중심 주인공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이다.

2. 책명

‘사도행전’이라는 명칭은 초기 교회가 붙인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제목에서 왔다. 그러나 이 책은 열두 사도 전체의 행적을 고르게 기록하지 않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다룬다. 따라서 이 제목은 사도들의 완전한 전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움 받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된 역사를 가리킨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 누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두 책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헌정되며 문체와 신학, 사건의 연결이 일치한다. 사도행전의 일부에 나타나는 ‘우리’ 서술은 저자가 바울의 여행에 동행한 목격자였음을 뒷받침한다(16:10-17; 20:5-21:18; 27:1-28:16). 기록 연대는 바울의 로마 구금으로 끝나는

점을 근거로 주후 60년대 초로 보거나, 누가복음의 연대와 저술 목적을 고려해 그 이후로 보기도 한다. 정확한 연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책은 초대교회의 실제 인물과 장소와 재판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바울의 로마 사역까지 약 30년 동안 복음이 유대 땅에서 지중해 세계로 확장된 역사를 다룬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기원과 복음의 정당성을 알도록 기록했다. 교회는 로마에 대한 정치 반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공동체이며, 이방인의 회심도 사도적 복음을 훼손한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에 따른 성취임을 보여 준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성령과 말씀과 증언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다. 성령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새로운 복음을 만들게 하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반복되는 설교는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높이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한다. 누가는 교회의 성장을 단순한 숫자나 조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퍼지는 것으로 묘사한다(6:7; 12:24; 19:20).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떤 일과 기도에 힘쓰며 필요를 따라 소유를 나누었다(2:42-47; 4:32-35). 이 나눔은 사유 재산을 강제로 폐지한 획일적 경제제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낳으신 자발적 사랑과 청지기적 책임이다(5:4). 교회는 거룩한 이상 공동체로만 묘사되지 않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헬라파 과부의 소외, 마술과 돈으로 성령의 권능을 사려는 유혹, 지도자 사이의 갈등도 기록된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이어 가신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구속사적 사건이며,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윗의 자손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결과다(2:16-36).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열방의 복과 선지자들의 이방 구원 약속에 따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간다.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이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한 백성이 됨을 확증한다(10-11장; 15:7-11).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덧붙여진 별개의 체험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선물이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부활·승천과 연결된 단회적 구속사 사건이며, 믿는 자는 회심 후 별도의 성령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순절의 열매에 참여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사마리아와 고넬료의 집과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도 동일한 두 단계 체험의 반복 공식이라기보다, 복음이 새로운 집단에 이르며 그들도 한 교회에 속했음을 사도적으로 확증한 전환점으로 읽어야 한다(싱클레어 퍼거슨, 『성령』).

7. 그리스도와 복음

사도행전의 복음은 예수님의 모범이나 교회의 성장 기술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는 소식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며,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약속한다(2:36-39; 4:12).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박해자 사울을 만나 사도로 부르시고, 자기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증인들과 함께하신다. 복음의 전진은 교회의 영웅적 능력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사역이다.

8. 읽는 방법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을 오늘의 교회가 그대로 반복해야 할 규범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오순절, 사마리아인의 성령 수여,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새 경계를 넘어가는 단회적 구속사적 전환점인 동시에, 성령께서 모든 신자를 한 교회로 부르신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 무엇이 시대를 초월한 교훈인지 판단할 때는 사도들의 명시적 가르침과 반복되는 교회의 특징, 신약 서신의 교훈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을 경쟁하는 두 복음의 대표자로 나누지 말고, 동일한

주와 성령과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증언한 사도로 읽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사도행전 1:8

책의 지리적·신학적 흐름을 제시한다.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증언이 먼저 나오고(1-7장), 박해를 계기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며 에티오피아 내시와 사울과 고넬료에게 이른다(8-12장). 이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고,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확인한다(13-15장). 바울의 선교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16-21장), 체포와 재판과 항해 끝에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열린 결말에 도달한다(22-28장).

바울서신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바울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열세 편지다. 교회에 보낸 로마서·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데살로니가전후서와, 동역자에게 보낸 디모데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가 포함된다. 배열은 대체로 긴 교회 서신에서 짧은 개인 서신으로 이어지며 작성 순서와 같지 않다. 이 편지들은 복음서가 증언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여러 지역 교회의 예배·교리·윤리·선교와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사도적 권위로 해설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바울서신은 특정한 교회와 사람, 실제 문제와 질문에 응답한 고대 편지다. 발신자와 수신자, 감사 또는 축복, 본론과 권면, 여행 계획과 문안이라는 편지 관습을 사용하지만 사도적 복음과 교회적 공공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구절을 독립된 교리 표어로 떼기 전에 편지 전체의 논증, 수신자의 상황,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한다. 목회서신을 포함한 바울 저작을 후대 익명의 교회가 사도의 이름을 빌려 쓴 위명 문서로 쉽게 돌리지 않는다. 서신의 자기증언, 개인적 세부와 초기 교회의 수용을 존중하면서 문체와 상황 차이를 바울의 긴 사역과 공동 저자·서기관역의 역할 안에서 살핀다(카슨·무, 『신약 개론』 바울서신 및 목회서신 서론).

3. 전체 흐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죄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백성이 됨을 밝힌다. 고린도전후서는 분열·성·소송·은사·예배·부활, 약함의 사도직과 화목 및 연보를 복음으로 바로잡는다. 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연합, 교회의 일치와 기쁨, 형제됨과 화해를 보여 준다. 데살로니가전후서는 박해 중 거룩과 재림 소망을 가르친다. 목회서신은 바른 교훈과 직분, 예배와 돌봄, 복음의 전수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도록 권한다.

4. 핵심 신학

바울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소식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행위로 자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를 근거로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칭의는 성화와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성령 안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사랑으로 율법의 뜻을 이루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롬 3-8장; 12:1-2).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구원의 지위를 차별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다양한 은사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으로 사용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주로 선포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롬 1:3-4). 그는 저주를 대신 지고 죄인을 속량하며, 십자가로 원수 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의 몸의 부활을 보증한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 그의 의와 생명에 참여하며,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장차 유업을 보증하신다. 복음은 개인의 내적 평안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거룩한 삶, 약자를 위한 자기 희생, 열방 선교와 새 창조의 소망을 낳는다.

6. 읽는 방법

바울의 교리와 적용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명령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공휼에 대한 응답이지만, 은혜가 순종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로마서를 개인 구원 교리책으로만 읽어 12장 이후의 공동체 적용과 유대인·이방인의 일치를 약화하지 말고, 반대로 공동체 문제를 강조하다 이신칭의와 대속을 흐리지 않는다. 당시 문화와 직접 연결된 머리 덮개·음식·노예·가정 규례 등은 창조와 복음에 근거한 원리와 당시 표현 방식을 구별해 신약 전체와 함께 적용한다. 서신의 모든 ‘나’와 ‘우리’를 즉시 현대 개인에게 옮기지 말고 저자·수신자·이스라엘·교회의 문맥을 확인한다.

로마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로마서는 바울서신의 첫 책이자 바울의 복음과 선교 비전을 가장 폭넓고 논리적으로 전개한 서신이다. 체계신학 논문처럼 깊지만, 실제 로마 교회의 유대인·이방인 성도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바울의 서바나 선교에 동참하도록 쓴 목회적·선교적 편지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끄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백성으로 세워 삶 전체를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신다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 준다.

2. 책명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7). 헬라어 사본의 전통적 표제도 ‘로마인들에게’라고 한다.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지만 바울은 교회를 제국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공동체로 호명한다. 책명은 저자가 로마에서 썼다는 뜻이 아니라 수신지가 로마임을 나타낸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밝히고, 더디오가 편지를 받아 적었으며 뢰뵤·가이오·에라스

도 등 역사적 인물의 문안을 담는다(1:1; 16:1, 22-23). 바울 저작은 고대 교회와 현대 연구에서 널리 인정되며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직전 이고 겐그레아의 뵈뵈를 추천하며 가이오의 집에 머문 정황을 종합하면, 제3차 선교 여행 말기 고린도에서 주후 56-57년경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20:2-3; 롬 15:25-26; 16:1, 23;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서론; 토머스 R. 슈라이너, 『로마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으며 오순절에 복음을 들은 로마 방문자들과 여러 경로의 신자들을 통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행 2:10). 클라우디오 황제가 주후 49년경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뒤, 네로 때 돌아온 유대계 신자들은 이방계 중심으로 변한 공동체에서 음식·날·율법과 정체성 문제를 겪었다(행 18:2; 롬 14:1-15:13; 수에토니우스, 『황제전』 「클라우디우스」 25.4).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여 오해를 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받아 한목소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려 했다(1:10-15; 15:7-12, 22-29).

5. 핵심 주제와 신학

로마서의 중심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1:16-17). 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언약적 신실하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구원 행위를 함께 드러낸다(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17).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죄 아래 있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워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3:9-26). 칭의는 믿음 자체나 성화의 성취를 의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다(4:4-8; 5:18-19; 존 머리, 『로마서』 3:21-26).

칭의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에 죽고 하나님께 산 자가 되며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린다(6:1-14). 율법은 거룩하지만 죄를 폭로할 뿐 생명을 주지 못하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과 영화로 이끄신다(7:7-13; 8:1-30). 성화는 칭의에 보태어 구원을 완성하는 공로가 아니라 연합과 성령의 은혜가 낳는 필연적 열매다(6:15-23; 8:12-17). 하나님의 미리 아심·예정·부르심·칭의·영화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견인의 확신을 준다(8:28-3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혈통이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다(9:6-18).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지 않고 이스라엘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여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한다(9:30-10:13). 선택 교리는 냉정한 숙명론이나 전도 포기 of 근거가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다(10:14-17; 11:30-36; 토머스 R. 슈라이어, 『로마서』 9-11장).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이 왕 노릇했으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은혜와 의와 생명이 왕 노릇한다(5:12-21).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 세계를 상속하게 한다(4:9-17).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지만, 새 언약에서 성령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자기 백성 안에 이루신다(7:7-13; 8:3-4).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며, 교회는 이새의 뿌리이신 그리스도를 열방과 함께 찬양하는 한 언약 백성이다(14:17; 15:7-13).

7. 그리스도와 복음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1:1-4). 그는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다(3:24-26; 4:25).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기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성도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5:12-6:11). 부활하신 주는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어 고백할 구원의 주이며 이새의 뿌리로 열방을 다스리신다(8:34; 10:9-13; 15:12). 복음은 개인의 죄책을 제거할 뿐 아니라 원수 된 사람들을 한 몸으로 받아 서로를 세우고 열방 선교에 참여하게 한다.

8. 읽는 방법

로마서를 교리 체계를 정리하는 책으로만 읽거나 ‘교리편 1-11장, 실천편 12-16장’으로 완전히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깊은 복음 설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12장 이후의 산 제사와 공동체의 변화·원수 사랑·공적 책임·약한 자와 강한 자의 연합·열방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변화된 삶은 복음을 받은 뒤 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 ‘제2단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최초의 응답에 뿌리를 둔다(1:5; 12:1-2; 15:7-13; 16:26;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2:1-15:13, 특히 12:1-2 해설). 그러므로 교리의 정확성과 복음이 빚어내는 몸의 순종을 함께 읽어야 한다.

14장의 약한 자와 강한 자 문제도 죄와 복음의 본질을 상대화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 주신 성도를 음식과 날 같은 비본질적 문제로 멸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권면이다(14:1-1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4:1-15:13). 바울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진 ‘강한 자’에게 자기 자유를 과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받아 주신 형제를 세우라고 요구한다. 적용은 교리의 약화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적 성취다.

13장의 국가 권세는 모든 정부 행위를 무조건 승인하거나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백지 위임이 아니다. 권세의 정당한 직무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며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13:1-7;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3:1-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성도는 세금·존중·질서의 의무를 다하되 하나

님께 불순종하라는 명령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에 악으로 맞서지 않으면서 선과 진리로 저항해야 한다(12:17-21; 행 5:29).

특별 주제: 새 관점 논쟁과 이신칭의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은 제2성전기 유대교가 단순한 공로 종교만은 아니었고, ‘율법의 행위’가 할례·음식법·안식일 같은 언약 백성의 경계표지를 포함하며, 칭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가족 형성과 관계된다는 점을 부각했다(E. P. 샌더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제임스 D. G. 던,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및 『Romans』 3:20, 28). 이러한 역사적·공동체적 통찰은 유익하지만 ‘율법의 행위’를 민족적 표지로만 제한하면 바울이 고발한 모든 인간의 죄와 행위 의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필요를 축소한다(1:18-3:20; 4:1-8;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3:20, 28).

개혁주의적 칭의는 법정적 선언과 언약 공동체의 형성을 경쟁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여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는 한 백성으로 세우신다(3:27-30; 4:5; 5:18-19; 갈 3:26-29; 존 머리, 『로마서』 3:21-5:21). 선행은 칭의의 근거나 도구 또는 미래 판결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받은 참된 믿음에 나타나는 필연적 열매와 공개적 증거다(2:6-10; 6:1-14; 8:3-4; 12:1-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2:6-11).

특별 주제: 로마서 7장의 ‘나’와 죄의 싸움

7:14-25의 ‘나’에는 회심 전 바울,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또는 아담적 인간, 율법을 기뻐하지만 죄와 싸우는 성도라는 주요 견해가 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과 8장으로 이어지는 성도의 실제 싸움은 회심한 자의 경험을 지지하지만, ‘죄 아래 팔렸다’와 ‘사망의 몸’이라는 강한 표현은 6장의 해방과 긴장을 이룬다(7:14, 22-25; C. E. B. 크랜필드, 『로마서』 7:14-25;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7:7-25).

따라서 본문을 성도가 죄의 지배 아래 그대로 있다는 근거로 쓰거나, 참 신자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왕권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남아 있는 죄와 싸우고, 승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성령에게서 온다(6:6-14; 7:24-8:4, 23).

특별 주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11:26의 ‘온 이스라엘’에는 역사 전체의 택함 받은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이방인의 충만함 뒤에 일어날 유대 민족의 광범위한 회심이라는 주요 견해가 있다. 문맥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계속 구별하고 ‘그들의 받아들임’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마지막 때 유대인의 광범위한 복음 회심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모든 유대인이 예외 없이 구원되거나 그리스도 밖에 별도의 구원 길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11:12, 15, 25-32;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11:25-27).

감람나무 비유는 이방인 교회의 교만과 반유대주의를 금한다. 이방인은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두려움과 감사로 서야 한다(11:17-24). 동시에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현대 국가의 모든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 신학 승인으로 바꿀 수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공효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랑을 모두 달는다(10:9-13; 11:30-36).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7

인사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1:18-4:25

모든 인류의 죄와 심판,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믿음의 칭의와 아브라함의 본을 설명한다.

5:1-8:39

아담과 그리스도, 죄와 율법에서의 해방, 성령 안의 새 생명과 고난 중 확실한 소망을 전개한다.

9:1-11:36

이스라엘의 불신과 하나님의 선택·공효·신실하심 및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다룬다.

12:1-15:13

산 제사·은사·사랑·국가 권세·약한 자와 강한 자의 연합을 권한다.

15:14-16:27

바울의 선교 계획과 동역자들의 문안, 경고와 송영으로 마친다.

고린도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도덕적 혼란, 예배와 은사, 부활에 관한 질문에 복음으로 답한 묵회 서신이다. 여러 문제를 차례로 처리하지만 중심은 하나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정체성과 지혜·거룩·사랑·소망을 결정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지위 경쟁과 자기 권리의 과시를 반복하는 집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다(1:2, 18-31; 12:12-27; 16:14).

2. 책명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첫 편지는 아니다. 바울은 이 편지 전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한다(5:9). 따라서 ‘전서’는 현재 정경에 보존된 고린도후서와 구별하는 명칭이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간 모든 편지 중 첫째라는 뜻은 아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다(1:1). 편지의 개인적 회상과 여행 계획, 디모데·아볼로·

스데바나에 대한 언급, 사도행전의 고린도·에베소 사역과의 일치는 바울 저작을 확고히 뒷받침한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오순절까지 그곳에 있겠다고 하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갈 계획을 밝힌다(16:5-9). 그러므로 제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주후 53-55년경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19장;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린도는 로마령 아가야의 수도이자 두 항구를 연결하는 상업 도시로, 부와 지위 경쟁·수사학·종교적 다원성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약 18개월 머물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역하여 교회를 세웠다(행 18:1-18). 이후 글로에의 사람들에게 분쟁 소식을 들었고, 고린도 성도들이 보낸 편지와 스테바나 일행을 통해 결혼·우상 제물·예배·은사 등의 질문을 받았다(1:11; 7:1; 8:1; 12:1; 16:17). 목적은 파당·근친상간·소송·성적 방종·우상 숭배·성찬의 차별·은사 경쟁·부활 부정을 책망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래 거룩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한 교회를 회복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한 자를 부르셔서 인간의 사랑을 폐하시며, 그리스도를 성도의 지혜·의로움·거룩함·구속함이 되게 하신다(1:18-31). 사도의 사역도 수사적 과시나 인격 숭배가 아

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청지기 직분이다(2:1-5; 3:5-9; 4:1-7). 그러므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거나 성공과 능력을 십자가보다 앞세우는 것은 복음과 충돌한다.

구원받은 몸은 주를 위한 것이며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지체다(6:12-20). 은혜는 성적 방종이나 자기 결정권의 절대화를 허용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결혼과 독신은 서로 다른 은사이며, 결혼은 열등한 영성이 아니고 독신도 더 높은 계급이 아니다(7:1-9). 현재의 환난과 지나가는 세상의 형편 속에서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부르심에 충실하되, 노예가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7:17-24).

성령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12:3-11). 한 몸에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며, 은사의 가치 기준은 황홀한 체험이나 공개적 위세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가에 있다(12:12-27; 14:1-19). 사랑이 없으면 방언·예언·지식·희생도 아무것이 아니며, 사랑은 은사를 대체하는 감상이 아니라 은사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12:31-13:1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므로 예배는 성령의 자유와 공동체적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14:26-40).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과 바다 아래서 모세에게 속하고 영적 음식과 음료를 누렸지만 우상숭배와 음행·시험·원망으로 쓰러졌다. 이는 세례와 성찬 같은 언약 표지가 불신앙과 방종을 자동으로 보호하지 않음을 교회에 경고한다(10:1-12).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고 교회는 목은 누룩을 버린 새 반죽으로 진실함과 순전함의 절기를 살아간다(5:6-8).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한 떡·한 몸을 이루고 그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새 언약의 식탁이다(10:16-17; 11:23-26).

부활은 구속사의 완성이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그에게 속한 자들도 그가 오실 때 살아나며,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드러나신다(15:20-28). 현재의 몸은 썩고 약하고 욕된 상태로 심기지만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몸의 부활은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창조와 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이며, 성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근거다(15:35-58).

7. 그리스도와 복음

고린도전서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 많은 증인과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도적 선포다(15:1-11).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를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의 의와 거룩과 구속이며, 값으로 자기 백성의 몸을 사신 주다(1:18-31; 6:19-20).

부활하신 마지막 아담은 죽음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권세를 복종시킨 뒤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신다(15:20-28, 45-49). 복음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분열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듦과 자유를 사랑으로 제한하며 가난한 지체를 존귀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

8. 읽는 방법

고린도전서를 서로 무관한 문제에 대한 규칙집으로 읽지 말고, 모든 답변이 십자가·부활·그리스도와와의 연합·교회의 덕을 세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이 가하다’,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같은 표현은 바울 자신의 절대 명령이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표어를 인용하여 교정하는 말일 수 있으므로 문맥과 반론 구조를 살펴야 한다(6:12; 7:1; 8:1, 4; 데 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지식은 사랑 없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

방언과 예언을 오늘의 특정 체험에 곧바로 동일시하거나, 은사 목록을 모든 시대에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고정표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본문의 명확한 중심은 모든 은사가 같은 성령에게서 오며 예수를 주로 높이고 공동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2:3-11; 14:12, 26-33). 15:29의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도 바울이 승인한 대리 세례 제도로 단정할 수 없다. 정확한 관행은 불분명하며, 바울의 논증은 그것을 명령하는 데 있지 않고 몸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고

든 D. 피, 『고린도전서』 15:29;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15:29).

특별 주제: 여성과 공적 예배—11장과 14장을 함께 읽기

11:5은 여성이 머리에 관한 당시의 명예 규범을 지키면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14:34-35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모든 여성의 기도·예언·발언을 절대 금하는 말로 읽으면 같은 편지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 14장의 문맥에는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와 여성에게 각각 특정 상황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이 나오므로, 문제의 발언은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의 무질서한 질문이나 권위를 뒤흔드는 발언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유력하다(11:2-16; 14:26-35;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11:5; 14:34-35).

동시에 이 본문을 오늘의 문화와 무관하다고 지워 버려서도 안 된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을 ‘주 안에서’ 확증하면서 창조 질서와 예배의 명예·질서·덕을 함께 고려한다(11:8-12; 14:33, 40).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여성의 공적 기도·예언과 교회 직분의 관계에는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서론에서는 모든 세부를 단정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여성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침묵 본문으로 학대를 덮는 일과, 사도적 예배 질서와 직분 논의를 단순히 권력 문제로만 폐기하는 일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고전 11:2-16; 14:33-35 주석).

9. 전체 구조와 흐름

1:1-9

인사와 감사를 다룬다.

1:10-4:21

파당과 세상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로 교정한다.

5:1-6:20

은행·교회 권징·소송과 몸의 거룩을 다룬다.

7장

결혼·이혼·독신과 부르심을 다룬다.

8:1-11:1

우상 제물과 자유를 사랑·이스라엘의 실패·바울의 본으로 판단한다.

11:2-34

공적 예배와 성찬의 분열을 다룬다.

12:1-14:40

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한 몸, 사랑과 질서 있는 예배를 설명한다.

15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을 다룬다.

16장

연보·여행 계획·동역자와 마지막 권면이다.

고린도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처 입은 관계가 회개와 위로
를 통해 회복되는 과정에서 참된 사도직과 새 언약의 직분을 밝힌 목
회 서신이다. 바울은 여행 계획 변경과 약해 보이는 사역 때문에 신실
성과 사도성을 의심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역의 형식을
결정하므로 약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직분의 표지
라고 변호한다. 위로·눈물·용서·거룩·화목·관대한 연보와 자기희생
적 권위가 복음 사역과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

2. 책명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와 눈
물로 쓴 ‘엄중한 편지’를 언급하므로 실제로 오간 편지의 순서에서
는 적어도 네 번째일 가능성이 크다(고전 5:9; 고후 2:3-4; 7:8-12). ‘후
서’는 현존 정경의 배열을 나타내며, 하나의 단순한 후속편보다 오랜
갈등과 방문·편지·사절의 역사를 담은 서신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
제 디모데이며,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
의 성도들이다(1:1). 개인적 고난과 여행, 디도와 연보, 고린도 교회

와의 복잡한 관계에 관한 구체적 증언은 바울 저작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뒤 드로아와 마게도냐를 거치며 디도에 게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을 들었고,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며 주후 55-56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2:12-13; 7:5-16; 8:1; 행 20:1-2; 폴 바넷, 『고린도후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고린도전서 뒤 바울은 고통스러운 방문을 했고, 심한 슬픔과 눈물로 엄중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 보냈다. 다수는 회개하고 징계를 시행했으나, 외부에서 온 경쟁 사역자들은 추천서·수사 능력·영적 체험과 유대적 자격을 자랑하며 바울의 약함과 무보수 사역, 변경된 여행 계획을 공격하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했다(2:1-11; 3:1; 7:8-12; 10:10-12; 11:4-23). 바울은 회개한 교회와의 화해를 굳히고 징계받은 자를 용서하게 하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완성하고, 거짓 사도의 기준에 맞서 십자가를 닮은 사도직을 변호하여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려 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성도를 환난에서 무조건 빼내길 보다 환난 중 위로하시고, 받은 위로로 다른 고난받는 이를 위로하게 하신다(1:3-7). 바울이 죽음의 선고 같은 고난을 겪은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1:8-11). 사도의 고난은 복음 실패나 믿음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교회를 위해 흘러가는 통로다. 교회도 고난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기도로 서로를 붙든다.

새 언약의 직분은 돌판의 문자보다 성령이 마음에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정죄보다 의와 생명을 가져오는 더 큰 영광의 직분이다(3:1-11; 롬 3:31-34; 겔 36:26-27). 이는 구약성경이나 하나님의 도덕법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죄인을 살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만 언약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뜻이다. 주께 돌아올 때 수건이 벗겨지고 성도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변화된다(3:12-18). 복음 사역자는 말씀을 혼잡하게 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 앞에 밝히 드러낸다(2:17; 4:1-6).

복음의 보배는 질그릇 같은 언약한 사람에게 담겨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인다(4:7).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 죽음의 섬김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교회에 역사한다(4:8-15). 참된 사도적 권위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기 영광을 과시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 주며, 약함 가운데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한다(10:8; 12:9-10; 13:4). 환상과 능력 자체보다 바른 복음·고난 속 인내·거룩한 성품과 섬김이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이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며,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를 인치고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을 마음에 주신다(1:18-22). 모세의 얼굴에 비친 사라질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

난 하나님의 영광이 새 언약에서 영구히 빛나고, 성령은 마음의 수건을 벗겨 자유와 변화를 주신다(3:7-18; 4:6).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5:17-19). 현재의 장막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처소와 부활 생명을 바라보므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한다(4:16-5:10).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연보는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은혜의 교제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복음이 자원하는 관대함의 근거이며, 균등은 모든 소유를 똑같이 만드는 강제가 아니라 한 지체의 풍성함이 다른 지체의 부족을 채우는 언약 공동체의 상호 돌봄이다(8:1-15; 9:6-15). 투명한 동역자와 책임 있는 관리가 헌금의 신뢰를 지킨다(8:16-24).

7. 그리스도와 복음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5:21).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약함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며, 부요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그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8:9; 13:4).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 이어서 살아 있는 자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 나신 주를 위해 살게 한다(5:14-15).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도와 교회에 화목의 말씀과 직분을 맡겨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게 하신다(5:18-20).

8. 읽는 방법

고린도후서를 성공한 지도자가 비판자에게 자기 권위를 방어하는 지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변론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자기 홍보가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세우려는 부득이한 ‘어리석은 자랑’이다(10:8; 11:1-4; 12:11-19). 그는 계시보다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고 권위를 파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한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로 재정·성·권력 남용을 감추는 지도자는 바울이 아니라 사람을 종으로 삼고 착취한 거짓 사도의 모습을 닮는다(11:13-20).

‘육체의 가시’가 질병·시력 문제·박해자·영적 공격 중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확정하지 않는다. 가시의 정체를 특정 질병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고난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보편 공식으로 만들기보다, 바울이 세 번 제거를 구했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 약함 가운데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배웠다는 중심을 붙들어야 한다(12:7-10; 폴 바넷, 『고린도후서』 12:7). ‘새로운 피조물’도 개인의 내적 변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새 창조와 화목의 질서 안에서 사람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5:14-21).

특별 주제: 고린도후서는 한 편의 서신인가

일부 비평학자는 2:14-7:4이 여행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8장과 9장이 각각 연보를 다시 소개하며, 10-13장의 날카로운 어조가 1-9장

의 화해 분위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편지를 결합한 문서라고 본다. 특히 10-13장을 2:3-4와 7:8에 언급된 ‘엄중한 편지’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널리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존 사본은 고린도후서를 한 서신으로 전하고, 어조 변화는 회개한 다수와 아직 반항하며 거짓 사도를 따르는 소수를 각각 대하는 목회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폴 바넷, 『고린도후서』 서론; 머리 J. 해리스, 『고린도후서』 서론).

2:14-7:4도 단순한 삽입이 아니라 드로아의 불안에서 마게도나의 위로로 넘어가는 사이에 바울이 자신의 새 언약 사역이 왜 고난과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큰 괄호다. 8장과 9장의 반복은 서로 다른 교회에 보낸 조각의 증거라기보다 연보의 모범·준비·신학을 단계적으로 권면하는 수사로 읽을 수 있다. 모든 편집 가능성을 영감의 부정과 동일시할 필요는 없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정경의 자기 형태를 여러 가상 문서로 해체하기보다 한 서신의 복잡한 목회적 흐름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1

인사와 환난 중 위로를 다룬다.

1:12-2:13

여행 계획 변경과 눈물의 편지·용서에 관한 개인적 변론이다.

2:14-7:4

그리스도의 향기, 새 언약의 영광, 질그릇,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화목의 직분과 거룩을 통해 사도 사역을 설명한다.

7:5-9:15

디도가 전한 회개 소식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를 다룬다.

10:1-13:13

바울의 약함을 떨치한 경쟁자와 거짓 사도를 반박하고, 고난과 환상·육체의 가시를 통한 어리석은 자랑, 임박한 방문과 자기 점검 및 마지막 축도로 끝맺는다.

갈라디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갈라디아서는 여러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논쟁적 목회서신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이 낳는 자유와 성령의 삶을 선포한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 교사들에 맞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서신의 격렬한 어조는 개인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하나 됨이 걸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2. 책명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2). ‘갈라디아’는 본래 소아시아 중북부에 정착한 갈리아계 민족의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전자를 따르면 북갈라디아설, 후자를 따르면 바울이 첫 선교여행에서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더베를 포함하는 남갈라디아설이 된다. 정확한 수신 지역은 논쟁되지만 서신의 복음적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명시하고 그의 회심, 예루살렘 방문, 베드로와의 만남과 안디옥 사건을 일인칭으로 증언한다. 바울 저작은

문체와 신학, 초기 교회의 증언에서 확고하게 인정된다. 남갈라디아 설을 따르면 첫 선교여행 뒤 예루살렘 회의 전인 주후 48-49년경에 기록된 초기 서신일 수 있고, 북갈라디아설을 따르면 주후 5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방문과 사도행전의 어느 방문을 연결하는지에 따라서도 연대가 달라지므로 확정하기 어렵다(최갑종, 『갈라디아서』;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 다른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방인 신자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온전한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사도적 권위를 약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구약 자체를 공격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의롭다 하심과 언약 백성의 필수 조건으로 덧붙인 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음을 밝히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음을 확증하려 한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갈라디아서의 중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다. 죄인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2:16). 이는 믿음이 새로운 공로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빈손으로 받는 수단이라는 뜻이

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식탁 교제가 부차적인 예절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의와 지위를 받았다는 칭의의 진리를 실제 공동체 생활에서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대립하는 악한 것이 아니다. 죄를 드러내고 범법 때문에 더해져 약속된 씨가 오기까지 백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만, 생명을 주거나 의롭게 할 수는 없었다(3:19-25). 그리스도가 오신 뒤 율법을 언약 백성의 경계와 칭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구속사의 진행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성령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낳고, 성도는 서로의 짐을 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5:6, 13-26; 6:2).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미리 전하셨다(3:8). 율법은 430년 뒤에 주어졌으므로 먼저 세우신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며,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둔다(3:16-18).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민족·사회적 신분·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브라함의 후손과 약속의 상속자다(3:26-29). 때가 차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4:4-7). 언약 백성의 표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으로 사는 새 창조다.

7. 그리스도와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내어 주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분이다(1:4; 3:13).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데 있다(3:14).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 이상 자기 의로 사는 옛 자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2:20). 그러므로 십자가는 할레나 종교적 성취를 자랑할 모든 근거를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만 중요하게 만든다(6:14-15).

8. 읽는 방법

갈라디아서를 율법과 구약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반유대교 문서로 읽지 말아야 한다. 바울의 논쟁 대상은 유대 민족 자체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할레와 율법의 행위를 칭의와 언약 소속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복음을 왜곡한 가르침이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말도 하나님의 도덕적 뜻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죄와 육체의 자랑에서 해방되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긴다는 뜻이다. 하갈과 사라의 ‘비유’도 임의적인 풍유 해석의 허가로 사용하지 말고, 약속과 육체라는 창세기의 실제 구속사적 대조를 바울이 당시 논쟁에 적용한 사도적 해석으로 읽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0

인사 직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들을 책망한다.

1:11-2:21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경위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통해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한다.

3:1-4:31

성령을 받은 경험, 아브라함의 믿음과 약속, 율법의 저주와 임시적 역할, 아들의 신분과 상속,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논증한다.

5:1-6:10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키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한다.

6:11-18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새 창조를 선포하는 친필 결론이다.

에베소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광대한 계획과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의 삶을 선포한다. 1-3장은 선택·구속·성령의 인치심, 은혜로 얻는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고, 4-6장은 하나 됨과 거룩, 사랑과 지혜, 가정과 일터, 영적 싸움에서 그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르친다. 교회론이 풍성하지만 단순한 교리 개요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끄는 목회적 편지다(길성남,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책명

‘에베소서’는 전통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과 주술 문화, 상업과 행정으로 유명했으며 바울이 약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곳이다(행 19-20장). 일부 중요한 사본의 1장 1절에는 ‘에베소에’라는 말이 빠져 있고 편지의 내용도 여러 교회에 적용될 만큼 일반적이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 돌려 읽은 회람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에베소와의 전통적 관계나 서신의 정경적 권위를 약화하지 않는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밝히고,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부른다(1:1; 3:1; 4:1; 6:20). 문체와 어휘, 골로새서와의 관계를 근거로 후대 제자의 위명 저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서신의 자기 증언과 초기 교회의 일관된 수용, 바울 신학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전통적으로 로마 투옥 중인 주후 60-62년경에 기록되어 두기고가 전달했다고 보며(6:21-22),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고, 우상숭배와 주술, 성적 타락과 제국의 권세가 강한 환경 속에 살았다. 바울은 특정 위기 하나를 길게 논박하기보다, 독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 복과 교회의 정체성을 깊이 알도록 기도한다. 목적은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사회적 적대를 넘어 성령이 이루신 하나 됨을 지키며, 옛 사람의 삶을 벗고 사랑과 빛과 지혜 가운데 행하며, 악한 영적 권세에 맞서 굳게 서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에베소서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다. 성부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시

고, 성자는 피로 구속과 죄 사함을 이루시며, 성령은 약속된 기업의 보증으로 성도를 인치신다(1:3-14). 구원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으킨 가능성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행위를 자랑할 수 없지만, 은혜는 선한 일을 무용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걷게 한다(2:1-10).

교회의 하나 됨은 인간의 타협이나 조직 통합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이루신 선물이다. 한 몸과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토대 위에서 성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4:1-6). 은사는 개인의 지위 과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다. 성령 충만도 비상한 체험만을 뜻하지 않고 말씀과 찬송, 감사와 상호 존중으로 공동체 안에 열매 맺는다(5:18-21).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신다(1:9-10). 언약의 약속에서 멀리 있던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함께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2:11-19).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자라 간다(2:20-22). 이 한 몸을 통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며, 교회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현재 역사 속에서 드러낸다(3:10).

7. 그리스도와 복음

에베소서에서 십자가는 개인의 죄 사함뿐 아니라 원수 된 집단을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2:14-18). 부활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앉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자기 몸으로 생명과 은사를 공급하신다(1:20-23; 4:7-16).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적대를 간직한 채 한 조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을 받아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고 사랑으로 몸을 세우는 화해의 공동체를 창조한다.

8. 읽는 방법

에베소서를 읽을 때 1-3장의 교리와 4-6장의 실천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4장은 은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청한다. 예정은 운명론적 논쟁이나 우월감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과 사랑으로 살게 하는 은혜의 교리로 읽어야 한다. 가정 규례는 남편·부모·상전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주 그리스도 아래 두며,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사랑·희생·공정·책임을 요구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영적 전쟁도 사람을 원수로 삼거나 악한 영을 추축

하는 데 몰두하지 말고 진리·의·평안의 복음·믿음·구원·말씀과 모든 기도로 굳게 서는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4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을 찬양한다.

1:15-23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과 능력을 알도록 기도한다.

2장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은혜로 살아나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한 새 사람과 한 성전을 이루었음을 밝힌다.

3장

감추어졌던 비밀과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다룬다.

4:1-16

성령이 주신 하나 됨과 다양한 은사로 몸을 세우는 일을 다룬다.

4:17-5:21

옛 사람을 벗고 사랑·빛·지혜 가운데 행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르친다.

5:22-6:9

가정과 일터의 관계를 주께 대한 섬김 아래 두고를 다룬다.

6:10-24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기도, 마지막 인사로 끝난다.

빌립보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교회에 보낸 감사와 권면의 편지다. 흔히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지만 그 기쁨은 편안한 환경이나 낙관적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투옥과 박해, 죽음의 가능성, 교회 안의 긴장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성도들이 그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에서 솟아나는 복음의 기쁨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따뜻한 관계를 바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겸손한 일치, 고난 속의 인내와 자족을 가르친다.

2. 책명

‘빌립보서’는 마게도냐의 도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1). 빌립보는 마게도냐 왕 빌립 2세의 이름을 따라 불렸고, 바울 시대에는 로마 식민지로서 시민권과 로마적 정체성을 자랑하는 도시였다(행 16:12). 바울은 이 배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한다(1:27; 3:20).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며 바울이 일인칭으로 자신의 투옥과 재판 전망,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전한다. 바

을 저작은 초대교회의 증언과 서신 자체에 의해 강하게 뒷받침되며 큰 이견이 없다. 편지를 여러 개의 짧은 편지로 나누어 후대에 결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감사·권면·여행 계획과 인사가 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통일성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전통적으로 로마 투옥 중인 주후 60-62년경에 기록했다고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가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 등으로 교회를 세웠다(행 16장).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했고, 바울이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필요한 것을 전달했다(4:10-18). 바울은 이 선물에 감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며, 자기 재판과 디모테의 방문 계획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다. 또한 외부의 박해와 잘못된 교훈에 맞서 굳게 서고, 자기중심적 다툼과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갈등을 넘어 한마음으로 복음에 협력하도록 권면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빌립보서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뿌리를 둔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이 시위대와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고, 경쟁적인 동기로 전하는 이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뻐한다(1:12-18). 그는 고난을 복음의 실패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받은 은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한다(1:29-30). 그렇다고 고

통 자체를 미화하지 않으며, 죽음의 위험과 에바브로디도의 병, 동역자들의 염려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한다.

교회의 일치는 획일성이나 갈등 은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겸손에서 나온다(2:1-5).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행위로 칭의를 얻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가 불평과 다툼을 버리고 순종으로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말이며, 그들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2:12-13). 바울의 자족도 인간적인 자기충족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훈련된 만족이다(4:11-13).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바울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적 경력을 의의 근거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는다(3:4-9). 참된 언약 백성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다(3:3).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던 도시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현재의 충성 기준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 게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낮은 몸을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3:20-21).

7. 그리스도와 복음

빌립보서 2:6-11은 그리스도의 길을 복음과 교회 생활의 중심에 놓는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 계시면서 자기 권리를 움켜쥐어 이용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며, 십자가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단순한 겸손의 예화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건이며, 동시에 자기 과시와 경쟁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의 삶을 만들어 낸다. 바울에게 가장 큰 유익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의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3:8-11).

8. 읽는 방법

빌립보서를 읽을 때 ‘항상 기뻐하라’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긍정적 사고나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표어로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기쁨은 고난 중에도 주와 복음 안에 서는 태도이며, 4장 13절은 풍부와 궁핍 어느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힘을 주신다는 문맥에 있다. 2장 6-11절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주권을 선포하는 본문인 동시에 교회의 일치를 요구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 동역은 헌금을 복을 사는 거래로 만들지 않고 복음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로 이해하게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1

인사와 감사, 사랑과 분별이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다.

1:12-30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을 밝히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복음에 합당하게 굳게 서라고 권한다.

2:1-30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교회의 겸손과 일치의 토대로 제시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태도의 실제 사례로 소개한다.

3:1-4:1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부활의 목표를 향해 달리며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라고 가르친다.

4:2-23

갈등의 화해, 기도와 생각의 훈련, 자족과 후원에 대한 감사, 마지막 인사를 담는다.

골로새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을 선포하고 그분과 연합한 교회의 새 삶을 가르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그들의 믿음과 사랑,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르침에 관해 들었다. 이 편지는 잘못된 사상을 논박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신자가 그분 안에서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를 밝힘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끈다.

2. 책명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의 도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다(1:2). 골로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가까이에 있었으며, 한때 상업적으로 번성했으나 바울 시대에는 중요성이 줄어든 도시였다. 편지는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와도 교환하여 읽도록 요청되었으므로(4:16),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근 교회가 함께 들어야 할 사도적 교훈이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바울의 친필 인사로 끝나며, 두기고·오네시모·아리스다고·마가·에바브라·누가·데마 등 다른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동역자들과 긴밀히 연결된다(1:1; 4:7-18).

문체와 신학의 차이를 이유로 바울 저작을 부정하는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서신 자체와 초기 교회의 증언, 빌레몬서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기록 장소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 연대는 주후 60-62년경으로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수감설도 제안되지만 확정하기 어렵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며, 구성원 다수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6-8, 21, 27; 2:13). 에바브라는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알리는 동시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음식과 절기 규정, 금욕, 천사 숭배, 환상과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전했다. 이 요소들을 하나의 완성된 종교 체계로 재구성하여 ‘골로새 이단’의 정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모든 가르침을 물리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감사하며 성숙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골로새서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1:15-17). 그는 교회의 머리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1:18-19; 2:9). ‘먼저 나

신 분'은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상속자와 주권자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사나 철학이나 종교 규례가 그리스도를 보충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옛 질서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졌다(2:11-13, 20; 3:1-4). 이 연합은 세상에서도 피하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음행·탐심·분노·거짓을 벗고 공홀·겸손·용서·사랑을 입는 공동체적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예배와 가정과 일터, 외부인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새로워진다. 가정 규례도 당시의 지배 질서를 무조건 신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주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고 사랑과 공정과 책임을 요구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1:13-14). 출애굽과 기업 의 언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새 백성에게 적용되며, 육체의 할례가 없던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로 표현되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2:11-13). 음식과 절기와 안식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다(2:16-17). 구속사의 중심은 종교적 경계 표지를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새 인류를 입는 데 있다(3:10-11).

7. 그리스도와 복음

골로새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가장 장엄하게 결합한다. 만물을 창조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의 몸으로 죽으셔서 원수 되었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 해제하여 이기셨다(1:20-22; 2:14-15). 그러므로 신자는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 충만이나 보호를 찾아 헤멜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며 성도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2:9-10). 복음의 삶은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보태는 일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을 일상의 사랑과 거룩으로 드러내는 것이다(3:1-4).

8. 읽는 방법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배후의 거짓 가르침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편지보다 가설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직접 지적하는 요소들을 살피되, 핵심 논지는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며 인간 전통·규례·신비 체험·영적 존재를 덧붙이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임을 보아야 한다. 또한 ‘위의 것을 찾으라’를 땅의 책임을 버리는 도피로 읽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정과 노동과 말과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문맥에서 이해해야 한다. 에베소서와 공통 표현을 비교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골로새서의 고유한 상황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이라는 중심을 흐리지 않아야 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4

인사와 감사,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합당한 삶에서 자라기를 구하는 기도다.

1:15-23

만물과 교회와 화해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1:24-2:5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고난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설명한다.

2:6-23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중심 권면과 함께 인간 전통, 할례 요구, 음식·절기 판단, 천사 숭배와 금욕을 경고한다.

3:1-4:6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의 삶, 공동체의 덕목, 가정과 일터의 관계, 기도와 외부인을 향한 지혜를 가르친다.

4:7-18

동역자들의 소식과 인사로 끝난다.

데살로니가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이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로, 짧은 선교 사역 뒤 박해 속에 남겨진 신생 교회를 격려하고 재림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권하는 목회 서신이다.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가 편지 전체를 이끌며, 참된 회심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에서 오실 아들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난다(1:3, 9-10). 종말론은 날짜 계산이 아니라 현재의 성결·형제 사랑·성실한 노동·깨어 있음과 슬픔 속의 위로를 낳는다.

2. 책명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1:1).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이자 카산드로스의 아내인 테살로니케의 이름에서 유래한 도시명이다. ‘전서’는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며, 두 편지는 재림에 관한 서로 다른 질문과 오해를 함께 교정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바울·실루아노·디모데이며 편지의 ‘우리’는 세 사람의 공동 선교와 관심을 반영하지만 사도적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다(1:1; 2:18; 3:1-6). 사도행전 17-18장의 이동 경로와 편지의 빌립보

·아텐·디모데 보고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므로 바울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던 때의 고린도 체류 중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 주후 50-51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행 17:1-18:5, 12;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의 수도이며 로마의 주요 도로인 에그나티아 길에 놓인 항구·상업 도시였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박해받은 뒤 이곳에서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소동과 정치적 고발 때문에 급히 떠났다(행 17:1-10). 독자 대다수는 우상을 버리고 회심한 이방인으로 보이며, 동족에게 박해받고 성 윤리와 노동·공동체 질서, 재림 전에 죽은 성도의 운명을 걱정했다(1:9; 2:14; 4:3-18). 바울은 디모데의 좋은 보고에 감사하고 자신의 갑작스러운 이탈과 동기를 변호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재림 때 흠 없이 서게 하려 했다(2:1-3:13).

5. 핵심 주제와 신학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며, 선택받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다른 교회의 본이 된다(1:4-8). 회심은 우상을 버리는 부정적 전환과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아들을 기다리는 긍정적 전환을 함께 포함한다(1:9-10). 복음 사역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아첨·탐욕·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검증받은 청지기로서 말씀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나눈다(2:3-12).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이며, 특별히 몸과 성을 정욕과 착취가 아닌 거룩과 존귀함으로 다스리는 것이다(4:3-8). 성 윤리는 개인 취향이 아니라 형제를 해치지 않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약적 순종이다. 형제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 배웠으나 더욱 풍성해져야 하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는 삶은 외부인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공동체에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게 한다(4:9-12). 노동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일상의 일부다.

성도의 견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존과 실제적 권면을 함께 포함한다. 바울은 성도에게 깨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흥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셨다고 확증한다(5:4-11).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영·혼·몸을 재림 때 흠 없게 보존하시는 분은 부르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이루신다(5:23-24).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데살로니가 성도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새 언약 공동체다(2:12).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장차 올 진노에서 건지며, 그의 재림 때 죽은 성도와 살아 있는 성도를 함께 모으신다(1:10; 4:14-17). 주의 날은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과 구원의 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서 완성되는 사건이며,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심판이지만 빛의 자녀에게는 함께 주와 사는 구원의 완성이다(5:1-10). 교회는 이미 빛과 낮에 속해 장차 올 나라의 거룩과 사랑을 현재에 살아낸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이며 장차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기 백성을 진노에서 건지시는 주다(1:10).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깨어 있든 잠들었든 자기와 함께 살게 하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죽은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연합을 보증한다(4:14; 5:9-10). 재림 때 주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며 모든 성도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4:16-17). 복음은 고난과 죽음을 즉시 없애지 않지만, 부활과 재림의 확실한 미래로 교회를 위로하고 오늘 서로를 세우게 한다.

8. 읽는 방법

재림 본문을 날짜·시기·정치 사건을 계산하는 암호로 읽지 말아야 한다. 주의 날은 밤의 도둑처럼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짓 안심과 종말 공포를 모두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 믿음·사랑·소망으로 살아야 한다(5:1-11).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도 슬픔과 악을 부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선을 붙들라는 종말론적 생활이다(5:14-22).

2:14-16의 유대인에 대한 책망을 모든 시대 모든 유대 민족에 대한 정죄나 반유대주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과 초기 교회의 많은 성도도 유대인이며, 본문은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 특정 박해자들의 행위를 예언자적 언어로 심판한다(2:14-16; 롬 9:1-5; 11:1-2).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도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며, 모든 것을 시험하여 좋은 것을 붙들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라는 명령과 함께 읽어야 한다(5:19-22).

특별 주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과 휴거

4:13-18의 목적은 재림 시간표를 새로 가르치기보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가 재림의 영광에서 뒤처질까 염려한 교회를 위로하는 데 있다. 주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 뒤, 살아 있는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장면은 은밀하거나 보이지 않는 탈출이 아니라 왕의 공개적 도착·부활·백성의 환영을 묘사한다(4:15-18;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전 4:15-17).

‘영접하다’는 말은 도시의 대표들이 방문하는 왕을 맞으러 나가 그와 함께 들어오는 장면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교회가 땅을 영구히 버리고 하늘로 떠나는 것보다 재림하시는 왕을 환영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유력하다(마 25:6; 행 28:15;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살전 4:17). 본문은 환난 전 비밀 휴거와 재림을 두 사건으로 분리한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견해 차이가 있어도 중심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 모든 성도의 연합, 주의 공개적 재림과 ‘항상 주와 함께 있

음'이며,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전 15:51-52; 살전 4:18).

9. 전체 구조와 흐름

1:1

인사말이다.

1:2-10

믿음·사랑·소망과 우상에서 돌아선 회심을 감사한다.

2:1-12

탐욕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섬긴 선 교사의 행위를 변호한다.

2:13-16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의 인내를 감사한다.

2:17-3:13

재방문의 열망, 디모데의 파송과 보고, 사랑과 거룩을 위한 기도다.

4:1-5:24

성적 순결·형제 사랑·조용한 노동, 죽은 성도의 부활, 주의 날과 공동체 의무를 권한다.

5:25-28

기도·문안·공개 낭독과 은혜의 축복으로 마친다.

데살로니가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데살로니가후서는 박해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교회를 격려하고,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미혹을 교정하며, 재림을 핑계로 무질서하게 사는 자를 바로잡는 목회 서신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배교와 불법의 사람, 사도적 전통과 성도의 견인, 책임 있는 노동을 함께 다룬다. 종말의 비밀을 호기심으로 풀기보다 주 예수께서 나타나 모든 불법을 멸하시고 성도 안에서 영광받으실 것을 믿으며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게 한다.

2. 책명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1:1). ‘후서’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이후에 기록되어 그 편지의 재림 교훈을 보충하고 새로 생긴 오해와 무질서를 교정한다는 뜻이다. 두 서신은 함께 읽을 때 죽은 성도의 부활, 주의 날, 깨어 있는 삶과 노동의 균형을 보여 준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발신자는 바울·실루아노·디모데로 데살로니가전서와 동일하다(1:1). 일부 비평가는 어조와 종말 사건의 순서, 전서와 비슷한 표현을 이유로 후대 저작을 주장하지만, 같은 상황에 짧은 간격으로 보낸

편지가 공통 어휘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서로 다른 문제에 따라 강조도 달라질 수 있다. 바울은 친필 문안이 모든 편지의 표라고 밝혀 위조 편지를 경계하므로, 후대 위명 저작설은 편지 자체의 진실성 주장과 충돌한다(2:2; 3:17;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전서 뒤 수개월 안인 주후 50-52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랐고 인내의 본이 되었다(1:3-4). 그러나 예언·말·바울의 편지를 사칭한 주장으로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믿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일부는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며 공동체의 부담이 되었다(2:1-3; 3:6-12). 목적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신원하고 안식을 주실 것을 확증하며, 재림 전에 나타날 배교와 불법에 관한 기존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사도적 전통에 굳게 서서 조용히 일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성도의 환난 자체가 구원의 공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증명한다(1:4-5).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으로 갚고 고난받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때 안식을 주신다(1:6-10). 최후 심판은 사적 복수의 정당화가 아니라 박해받는 교회가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소망이다. 영원한 멸망은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는 실제적이고 엄중한 심판이며, 그날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서 영광받으신다.

하나님은 성도를 처음부터 구원을 받도록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2:13-14). 그러므로 성도는 가르침 받은 사도적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하지만, 견인의 궁극적 근거는 선한 소망을 은혜로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며 굳게 하시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주께 있다(2:15-17; 3:3-5).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은 미혹에 대한分別과 말씀을 붙드는 책임을 없애지 않고 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림 소망은 일상을 버리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일하고 선을 행하게 한다. 일할 수 있으면서도 일하기 싫어 공동체에 기대고 남의 일에 간섭한 자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은 가난·질병·실업으로 일하지 못하는 약자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3:6-12). 교회는 무질서를 바로잡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형제처럼 권면해야 한다(3:14-15). 노동과 돌봄, 권징과 형제애가 함께 간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와 날은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불꽃 가운데 나타나 악을 심판하고 성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로 성취된다(1:7-10; 사 2:10-21; 66:15-16). 불법의 세력은 이미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래 있으며, 주 예수께서 입의 기운과 강림의 광채로 불법의 사람을 멸하신다(2:7-8). 구속사는 악의 무제한적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억제와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향한다. 교회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언약 백성으로 현재의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굳게 선다(2:13-17).

7. 그리스도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타나 불법과 박해를 공의로 심판하고 성도에게 안식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다(1:7-10). 그는 입의 기운과 강림의 광채로 불법의 사람을 멸하시므로 악의 마지막 발악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를 이길 수 없다(2:8). 하나님은 복음으로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도를 사랑하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며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신다(2:13-17). 복음은 종말 공포를 조장하지 않고 성도를 미혹에서 지켜 인내·기도·노동과 선행으로 주를 기다리게 한다.

8. 읽는 방법

2장을 현대 정치인·종교 지도자·기술과 일대일로 대응시키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법의 사람을 새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보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이전에 받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한다(2:1-5). 사탄의 표적과 거짓 기적은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으며, 멸망하는 자의 근본 문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데 있다(2:9-12). 분별의 기준은 놀라운 현상보다 사도적 복음과 진리 사랑이다.

3:10을 복지·구제·장애 지원을 거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정죄하는 구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일할 능력과 기회가 있는데도 종말 기대나 무질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를 다룬다(3:6-12;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3:10-12). 바울 자신은 복음 사역자의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본을 보이려고 밤낮 일했다. 교회는 게으름을 권면하는 동시에 참으로 궁핍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3:7-9, 13-15).

특별 주제: 불법의 사람과 막는 자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고 사탄의 능력으로 거짓 표적을 행하다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멸망할 최종적 대적이다(2:3-10). 이를 과거의 특정 황제나 제도, 반복되는 적그리스도적 권력, 재림 직전의 개인적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최종적 인물을 바라보면서도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한다고 말하므로, 역사 속 반복되는 전조와 마지막 집중을 함께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2:3-8;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살후 2:3-10).

‘막는 것’과 ‘막는 자’에는 로마 제국과 법질서, 복음 선포, 성령, 천사적 권세 또는 하나님의 주권적 억제 등 여러 견해가 제안되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구두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2:5-7; 찰스 A. 워너메이커, 『데살로니가전후서』). 분명한 것은 불법이 하나님의 정한 때 이전에 완전히 드러날 수 없고, 제거되는 억제력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

지 않으며, 마지막 승리는 불법의 정체를 알아맞힌 성도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점이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

인사말이다.

1:3-12

교회의 믿음·사랑·인내를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근거로 격려하고 기도한다.

2:1-12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미혹을 반박하며 배교, 막는 자와 불법의 사람의 발흥과 몰락을 설명한다.

2:13-17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 복음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말과 편지로 받은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권한다.

3:1-5

말씀의 전파와 악한 자에게서의 보호를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3:6-16

무질서와 게으름을 책망하고 조용히 일하며 선을 행하라 권한다.

3:17-18

바울의 친필 표와 은혜의 축복이다.

디모데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며, 바울이 동역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훈을 막고 하나님의 집을 바르게 섬기도록 보낸 사도적 편지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교회가 공개적으로 듣고 지도자를 인정하며 바른 가르침과 질서를 따르도록 쓰였다는 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 서신은 단순한 교회 행정 지침서가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교리·예배·지도력·관계·재물 사용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2. 책명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첫째 편지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선교 여행과 여러 교회의 사역에 참여했다(행 16:1-3). 바울은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르며 에베소에 남겨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도록 맡겼다(1:2-3). ‘전서’라는 명칭은 현재 정경의 배열을 가리키며 반드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 쓴 모든 편지라는 뜻은 아니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밝히고 디모데와 공유한 인물·사건·사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어휘와 교회 조직, 거짓

교훈의 형태가 후대에 속한다고 보아 바울 저작을 부정하지만, 목회 상황과 대필·동역의 가능성, 바울의 생애 말기라는 배경,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윌리엄 바운스, 『목회서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이 석방되어 마게도냐로 이동한 기간, 대략 주후 62-65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에 대한 헛된 변론, 금욕적 혼인·음식 금지와 같은 거짓 교훈을 막게 했다(1:3-7; 4:1-5; 6:3-5). 이 교사들의 사상을 완성된 영지주의 체계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벗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다. 바울의 목적은 디모데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공예배와 지도자 선출, 다양한 연령과 형편의 성도를 돌보는 일을 정돈하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살게 하는 데 있다(3:14-15).

5. 핵심 주제와 신학

디모데전서에서 바른 교훈은 지적 정확성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목표로 한다(1:5). 율법은 선하지만 의인을 자기 의로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불법과 죄를 드러내며 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바울 자신은 박해자였으나 긍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본이 되었다. 교회의 교훈과 권징은 이런 은혜를 떠난 정죄나 논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다(3:15).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성품, 절제, 가정의 신실함, 가르칠 능력과 검증된 믿음을 강조한다. 이는 직분자가 완전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신뢰성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과부와 장로와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교훈도 교회가 가족적 책임과 공적 돌봄, 공정한 권징, 관대한 선행을 함께 실천해야 함을 보여 준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으로 자신을 주셨기에 교회는 왕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부류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기를 구한다(2:1-7). 교회는 민족적 경계나 비밀 지식을 가진 소수 집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새 언약 공동체다. 이 공동체는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도에게 맡겨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 보존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디모데전서는 복음의 중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신실한 말씀으로 요약한다(1:15). 바울의

구원은 가장 완고한 죄인도 그리스도의 공휼 밖에 있지 않으며, 사역자의 권위가 자기 의가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에 기초함을 보여 준다. 3장 16절의 고백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인정 받으시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어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교회 경건의 비밀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교회 질서는 복음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성육신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삶의 형태다.

8. 읽는 방법

디모데전서를 현대 목회자의 직무 규정집으로만 읽거나 디모데의 사도적 대리 권위를 오늘날 한 지도자에게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명령은 에베소의 구체적 거짓 교훈과 교회 상황 속에서 먼저 이해하고, 다른 신약 본문과 함께 오늘의 원리를 분별해야 한다. 특히 2장의 여성 관련 본문은 당시 거짓 교훈의 영향만으로 모두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문맥과 성경 전체의 남녀 공동 사역을 무시한 채 여성의 모든 배움과 봉사를 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창조 질서에 근거한 공적 가르침과 직분의 원리를 존중하면서도 여성에게 ‘배우라’고 한 명령, 경건과 선행의 소명, 성경에 나타난 여성 동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돈 사랑과 자족에 관한 말씀도 가난을 미화하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거나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경계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장

다른 교훈을 금하고 율법의 바른 용도와 바울에게 베푸신 긍휼을 설명하며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맡긴다.

2장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공예배에서 남녀가 가져야 할 경건한 태도를 다룬다.

3장

감독과 집사의 자격,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원리와 경건의 비밀을 제시한다.

4장

혼인과 음식을 금하는 가르침을 경고하고, 디모데가 말씀과 경건의 훈련과 은사를 통해 본이 되라고 권한다.

5장

연령별 목회 관계, 참 과부의 돌봄, 장로의 존중과 권장을 다룬다.

6장

종과 상전, 거짓 교사와 돈 사랑, 자족, 부자들의 선행, 맡겨진 복음을 지키라는 권면으로 끝난다.

디모데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가운데 두 번째이자 바울의 마지막 정경 서신으로, 죽음을 앞둔 사도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복음과 사역을 충성되게 이어가라고 남긴 유언적 목회 서신이다. 개인적 그리움과 동역자들의 소식, 배신과 외로움이 생생하지만 중심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이 맡기신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다. 바울은 매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며, 신실하신 주께서 자기 사람을 알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소망으로 디모데를 굳게 한다(1:12-14; 2:9, 19).

2. 책명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에게서 성경과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행 16:1-3; 딤후 1:5; 3:15). ‘후서’는 가치의 우열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와 구별하는 명칭이며 바울 생애와 사역의 마지막 국면을 반영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밝힌다(1:1). 일부 비평가는 목회

서신의 어휘·교회 질서·거짓 교사 묘사가 후대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지만, 개인 이름과 여행 물품·겨울·재판·동역자의 이동에 관한 구체성은 단순한 위명 문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도행전 마지막 투옥 뒤 석방되어 다시 사역하다 네로 치하에서 두 번째로 체포되었다는 전통적 재구성이 편지의 정황과 잘 맞는다(1:15-17; 4:6-18;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로마의 더 엄한 투옥 중 순교 직전인 주후 64-67년경 기록한 것으로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디모데는 에베소와 주변 교회를 섬기면서 거짓 교훈, 논쟁과 배교, 사역의 부담과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고, 말세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진리를 대적했다(2:16-18; 3:1-9). 바울은 아시아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첫 변론 때 아무도 곁에 서지 않은 상황에서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속히 오기를 원했다(1:15; 4:9-16). 목적은 두려움과 수치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과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며,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고 성경으로 교회를 가르쳐 끝까지 직무를 완수하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므로, 디모데는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으키고 복음과 갇힌 사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1:6-8).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의 목적과 영원 전 은혜에 따라 구원하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죽음의 폐지와 생명의 드러남에 근거한다(1:9-10). 사역의 담대함은 타고난 성격이나 성공 경험보다 맡기신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1:12-14).

복음 전수는 사도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되어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는 이들에게 맡기는 세대 간 사명이다(2:1-2). 좋은 군사·경기자·농부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역자는 말다툼과 무지한 논쟁을 피하고 온유하게 반대자를 바로잡아야 한다(2:3-7, 14-26). 교회의 견고한 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두 인으로 서 있다(2:19). 은혜의 보존은 거룩한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책망·바르게 함·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시킨다(3:15-17).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이 인간의 종교적 경험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졌다는 뜻이다. 직접 문맥은 디모데가 어려서 안 구약성경을 가리키지만, 사도적 복음과 신약의 정경 형성 안에서 모든 정경의 영감과 충분성을 확증한다(벧후 3:15-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성령은 말씀과 경쟁하는 새 계시가 아니라 영감된 말씀을 통해 교회를 구원과 성숙으로 이끄신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며, 바울이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다(2:8-10).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건디는 자는 그와 함께 살고 왕 노릇하며, 우리가 미쁨이 없어도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 신실하시다(2:11-13). 말세는 먼 미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거짓 경건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말씀에 거해야 하는 현재의 시대다(3:1-13). 구속사의 끝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심을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4:8).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구주이며,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왕이다(1:9-10; 2:8). 그는 바울이 맡긴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킬 능력이 있고, 자기 백성을 아시며, 부인하는 자를 심판하시면서도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1:12; 2:12-13, 19). 바울의 첫 변론 때 모두가 떠났어도 주께서 곁에 서서 능력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으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4:16-18).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약속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고 죽음 너머의 생명과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다.

8. 읽는 방법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준비 없이 아무 때나 타인을 압박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라는 허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문맥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경계·권면하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에도 사역자가 자신의 직무를 꾸준히 수행하라는 명령이다(4:1-5).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표현도 임의의 영적 암호를 찾거나 성경을 시대별로 해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다루라는 뜻이다(2:15;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담후 2:15).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말을 자기 의와 영적 영웅주의로 읽지 말아야 한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자신을 지키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마지막에도 주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을 고백한다(1:8-14; 4:6-8, 17-18). 고난을 좋은 사역자의 자격으로 낭만화하거나 학대받는 사람에게 위험한 자리에 남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바울도 박해자를 경계하고 디모데에게 해를 끼친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한다(3:11; 4:14-15).

9. 전체 구조와 흐름

1:1-7

인사와 로이스·유니게에게서 이어진 믿음 및 은사를 다시 불일 뜻 일으키라는 권면이다.

1:8-18

복음과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며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기린다.

2:1-26

군사·경기자·농부·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과 깨끗한 그릇의 비유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전수하며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고 한다.

3:1-17

말세의 거짓 경건을 경고하고 바울의 삶과 박해를 본받아 영감된 성경에 거하라 한다.

4:1-8

말씀 선포와 직무 완수, 바울의 선한 싸움과 의의 면류관을 다룬다.

4:9-22

마지막 부탁·재판·동역자 문안과 주의 구원을 기록한다.

디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디도서는 디모데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으로 불리며,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 둔 동역자 디도에게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보낸 사도적 편지다. 개인에게 보낸 짧은 편지이지만 장로 임명, 거짓 교훈의 책망, 여러 연령과 사회적 형편의 성도 교육, 선한 행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공적 성격을 가진다. 바른 교훈과 선한 삶을 분리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교회의 질서와 일상의 경건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 준다.

2. 책명

‘디도서’는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에서 왔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으며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의 대표적 사례였고,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와 연보 사역을 맡길 만큼 신뢰받는 동역자였다(갈 2:1-3; 고후 7-8장). 바울은 그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라 부르고, 남은 일을 바로잡으며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그레데에 남겨 두었다(1:4-5).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저자로 밝힌다(1:1). 일부 비평가들은 목회서신의 어휘와 교회 조직을 후대의 것으로 보아 바울 저작을 부정하지만, 서신의 개인적 세부와 바울 사

역의 연속성,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바울 저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개론』). 사도행전 28장 이후 바울이 석방되어 그레데에서 사역한 뒤 디도를 남겨 두고, 니고볼리에서 저술을 보내려 계획하던 주후 62-65년경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1:5; 3:12).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그레데는 지중해의 큰 섬으로 여러 도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아직 지도 체계와 교훈이 충분히 정돈되지 않았다. 할레파에 속한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의 명령을 가르치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더러운 이익을 구했다(1:10-16). 바울이 인용한 그레데 시인의 혹독한 평가는 모든 그레데인을 인종적으로 비하하려는 말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거짓과 탐욕이 지역 사회의 악한 평판을 그대로 드러냈음을 책망하는 논쟁적 인용이다. 디도는 장로를 세우고 거짓 교사를 엄히 책망하며, 각 부류가 복음의 교훈을 빛내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디도서는 바른 교훈이 선한 행실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한다고 반복한다. 장로는 말씀에 합한 신실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의 가정과 성품이 그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든 성도는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모든 성도는 절제와 신실함과 선행을 통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한다(2:10). 선한 행실은 구원의 원인이나 공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은혜가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맺는 필수적인 열매다.

은혜는 죄를 묵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훈련한다(2:11-12).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도록 권한다. 이는 국가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절대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신자 자신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했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복음적 겸손에 근거한다(3:1-7). 진리를 지키는 책망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는 온유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바울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을 때가 되어 복음 선포로 나타내셨다고 말한다(1:2-3). 이 약속은 민족적 혈통이나 할례에 갇히지 않고 같은 믿음을 받은 이방인 디도와 그레데 교회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신다(2:14). 새 언약 공동체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태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3:4-7).

7. 그리스도와 복음

디도서는 복음을 두 번의 ‘나타남’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나 현재의 삶을 훈련하며, 성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린다(2:11-13).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깨끗한 백성으로 삼으셨다(2:14).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져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3:4-7). 복음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서 현재를 절제와 경건과 선행으로 살게 하는 은혜다.

8. 읽는 방법

디도서를 교회 조직과 도덕 규칙만 모은 책으로 읽지 말고, 2장과 3장의 복음 선언이 모든 명령의 토대임을 보아야 한다. 장로의 자격은 권력과 명예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품과 가정과 말씀에 충실할 책임이다. 그레데인에 대한 인용을 민족적 편견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고 거짓 교사와 당시 문화의 악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읽어야 한다. 종들에게 복종을 명한 본문도 노예제도를 하나님의 이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지 말며,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복음을 빛내도록 가르친 말씀과 성경 전체가 인간의 존엄과 형제 됨을 확장하는 방향을 함께 살피야 한다. 선한 행실은 칭의를 얻는 공로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열매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4

인사와 사도직의 목적을 밝힌다.

1:5-16

각 성에 장로를 세울 자격과 거짓 교사에 대한 책망을 다룬다.

2:1-10

늙은 남녀와 젊은 남녀, 종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친다.

2:11-15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을 훈련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고 설명한다.

3:1-11

권세에 대한 태도와 모든 사람을 향한 온유, 중생과 칭의의 은혜, 선한 일에 힘씀, 어리석은 논쟁과 분열을 피할 것을 권한다.

3:12-15

여행 계획과 동역자 지원, 마지막 인사로 끝난다.

빌레몬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빌레몬서는 바울서신 가운데 가장 짧고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까지 수신자로 포함된 공적이고 목회적인 서신이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과거의 종이나 문제 인물로만 보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하라고 요청한다(16절). 교리를 체계적으로 논증하기보다 복음이 권리와 신분, 손해와 책임, 용서와 화해, 목회적 권위의 사용을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 주는 살아 있는 사례다.

2. 책명

책명은 주된 수신자인 빌레몬의 이름에서 왔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이며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기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제공한 신자로 보인다(1-2, 5-7절). 압비아와 아킵보와 집의 교회가 함께 언급되므로 오네시모의 영접은 빌레몬 개인의 사적 선처에 머물지 않고 교회의 교제와 공개적 증언에 관계된 문제였다. ‘오네시모’는 ‘유익한’이라는 뜻과 연결되며, 바울은 과거에 무익했던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름을 활용해 호소한다(11절).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바울의 친필 서약과 여러 동역자의 문안으로 끝나므로 바울 저작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다(1, 19, 23-24절). 골로새서에도 빌레몬·아킵보·오네시모·에바브라·마가·아리스다고·테마·누가가 연결되어 두 편지가 같은 시기 골로새 지역으로 전달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골 4:7-17). 전통적으로 바울의 로마 투옥기인 주후 60-62년경으로 보며, 에베소나 가이사랴 투옥설도 있으므로 장소는 확정하기 어렵다(더글러스 J. 무, 『골로새서·빌레몬서』 서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고 교회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일했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법적으로 속한 종이었고 빌레몬과 결별한 뒤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돈을 훔쳐 달아난 도망 노예였다는 전통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18절은 손해나 빚이 ‘있다면’이라고 조건부로 말하므로 도주·절도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J. A. 피츠마이어, 『빌레몬서』 18절). 로마 사회의 종은 처우가 다양했어도 법적으로 주인에게 종속되어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바울의 목적은 오네시모의 잘못이나 빌레몬의 손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그를 바울 자신처럼 영접하고 강요가 아닌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여 복음에 합당한 화해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첫째 중심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형제됨이다. 회심은 오네시모의 내면만 바꾸지 않고 그를 바라보는 빌레몬의 시선과 권력 사용을 바꾸어야 한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유물이나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아들·심장·사랑받는 형제·동역자의 자리로 옮긴다. 둘째 중심은 자발적인 사랑이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포기하지 않지만 명령으로 결과만 얻기보다 빌레몬이 받은 은혜와 이미 보인 사랑에 호소한다(8-14절). 복음적 권위는 사람을 조종하거나 체면으로 압박하는 힘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돕는 섬김이다.

셋째 중심은 책임을 동반하는 화해다. 바울은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 않고 오네시모가 입힌 손해가 있다면 자신의 책임으로 계산하고 갚겠다고 한다(18-19절). 용서는 정의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관계 회복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다. 중재자와 공동체는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과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네시모의 떠남을 영원한 형제 관계로 바꾸었을 가능성을 말한 15절도 그의 잘못을 선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죄와 단절보다 크셔서 그것까지 화해의 계기로 바꾸실 수 있음을 고백한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빌레몬서는 아브라함의 한 가족에서 시작된 언약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넘어 새 가족을 만드는 모습을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 보여 준다. 주인과 종은 세상의 법적 지위가 달라도

한 주께 속하고 같은 은혜로 구원받아 한 식탁과 교제에 참여하는 형제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의 위계와 강압을 그대로 신성화하지 않고, 가장 낮게 취급되던 사람을 존귀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영접하도록 관계를 재구성한다. 이 편지는 제도 변화의 완성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지만, 종을 소유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언약 가족의 원리가 역사 속 불의한 지배 질서를 판단하고 변화시키는 씨앗이 된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빌레몬서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은 바울의 중재 방식과 공동체의 새 관계 속에 스며 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가능한 빛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고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하며, 빌레몬에게 그를 자기 자신처럼 영접하라고 요청한다(17-19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직접 설명하는 알레고리는 아니지만, 죄인의 빛을 담당하고 자기의 위와 지위 안에서 죄인을 하나님께 영접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해를 묵회적으로 반영한다(스캇 맥나이트, 『빌레몬서』 17-19절). 복음은 빛진 자를 단순히 벌에서 면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랑받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은혜받은 사람이 권리와 비용을 기꺼이 내어놓아 실제 화해를 이루게 한다.

8. 읽는 방법

오네시모를 도둑이나 도망 노예로 확정하거나, 빌레몬이 반드시 그를 해방했고 훗날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고 역사적 사실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추정과 본문이 명시한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용서하라’를 이용해 학대받은 사람을 위험한 관계로 돌려보내거

나 가해자의 배상과 책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이 위험과 손해를 떠맡고 공동체 앞에서 오네시모의 존엄과 영접을 보장하려 했다는 점을 적용해야 한다. 목회자는 바울의 부드러운 수사를 심리적 조종 기술로 흉내 내기보다 상대의 자발성, 안전, 공동체적 책임을 존중해야 한다.

특별 주제: 빌레몬서와 노예제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로마 노예제의 즉각적·법적 폐지를 직접 명령하지 않으며, 16절과 21절이 오네시모의 해방을 암시할 가능성은 있어도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더글러스 J. 무; 스캇 맥나이트). 따라서 빌레몬서를 현대적 노예 해방 선언문이라고 과장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 바울의 심장, 자신처럼 영접할 사람으로 규정한 요구는 주인이 인간을 단순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강제할 수 있다는 노예제의 토대와 양립하기 어렵다(마르쿠스 바르트·헬무트 블랑케, 『빌레몬서』 16절).

고대 로마의 노예제를 근대 대서양의 인종 노예제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법적 예측과 착취 가능성을 축소해서도 안 된다. 성경 전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자유인의 신분이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형제됨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선포한다(창 1:27; 갈 3:28; 골 3:11). 그러므로 빌레몬서는 노예제를 영원한 하나님의 이상으로 승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복음의 원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신 소유·강제 노동·인신매매와 인종적 노예제를 거부하고, 억압받는 사람의 자유와 존엄과 실제적 회복을 추구하도록 이끈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1-3절은 바울·디모데의 인사와 공동 수신자를 밝힌다. 4-7절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 일을 감사함으로 이후 요청의 토대를 놓는다. 8-12절은 명령할 권리가 있어도 사랑으로 간구하며 오네시모를 바울의 아들과 심장으로 소개한다. 13-17절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 선행을 요청하고, 오네시모를 종 이상인 사랑받는 형제와 바울 자신처럼 영접하라고 호소하는 신학적 중심이다. 18-22절은 가능한 손해를 바울의 계정에 두고 자신이 갚겠다는 약속과 빌레몬의 더 큰 순종에 대한 신뢰를, 23-25절은 공동체의 문안과 은혜의 축도를 전한다. 이 구조는 칭찬·연대·비용 부담을 통해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이끌어 내는 세심한 설득이다(프랭크 처치, ‘빌레몬서의 수사 구조와 설계’).

공동서신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공동서신은 히브리서·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요한일이삼서·유다서를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바울서신처럼 한 사도의 이름 아래 배열되기보다 여러 저자가 다양한 지역과 상황의 교회 및 개인에게 보냈기 때문에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 한다. 모든 편지가 보편 교회 전체에 직접 보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묶음은 사도적 복음이 고난·거짓 가르침·공동체 갈등·도덕적 타협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형성하는지 풍성하게 보여 준다.

2. 역사·문학적 성격

이 책들은 설교문에 가까운 히브리서, 지혜 권면을 엮은 야고보서, 흩어진 교회에 보낸 베드로서신,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요한서신, 강렬한 논박과 송영의 유다서처럼 형식과 독자가 다양하다. 따라서 하나의 상황이나 문체로 평준화하지 말고 각 책의 저자·수신자·논증을 먼저 살펴야 한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이 밝히지 않으므로 바울·바나바·아볼로 등 특정 인물을 확정하지 않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유다에 관한 초기 증언과 책의 자기표시를 존중한다. 문체 차이만으로 사도적 저작을 배제하거나 후대 익명 공동체의 산물로 돌리지 않는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공동서신 각 권 서론).

3. 전체 흐름

히브리서는 아들이 천사와 모세보다 높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단번의 제사를 드려 새 언약을 완성하셨으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한다. 야고보서는 시험과 지혜, 말과 편애, 부와 가난, 기도를 통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르친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성도의 산 소망과 거룩, 선한 행실과 고난 중 증언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거짓 교사와 재림 조롱에 맞서 사도적 말씀에 굳게 서도록 한다. 요한서신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순종과 형제 사랑, 구원의 확신, 거짓 교사에 대한 분별과 복음 사역자를 위한 환대를 연결한다.

4. 핵심 신학

공동서신은 참된 믿음이 고백과 삶, 진리와 사랑, 은혜와 인내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그리스도의 충분한 제사를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칭의의 공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의 필수 열매이며, 바울이 배격한 율법의 공로와 다른 문제를 다룬다. 베드로서신은 하나님의 보존과 성도의 깨어 있음,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함께 둔다. 요한서신은 교리적 성육신 고백, 의로운 삶, 형제 사랑을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듭난 생명의 표지로 제시한다.

5.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 계시이자 죄인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 피로 새 언약을 세우고 하늘 성소의 길을 여신 중 보자다. 그는 고난받는 성도의 본과 목자이며, 죄 없이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부활로 산 소망을 주신다(히 1:1-3; 9:11-14; 뱀전 1:3; 2:21-25; 3:18). 생명의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대언자가 되셨으며,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요일 1:1-2, 7; 2:1-2; 뱀후 3:13). 복음은 성도를 고난에서 즉시 면제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사랑과 확신과 끝까지 견디는 소망을 낳는다.

6. 읽는 방법

경고 본문을 참된 성도가 사소한 실패로 구원을 반복해서 잃는다는 공포로 읽거나, 반대로 선택 교리를 이유로 무의미한 가정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과 경고,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다. 야고보와 바울을 서로 반대되는 두 복음으로 만들지 말고 ‘믿음’과 ‘행함’과 ‘의롭다 함’이 각 논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살핀다. 국가와 주인과 가정에 대한 복종을 학대와 불의의 침묵을 강요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며,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명령도 사소한 견해 차이를 가진 사람에 대한 혐오와 단절로 확대하지 않는다. 진리를 지키는 분별과 흔들리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함께 유지한다.

히브리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히브리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놓이지만 저자 자신은 이를 ‘권면의 말’이라 부른다(13:22). 정교한 설교처럼 구약을 해설하고 청중에게 직접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편지 형식의 문안으로 끝난다.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 계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영원한 대제사장직, 새 언약과 단번의 희생을 선포하며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려는 교회가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권면한다.

2. 책명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은 후대의 고대 표제이며 본문이 직접 붙인 이름은 아니다. 수신자들이 구약 제사·성막·광야 세대와 칠십 인역 성경을 깊이 알고 있어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이방 신자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족 구성을 확정할 수 없다. 제목보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실제 교회이며 옛 언약의 그림자로 돌아가기보다 그리스도 안의 실체를 붙들어야 했다는 점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바울·바나바·누가·아볼로·브리스길라 등 많은 후보가 제안되었지만 확정할 수 없다. 그는 복음을 주께 직접 들은 사도라기보다 들은 자들에게 확증받은 세대에 속했고, 더

모데를 알며 뛰어난 헬라어와 구약 지식을 가진 목회자였다(2:3; 13:23).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오리게네스의 판단처럼 익명성을 존중해야 한다. 성전 제사가 현재형으로 묘사되고 디모데가 생존한 점에서 주후 60년대가 가능하지만, 현재형은 문학적 설명일 수 있어 주후 70년 이전을 확정할 수는 없다. 대체로 주후 60-90년 범위에서 본다(토머스 R. 슈라이너, 『히브리서』 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들은 처음 믿은 뒤 공개적 모욕과 고난, 재산 몰수를 겪고도 갇힌 자들을 돌보았지만 아직 피 흘리는 순교에는 이르지 않았다(10:32-34; 12:4). 시간이 지나며 모임을 폐하고 영적으로 둔해지며 사회적으로 안전한 옛 자리로 물러날 위험이 커졌다(5:11-14; 10:25).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는 문안은 로마와의 관계를 시사하지만 발신지인지 수신지인지 논쟁된다(13:24). 목적은 새롭고 쉬운 종교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버리면 더 나은 다른 제사와 중보자가 없음을 경고하고 약속과 공동체적 격려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으나 마지막에는 만물의 상속자이며 창조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다(1:1-3). 예수님은 천사·모세·여호수아·아론보다 크시지만 참 인간이 되어 고난과 죽음을 맛보고 시험받는 형제들을 도우시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멜기세덱

의 반차를 따른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하여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한다(7:23-28; 9:11-14; 10:10-14).

옛 언약의 성막·제사·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그림자였지만 죄를 최종 제거하지 못했고 반복 자체가 더 나은 실체의 필요를 증언했다.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8:6-13; 10:15-22).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만드는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본향을 기다리는 인내다. 교회는 이미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 예루살렘에 나아왔지만 아직 완성될 도성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다린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히브리서는 시편·예레미야·창세기·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그리스도 중심의 약속과 성취로 읽는다. 광야 세대의 실패는 새 언약 공동체를 경고하고,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안식은 창조 때부터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땅의 약속을 받았으나 더 나은 하늘 본향을 기다렸고, 다윗에게 주신 멜기세덱 제사장 왕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다. 교회는 시내산의 공포가 아니라 중보자 예수와 뿌린 피가 있는 시온산에 나아왔으며, 장차 올 도성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으로 산다(4:1-11; 7장; 11:8-16; 12:18-28; 13:14).

7. 그리스도와 복음

히브리서의 복음은 보좌에 오르신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여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소식이다(2:14-18). 죄 없으신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의 피는 죄책만 덜지 않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찢긴 육체라는 새롭고 산 길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4:14-16; 9:14; 10:19-22). 그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며 지금도 중보하고 다시 나타나 기다리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신다.

8. 읽는 방법

히브리서를 유대교나 구약을 열등하고 악한 종교로 비하하는 책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옛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지만 그 자체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에 이르렀다. 예표론은 성막의 모든 재료에 임의의 의미를 붙이는 알레고리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밝히는 제사장·희생·언약·성소·안식의 정경적 연결을 따른다.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말씀도 출석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배교 위험 속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적 돌봄의 문맥에서 적용해야 한다.

특별 주제: 경고 본문과 성도의 견인

2:1-4, 3:7-4:13, 5:11-6:12, 10:26-39, 12:14-29의 경고는 가상의 위험이나 겁주기용 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버리는

배교의 실제 위험을 선포한다. 동시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중보를 견고한 소망의 닻으로 제시한다(6:9-20; 10:14, 39). 개혁주의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는 끝까지 보존되지만, 하나님은 이 실제 경고와 공동체의 권면을 그들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경고를 무시하는 자기 확신도, 일시적 의심을 곧 돌이킬 수 없는 배교로 단정하는 절망도 피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슈라이너, 『히브리서』).

9. 전체 구조와 흐름

1:1-4

아들을 통한 최종 계시의 서문이다.

1:5-2:18

천사보다 높으나 형제들과 같이 되신 아들을 다룬다.

3:1-4:13

모세보다 크신 아들과 하나님의 안식 및 광야 세대의 경고를 다룬다.

4:14-10:18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새 언약·하늘 성소·단번의 희생을 전개한다.

10:19-12:29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인내할 것을 권하며 믿음의 증인들과 예수님, 아버지의 훈련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제시한다.

13:1-25

형제 사랑·환대·결혼·돈·지도자·찬양과 나눔을 가르치고 문안으로 끝난다. 교리 해설과 경고·격려가 교차하며 ‘그러므로’가 진리를 삶으로 연결한다.

야고보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야고보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첫 책으로, 흠어진 언약 공동체가 시험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살아 내도록 권면하는 지혜적·목회적 서신이다. 짧은 격언과 생생한 비유, 예언자적 책망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말·돈·분노·편애·기도와 공동체 갈등을 다룬다. 단순한 도덕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새 생명이 듣고 행하는 순종과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복음적 권면이다(1:18, 21-25).

2. 책명

책명은 발신자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에게서 왔다(1:1). 헬라어 이름은 야곱과 같은 이름이며, 신약에는 여러 야고보가 등장한다. 초기 교회의 전승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권위, 유대적 성격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가장 타당하다(행 15:13; 갈 1:19; 2:9). 그는 혈연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여 부활하신 형제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정체성을 앞세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주후 62년경 순교

한 것으로 전해진다(요 7:5; 고전 15:7;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20.200). 세련된 헬라어 때문에 저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중 언어 환경의 지도자가 서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뛰어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익명 위작자가 권위를 높이려 했다면 ‘주의 형제’라는 칭호를 생략하기 어렵다. 기록 연대는 주후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까지 제안되며, 예루살렘 회의 논쟁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이른 연대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다(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중심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낸다(1:1). 그들은 박해와 가난, 부자의 압제, 공동체 안 편애와 경쟁, 말의 상처와 세속적 욕망을 겪었다. 야고보는 시험을 하나님이 악으로 유혹하시는 일과 구분하고, 고난 속에서 지혜를 구하며 인내하라고 한다. 목적은 말뿐인 신앙과 세상적 지혜를 폭로하고, 가난한 자를 존중하며 혀를 절제하고 화평을 심고 기도하며 주의 오심까지 견디는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야고보서의 핵심은 ‘온전함’, 곧 나뉘지 않은 전인적 신앙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화평·관용·궁휼과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1:4-8; 3:13-18; 4:4-8).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

지 않고 변함없이 좋은 선물을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그러므로 순종은 새 생명을 얻는 공로가 아니라 이미 심어진 말씀을 온유히 받아 삶에서 열매 맺는 일이다.

부와 가난, 말과 관계도 신학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왕의 법인 이웃 사랑을 어긴다(2:5-9). 부 자체보다 가난한 품꾼의 샅을 가로채고 사치와 자기 확신으로 사는 불의가 심판받는다(5:1-6).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고, 교사의 말과 공동체의 언어는 더 엄격한 심판 아래 있다(3:1-12).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열두 지파’와 ‘회당’, 아브라함·라합·요셉·엘리야의 예는 야고보가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경과 단절시키지 않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왕의 법으로 새 백성을 다스리신다(1:25; 2:5, 8).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에서 온전해졌고 라합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한 환대에서 드러났다. 교회는 선지자와 요셉처럼 약속을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의 강림까지 인내한다. 구속사는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여 공훈과 충성으로 사는 백성을 낳는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 부르고 그의 나라와 재림과 심판을 모든 권면의 중심에 둔다(2:1; 5:7-9).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닮은 가르침은 가난한 자의 복, 완전함, 분노와 말, 맹세, 구하고 받음, 나무와 열매, 듣고 행함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단지 지혜 교사만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하나님은 영광의 주 안에서 죄인을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 자비가 심판을 이기게 하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인을 죽음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복음은 행함 없는 고백을 살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는 살아 있는 믿음을 준다.

8. 읽는 방법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의 책으로 오해하거나 바울보다 낮은 신학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행함을 단지 구원받은 뒤 선택 가능한 장식으로 약화해서도 안 된다. 시험 중 기쁨은 고통 자체를 즐기거나 슬픔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권면이다. 병자를 위한 기름과 믿음의 기도도 모든 병이 개인 죄 때문이거나 충분히 믿으면 반드시 즉시 치유된다는 공식이 아니다. 교회는 치료와 돌봄을 함께 사용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 기도하고, 죄 고백을 지도자의 통제나 공개적 수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별 주제: 야고보와 바울—믿음과 행함과 칭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위를 얻으려는 주장을 반박하며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롬 3:28; 4:1-5). 야고보는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귀신도 가진 지적 동의와 가난한 형제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죽은 ‘믿음’을 반박한다(약 2:14-19). 바울은 칭의의 근거와 수단을, 야고보는 믿음 주장의 진실성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창세기 22장의 순종으로 그 믿음이 참되고 온전함을 드러냈다(장 칼뱅, 『기독교강요』 3.17.1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2; 더글러스 J. 무, 『야고보서』 2:14-26).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요약처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행함은 칭의의 공로나 그리스도의 의에 더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 있는 믿음의 필연적 열매와 공개적 증거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약한 참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야고보의 책망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대신 의지해서도 안 되며, 참된 순종 자체도 은혜로 주신 새 생명과 말씀에서 나온다(엡 2:8-10; 약 1:18, 21).

9. 전체 구조와 흐름

1:1-18

시험·지혜·가난과 부·욕심 및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룬다.

1:19-27

말씀을 듣고 행하며 혀와 삶을 다스리는 참 경건을 다룬다.

2:1-13

부자를 편애하지 말고 자유의 율법과 긍휼을 따라 판단하라고 한다.

2:14-26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을 책망한다.

3:1-18

교사의 책임과 혀의 위험,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대조한다.

4:1-5:6

욕망에서 생기는 다툼, 세상과 벗 됨, 비방, 자만하는 사업 계획과 부자의 착취를 책망한다.

5:7-20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 맹세, 고난과 병중의 기도, 죄 고백과 미혹된 자의 회복으로 끝난다. 주제들이 반복되어 서로를 비추는 지혜 설교의 흐름으로 읽는 것이 좋다.

베드로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베드로전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회적 소외와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적 목회 서신이다. 독자들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을 받은 백성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1:1-5). 고난을 낭만화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따라 현재의 불의와 수치 속에서도 소망·거룩·사랑·증언을 지키도록 위로한다.

2. 책명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정경 서신이라는 뜻이다(1:1). ‘전서’는 책의 가치나 작성 순위를 뜻하지 않고 베드로후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며 예수님이 ‘게바’, 헬라어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회복되어 양 떼를 먹이라는 사명을 받았고,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장로라고 부른다(요 21:15-19; 벰전 5:1).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밝히며, 마가와 실루아노 같은 초기 교회 인물과 연결된다(1:1; 5:12-13). 일부 비평

가들은 세련된 헬라어와 구약 사용, 광범위한 독자층을 이유로 후대 위명서신으로 보지만, 어부였다는 사실이 평생 문맹을 뜻하지 않으며 실루아노가 서신 작성과 전달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본문이 밝힌다. 예수님의 고난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초기 교회가 널리 베드로의 글로 수용한 점을 고려하면 사도 베드로 저작이 가장 타당하다(캐런 H. 줍스, 『베드로전서』 서론;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며, 네로 박해와 베드로의 순교 전인 주후 60-64년경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는 본도·갈라디아·갑바도기아·아시아·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이다. 유대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과거의 우상숭배와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언급하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1:14, 18; 4:3-4). ‘나그네’는 하늘 시민권의 영적 정체성인 동시에 일부 독자가 실제로 낮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 제한을 겪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캐런 H. 줍스, 『베드로전서』 1:1). 당시 고난은 제국 전체의 공식 박해만이 아니라 가족·이웃·직업 공동체에서 받는 비방과 배제, 고발과 부당한 대우를 포함했다. 목적은 성도들이 두려움이나 보복, 동화와 타협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한 행실과 준비된 복음 답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베드로전서의 중심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 성도는 아버지의 미리 아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 뿌림을 받도록 택하심을 입었다(1:1-2). 이 선택은 세상에 대한 교만이나 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위한 은혜다(2:9-12). 부활은 산 소망의 객관적 기초이며,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성도를 보호하여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과 유업에 이르게 하신다.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기쁨, 이미 받은 구원과 나타날 은혜가 함께 놓인다.

거룩과 선행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새 가족 생활이다. 성도는 썩지 않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므로 악의·기만·위선·시기·비방을 버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1:22-2:3). 세상 속 선행은 대적의 비방을 잠잠하게 하고 복음의 소망을 보이지만,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다. 장로의 권위도 지배가 아니라 목자장의 양 떼를 본이 되어 돌보는 섬김이며, 젊은 자와 공동체 전체는 서로 겹손을 입어야 한다(5:1-5).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출애굽기 19장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에 적용된다(2:9-10).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호세아의 약속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품은 새 언약 공동체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모퉁잇돌이며, 신자

들은 그에게 나아가 살아 있는 돌로 영적 집을 이룬다(2:4-8). 노아 홍수와 세레의 연결은 물 자체의 기계적 효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와 새 시대의 구원을 나타낸다(3:20-22). 흩어진 교회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순례 백성이다.

7.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전서의 그리스도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삶에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신 분이다(1:18-21). 그는 죄가 없고 욕하지 않으셨으나 나무에 달려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며, 그의 상처로 길 잃은 양을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오게 하셨다(2:21-25).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위해 고난받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부활·승천하여 천사와 권세를 복종시키셨다(3:18-22).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속과 부활로 죄인을 새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선을 행하며 고난받아도 장차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산 소망이다.

8. 읽는 방법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 살인·도둑질·악행·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받는 결과와 그리스도인으로 선을 행하다 겪는 부당한 고난을 본문이 구분한다(2:20; 4:14-16). 고난을 찾거나 학대를 영적 성숙의 필수 도구로 낭만화하지 말며, 정당한 법적 보호와 피신·신고·공동체의 도움을 불신앙으로 정

죄해서도 안 된다. ‘항상 답변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보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소망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청이다(3:15-16).

특별 주제: 복종·고난 본문과 권력 남용

2:13-3:7의 국가·종·부부에 관한 권면은 로마의 위계질서를 하나님의 영원한 이상으로 신성화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가장 취약한 종과 아내를 도덕적 주체로 부르며, 모든 인간 제도에 대한 복종을 ‘주를 위하여’ 행하라고 제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한다(2:13, 17).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로 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3:7; 캐런 H. 쏘스, 『베드로전서』 2:13-3:7;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국가와 가장은 하나님 아래 있으며 악을 명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절대 권한이 없다(행 5:29).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환경에 남아 있으라고 강요하거나 신고·피신·정당한 보호를 막는 도구가 될 수 없다. 본문은 보복과 악행을 금하지만 악을 선이라고 부르거나 가해자를 책임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교회는 학대받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공적 권세의 정의로운 역할을 활용하며, 가해자에게 회개와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예수님도 자신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말은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악의 최종 판단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뜻한다(2:23; 롬 13:1-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

삼위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하게 하심과 피 뿌림 안에서 나그네 성도에게 인사한다.

1:3-2:10

부활로 얻은 산 소망과 유업을 찬양하고, 거룩·형제 사랑·말씀에 대한 갈망 및 산 돌이신 그리스도 안의 영적 집과 왕 같은 제사장 정체성을 밝힌다.

2:11-4:11

이방 사회에서의 선한 행실, 국가와 종·가정 관계, 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를 다룬다.

4:12-5:11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장로는 양 떼를 자원하여 돌보고 모두 겸손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한다.

5:12-14

실루아노와 마가의 문안 및 ‘참된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결론이다.

베드로후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베드로후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사도적 복음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 창조를 기다리도록 권하는 목회적 유언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성도들이 이미 받은 진리를 계속 기억하게 하며, 신앙 지식을 삶과 분리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진 생명이 경건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1:3-15). 사도들의 목격 증언과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1:16-21).

2. 책명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정경 서신이라는 뜻이다(1:1; 3:1). 첫 절의 ‘시므온’은 시몬의 셈어식 형태로, 사도행전 15:14에도 나타난다. ‘후서’는 베드로 전서보다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사도의 두 정경 서신을 구분하는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편지는 저자를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본 목격자이며 예수님이 예고하신 죽음을 앞둔 사도로 자신을 제시한다(1:1, 14, 16-18; 요 21:18-19). 문체와 유다서와의 유

사성 때문에 후대 위명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거짓 이름으로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일은 편지가 정죄하는 거짓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체 차이는 주제·상황·서기관과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정경이 명시하는 베드로 저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서론;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서론;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서론). 기록 시기는 베드로의 순교 직전인 주후 64-68년경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3:1의 ‘두 번째 편지’라는 말에 따르면 첫 독자는 베드로전서의 독자와 같거나 상당 부분 겹치는 소아시아 교회들로 볼 수 있다. 공동체 안에는 탐욕과 음란을 따르며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2:1-3; 3:3-4). 그들은 자유를 약속했으나 스스로 부패의 종이었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거룩한 생활을 갈라놓았다. 베드로의 목적은 성도들이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 교사의 교리와 열매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의 기회로 받아 거룩과 경건 가운데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데 있다(3:1-2, 11-15, 17-18).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의 능력과 보배로운 약속이 먼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며, 성도의 부지런한 성장은 그 은혜의 결과다(1:3-8).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이나 신격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욕으로 썩어지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닮고 약속된 생명에 참여한다는 뜻이다(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벤후 1:4;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벤후 1:4).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권면도 행위로 선택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끝까지 견디라는 요청이다(1:10-11).

성경의 권위는 인간의 종교적 통찰에 있지 않고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있다.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도 개인 성경 읽기를 금지하기보다 예언의 기원과 해석이 인간의 자의에 매이지 않음을 강조한다(1:20-21;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벤후 1:20-21;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하나님은 거짓 교사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노아와 롯의 사례처럼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며, 성도를 방치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보존하신다(2:4-9; 1:11).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창조의 말씀,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발람의 길은 과거의 심판과 구원이 장차 올 주의 날을 보증함을 보여 준다(2:4-16; 3:5-7).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재림의 지연은 무능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다(3:8-9, 15). 구속사의 결말은 악과 불의가 영속하는 세계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성도는 그 약속 때문에 현재의 거룩과 평화를 힘쓴다(3:11-14).

7. 그리스도와 복음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는 주로 선포한다(1:1, 3, 11). 변화산에서 들린 아버지의 음성과 목격된 위엄은 그가 사랑받는 아들이며 장차 왕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 준 사건이다(1:16-18).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사신 주인이시며, 재림의 약속을 성취하고 불의를 심판하시되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2:1; 3:9, 15). 복음은 심판을 부정하는 값싼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정욕의 부패에서 벗어나 그의 성품을 닮고 영원한 나라와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다.

8. 읽는 방법

‘지식’을 비밀 계시나 지적 우월감으로 읽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 삶과 성품이 변화되는 언약적 지식으로 읽어야 한다. 거짓 교사는 화려한 말이나 표적보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 돈과 성, 권력에 대한 태도와 삶의 열매로 분별한다. 2장의 유다서와 유사한 표현은 두 서신이 공통된 사도적 전승을 사용했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정당하게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지만, 자료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베드로의 저작권과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서론;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서론).

바울의 편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언급은 성경의 모순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무지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도 왜곡했음을 경고한다(3:15-16).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지연을 약속의 실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오늘의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종말론은 호기심을 채우는 시간표가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삶을 형성하는 소망이다(3:11-14).

특별 주제: 주의 날의 불과 새 창조

3:10은 사본과 번역에 따라 땅과 그 안의 일들이 ‘드러날 것’, ‘불탈 것’ 등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맥의 중심은 피조세계의 완전 소멸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불 심판 앞에 모든 일이 폭로되고 불의가 제거된 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데 있다(벧후 3:10-13; 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벧후 3:10;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벧후 3:10-13). 홍수 때 세계가 심판받았으나 창조 자체가 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유와 성경 전체의 창조 회복 소망을 고려하면, 새 창조는 현 세계와 아무 관계 없는 대체물보다 불로 정결해지고 영화롭게 갱신된 창조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롬 8:19-23; 계 21:1-5; 앤서니 후크마, 『개혁신의 종말론』). 다만 불의 방식과 물질적 연속성의 세부를 본문보다 앞서 단정해서는 안 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1:1-2

인사말이다.

1:3-11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으므로 믿음에 덕·지식·절제·인내·경건·형제 우애·사랑을 더하라고 권한다.

1:12-21

베드로의 죽음을 앞둔 유언과 변화산의 목격 증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제시한다.

2:1-22

거짓 교사의 탐욕과 방종을 폭로하고 과거 심판 사례로 그들의 멸망을 경고한다.

3:1-18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창조와 홍수와 장차 올 심판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근거하여 거룩하게 살며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라고 권한다.

요한일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일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과 사도적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사귄, 거룩한 삶, 형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르친다.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을 갖춘 통상적 서신 형식보다 설교와 목회적 권면에 가깝지만, ‘내가 너희에게 쓴다’는 표현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직접 호칭이 반복된다. 공동체를 혼든 거짓 가르침에 맞서 참된 신앙을 교리·순종·사랑이라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표지로 제시하며, 독자들이 영생을 가진 줄 알게 하려는 확신의 책이다(1:1-4; 5:13).

2. 책명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둘러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본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자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목격자 공동체를 대표하여 증언한다(1:1-3). ‘일서’는 가치의 순위가 아니라 요한이서·요한삼서와 구분하는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초기 교회는 이 편지를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사도인 요한의 글로 받아들였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말씀·생명·빛·진리·사랑·거함·세상·증언 같은 어휘와 대조적 문체, 성육신과 영생에 대한

신학을 깊이 공유한다. 이름이 없다는 이유와 일부 문체 차이만으로 사도적 저작을 부정할 충분한 근거는 없으며, 사도 요한 자신 또는 그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 있는 요한 공동체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되 전통적 사도 저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존 스토틀,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유력하고, 연대는 요한복음과 비슷하거나 그 이후인 주후 80-95년경으로 흔히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는 요한이 목회적으로 돌보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에서 떠난 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과 형제 사랑을 가볍게 여겼다(2:4, 18-23; 4:1-3). 이들을 2세기의 완성된 영지주의 체계와 곧바로 동일시하기보다, 물질과 성육신을 낮추고 특별한 지식을 자랑한 초기 형태의 거짓 가르침으로 이해하는 편이 신중하다(존 스토틀,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목적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남은 성도들이 사도적 증언 안에 거하여 기쁨과 거룩, 상호 사랑과 기도의 확신을 누리며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1:3-4; 2:26; 5:13-15).

5. 핵심 주제와 신학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귄다는 주장은 죄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어둠 속에 계속 행하는 삶과 양립할 수 없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죄를 자

백할 때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의 피의 깨끗하게 하심을 의지한다(1:5-2:2). 순종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생명의 표지이며, 완전한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죄와 싸우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향과 습관을 말한다(존 스토틀, 『요한서신』 요일 1:5-2:6;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일 3:4-10).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의 기준과 근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4:7-10).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고, 사랑은 말과 혀에 머물지 않고 궁핍한 형제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는 행동과 진실로 나타난다(3:16-18; 4:20-21).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교회의 교사와 성경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개인적 무오성이 아니라, 사도적 복음 안에 거하여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다(2:20-27; 존 스토틀, 『요한서신』).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서두를 되올리며,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역사 속에 나타나셨음을 선포한다(1:1-2; 요 1:1-3).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의와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지고 있는 그대로 뵈게 될 소망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2:28-3:3). 새 언약의 약속은 성령의 증언과 마음에 거하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는다. 영생은 미래에만 받는 상

이 아니라 아들을 가진 자가 지금 소유하며,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생명이다(3:24; 5:11-13).

7. 그리스도와 복음

요한일서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가 참 육체로 나타난 생명의 말씀이며,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1:1-3; 4:2, 9). 의로우신 그는 죄지은 성도를 위한 대언자이고,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될 만큼 충분하고 유일한 죄의 화목제물이시다(2:1-2; 존 스토틀, 『요한서신』 요일 2:2).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물과 피로 오셔서 참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셨다(1:7; 3:8; 5:6). 복음은 죄를 숨기거나 사랑 없는 정통을 정당화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자녀 삼아 믿음·순종·형제 사랑과 영생의 확신 안에 살게 한다.

8. 읽는 방법

요한의 흑백 대조를 순간마다 완전한 신자와 단 한 번 죄지은 가짜 신자를 나누는 기계적 검사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편지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를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계속 삶의 지배적 방식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다(1:8-10; 3:6-10). 믿음·순종·사랑의 세 표지는 서로 보완하며, 구원의 근거는 자기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이다. 양심이 책망할 때도 하나님은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므로, 민감한 성도를 공포로 몰

기보다 회개와 복음의 객관적 약속으로 인도해야 한다(3:19-24; 5:11-13).

‘적그리스도’는 단지 미래의 한 정치인을 알아맞히는 암호가 아니다. 요한은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그 영으로 규정한다(2:18, 22; 4:2-3). ‘영들을 시험하라’는 명령은 체험의 강도나 예언자의 자신감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사도적 말씀을 듣는가, 삶에서 진리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피라는 뜻이다(4:1-6).

특별 주제: 반복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가 현세에서 무죄 완전에 도달한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편지가 신자에게 죄의 자백과 그리스도의 대언을 가르치므로, 문맥은 죄를 회개 없이 지속하여 삶의 정체성과 습관으로 삼는 상태를 배제한다(1:8-2:2; 3:6-10; 존 스토틀,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은 죄와 평화롭게 공존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 그리스도께 돌아와 용서와 정결을 구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특정한 한 번의 실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두려워하는 민감한 신자의 실패라기보다, 공동체를 떠난 거짓 교사들처럼 성령의 증언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부인하여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는 배교를 가리키는 견해가 문맥상 유력하다(2:18-23; 4:1-3; 5:6-12, 16-17;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일 5:16-17;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한이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기도를 절대 금한다기보다, 형제의 회복을 확신하며 구하는 약속을 완고한 배교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제한으로 읽어야 한다(존 스토틀, 『요한서신』 요일 5:16-17).

9. 전체 구조와 흐름

1:1-4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격 증언과 사권의 목적을 밝힌다.

1:5-2:2

빛이신 하나님과 죄의 고백, 그리스도의 대언과 화목제물을 다룬다.

2:3-27

순종과 형제 사랑,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 적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의 분별을 제시한다.

2:28-4:6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과 사랑, 양심의 확신, 영들을 시험하는 성육신의 기준을 전개한다.

4:7-5:12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나타났으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성령의 증언 안에서 결합됨을 밝힌다.

5:13-21

영생과 응답받는 기도,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한 중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우상 경계로 끝맺는다.

요한이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이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책 중 하나로, ‘장로’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묵회 서신이다.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도적 고백을 지키고 미혹하는 교사에게 교회의 사역 기반을 제공하지 말라고 권한다. 요한일서의 핵심을 압축하여, 사랑은 계명에 따른 행함이고 분별 없는 관용은 사랑이 아님을 보여 준다.

2. 책명

‘요한이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돌려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본문은 저자의 이름 대신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이는 단순히 지역 교회의 한 직분자라기보다 여러 교회에 인정받은 사도적 연륜과 묵회 권위를 나타낸다(1절). ‘이서’는 작성 순서나 가치의 등급을 확정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요한삼서와 구별하기 위한 정경적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진리·사랑·계명·거함·미혹하는 자·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요한일서 및 요한복음의 고유한 어휘와 신학을 공유한다. 초기 교회의 수용과 세 요한서신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가장 타당하

다(존 스토트,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요한일서와 비슷한 위기 속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말년에 기록된 것으로 보며, 주후 80-95년경이 유력하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한 신실한 여인과 가족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문안하고 명령이 단수와 복수를 오가는 점을 고려하면 한 지역 교회와 그 성도들을 의인화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1, 4-5, 12-13절; 존 스토트, 『요한서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순회 교사들이 가정교회의 숙식과 후원을 받아 사역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도 같은 환대를 이용하려 했다. 목적은 교회가 처음부터 받은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거짓 교사의 악한 사역에 동참하지 않도록 진리의 경계를 세우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진리는 추상적 명제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도적 복음이며, 사랑은 진리를 희생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걷는 삶이다(1-6절). ‘새 계명’은 이전에 없던 윤리를 뜻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 안에서 새롭게 드러난 처음부터 받은 계명이다. 사랑 없는 정통은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가르침을 후원하는 것도 성경적 사랑이 아

니다. 은혜·공홀·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함께 오므로, 아들을 떠나 아버지를 소유할 수 없다(3, 9절).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한다. 구약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육신하신 아들의 오심과 새 계명 안에서 선명해지고, 교회는 한 가족처럼 자매 교회와 문안과 교제를 나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지만, 그 가르침을 넘어간다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다(9절). 참된 전진은 사도적 복음을 벗어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받은 말씀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성숙이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관념이나 잠시 몸을 빌린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3, 7절). 성육신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대속과 몸의 부활, 창조의 선함과 구원의 역사성도 무너진다. 복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성도에게 은혜와 공홀과 평강을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신다. 그러므로 복음적 사랑은 진리를 상대화하지 않고, 육체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며 그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 복음의 확산을 막는다.

8. 읽는 방법

편지를 개인에게만 보낸 사적 쪽지로 축소하거나 모든 표현을 교회에 대한 암호라고 지나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가정과 지역 교회가 겹쳐 있던 당시 환경을 고려하면 두 견해가 완전히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서신의 권면은 분명히 공동체적 책임을 가진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사소한 견해 차이나 모든 교리적 오류를 가진 성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적 복음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교사를 가리킨다(7-11절;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특별 주제: 거짓 교사에게 인사하거나 영접하지 말라는 뜻

10-11절은 불신자·타종교인·교리적으로 미숙한 이웃에게 예의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다. 당시 순회 교사를 집에 영접하고 공식 인사를 건네는 일은 숙식·집회 장소·추천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그의 사역에 참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지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선교자를 교회의 공인 교사로 받아들이거나 그 전파를 실질적으로 후원하지 말라는 뜻이다(존 스토티, 『요한서신』 요이 10-11절;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이 10-11절).

이 본문을 이단자에 대한 모욕·폭력·사회적 혐오나 가족 관계의 무조건적 단절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 지도자는 양떼를 보호하고 복음을 파괴하는 가르침에 강단·직분·재정·공식 추천을 제공

하지 않아야 한다(마 5:44; 갈 6:10; 딤후 3:10-11). 진리 없는 환대와 사랑 없는 배척을 모두 피하는 것이 요한이 요구한 분별이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1-3절은 장로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할 은혜·공훈·평강을 빈다. 4-6절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기뻐하며, 처음부터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걸으라고 권한다. 7-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거짓 교사의 사역을 후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2-13절은 종이와 먹보다 얼굴을 맞대는 교제를 바라며 자매 교회의 문안으로 마친다.

요한삼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삼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가장 짧은 책으로, 장로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 목회 서신이다. 순회 복음 사역자들을 신실하게 환대하는 가이오를 격려하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사도적 권면을 거부한 디오드레베의 권력 남용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 작은 지역 교회의 실제 갈등을 통해 진리는 바른 고백뿐 아니라 환대·섬김·공적 책임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함을 보여 준다.

2. 책명

‘요한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돌려진 세 정경 서신 가운데 세 번째 책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요한이서와 동일하게 자신을 ‘장로’라고 부르며, 수신자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밝힌다(1절). ‘삼서’는 가치가 낮다는 뜻이 아니라 세 요한서신을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요한이서와 같은 ‘장로’라는 자기 호칭, 진리 안에서 행함·사랑·증언·얼굴을 마주한 교제를 강조하는 어휘와 문체, 초기 교회의 수용을 고려하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존 스토틀, 『요한서신』 서론;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

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던 말년에 요한이서와 가까운 시기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주후 80-95년경으로 본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낯선 형제들까지 환대하여 교회 앞에서 사랑을 인정받은 신자였다(3-6절). 당시 순회 복음 사역자는 여관의 위험과 이교적 환경을 피해 성도의 숙식·여행비·추천에 의존했으므로 환대는 복음 전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영향력 있는 디오드레베는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받아들이려는 성도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았다(9-10절). 목적은 가이오가 두려움 없이 선한 사역자를 계속 돕고 데메드리오를 받아들이며, 교회가 독점적 권력보다 진리와 공적 증언을 따라 행하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요한삼서에서 ‘진리 안에서 행함’은 교리를 정확히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음 사역자를 사랑으로 환대하고 필요한 길을 마련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교회는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간 이들을 지원함으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된다(5-8절).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표지이고, 악을 지속하는 삶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음을 드러낸다(11절). 재정·공간·추천과 같은 일상적 자원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권위는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섬겨야 한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 충돌이 아니라 으뜸 되기를 좋아하고 사도적 권면을 거부하며 악한 말로 비방하고 환대하는 성도에게 출교를 행사한 데 있다(9-10절). 반대로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뿐 아니라 진리 자체와 사도의 증언을 받는다(12절). 지도자의 권위는 직함이나 영향력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선한 열매와 공동체의 검증 아래 있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환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객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언약적 윤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길을 떠난 복음 사역자를 돌보는 교회의 환대로 이어진다(창 18:1-8; 신 10:18-19; 요삼 5-8절). 새 언약 공동체는 혈연이나 지역의 폐쇄성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섬기는 형제자매의 교제로 연결된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증언에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이며, 그 동역은 장차 완성될 나라의 평강과 교제를 미리 보여 준다.

7. 그리스도와 복음

순회 사역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으며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7절). 그들은 복음을 상품처럼 팔거나 이방인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값없이 증언했고, 성도는 이들을 지원하여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다. 복음은 지도자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을 높이고, 받은 은혜로 낮은 형제를 가족처럼 섬기게 하는 소식이다. 장로도 멀리서 권력만 행사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여 평강과 교제를 회복하려 한다(13-15절).

8. 읽는 방법

가이오의 건강과 범사의 평안을 비는 2절을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해야 한다는 ‘변영 복음’의 보증으로 읽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고대 편지에서 자연스러운 안부 기도이며, 본문의 강조는 가이오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잘되고 있다는 데 있다(존 스토티, 『요한서신』 요삼 2절;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요삼 2절). 또한 환대 명령은 추천과 검증을 없애는 무조건적 후원이 아니다. 요한이서가 거짓 교사를 후원하지 말라고 하고 요한삼서가 진실한 사역자를 도우라고 하므로, 교회는 교리·삶·공동체의 증언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별 주제: 디오드레베와 교회 권력의 남용

디오드레베가 장로인지 다른 직분자인지는 본문이 밝히지 않지만, 편지를 무시하고 순회 형제를 거부하며 그들을 받으려는 성도를 교회에서 내쫓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음은 분명하다. 그의 핵심 죄는 ‘으뜸 되기를 좋아함’이며,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사도적 책임과 공동체의 환대를 억압했다(9-10절; 존 스토티, 『요한서신』 요삼 9-10절;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요삼 9-10절).

이 본문은 모든 지도력이나 교회 권징을 불신하게 하지 않지만, 직분자가 비판을 막고 정보를 독점하며 비방·출교·재정을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공개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보여 준다. 요한은 소

문만으로 정죄하지 않고 직접 가서 그의 행위를 지적하겠다고 하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는 공동체와 진리의 복수 증언을 제시한다(10, 12, 14절;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개혁주의 교회정치는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이시며 직분자의 권위는 말씀 아래 있는 봉사적·치리적 권위라고 고백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30장).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1-4절은 장로가 가이오의 영혼과 범사가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에 기뻐한다. 5-8절은 가이오가 낯선 형제들에게 베푼 신실한 환대를 칭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간 이들을 합당하게 전송하여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라고 권한다. 9-10절은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한 말과 환대 방해, 출교 남용을 공개적으로 다룰 것을 밝힌다. 11-12절은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라 권하며 모든 사람과 진리 자체가 증언하는 데메드리오를 추천한다. 13-15절은 직접 만나 이야기할 소망과 평강의 문안으로 마친다.

유다서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유다서는 일반서신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에 맞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짧고 강렬한 목회 서신이다(3-4절). 구약의 심판 사건과 당시 유대 문헌에 알려진 사례, 생생한 자연 비유와 사도들의 예언을 사용하여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자의 결말을 경고한다. 그러나 공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능히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마친다.

2. 책명

책명은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게서 왔다(1절). 그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혈연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 ‘유다’는 당시 흔한 이름이었으나, 잘 알려진 야고보를 별도 설명 없이 언급한 점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역한 사실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며 야고보서 저자의 형제인 유다가 가장 타당하다(마 13:55; 고전 9:5).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이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보는 전통적 견해가 자연스럽다. 겸손한 자기소개, 팔레스타인 유대 배경과 구약·유대 전승에 대한 친숙함, 사도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권위 있게 전달하는 태도가 이 견해와 잘 맞는다(17-18절;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 전후서·유다서』 서론;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서론). 기록 연대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거짓 교사가 이미 침투했고 독자들이 사도들의 예언을 기억할 수 있었던 주후 50-80년 사이가 제안된다. 베드로후서와의 문학적 관계 및 베드로의 순교 연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더 좁은 연대가 달라지므로 한 해를 단정하지 않는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수신 지역은 명시되지 않지만, 출애굽·광야 세대·타락한 천사·소돔과 고모라·가인·발람·고라와 유대 전승을 별도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적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의 애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성적 방종의 구실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이익을 위해 아첨했다(4, 8, 12, 16절). 유다는 본래 공동의 구원에 관해 쓰려 했으나 위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수호하도록 긴급히 권면했다(3절). 목적은 논쟁 자체를 즐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가르침과 생활을 분별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지혜와 긍휼로 구하게 하는 데 있다.

5. 핵심 주제와 신학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개인의 주관적 확신만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진리 전체를 가리킨다(3절). ‘단번에’는 교회가 시대마다 표현을 다듬고 오류에 답하는 일을 막지 않지만, 새 계시를 주장하여 사도적 복음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음을 뜻한다. 진리를 위한 싸움은 폭력이나 모욕이 아니라 바른 고백과 거룩한 삶, 교회적 분별과 흔들리는 자를 구하는 사랑으로 수행한다.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게 한다(4, 20-23절).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과 성도의 책임은 함께 놓인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1, 20-21절). 마지막 송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고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세우심을 확증한다(24-25절). 개혁주의의 성도의 견인은 인간의 방심을 허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 은혜가 경고·기도·공동체의 돌봄과 인내를 통해 성도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고백이다.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유다는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은 광야 세대, 정해진 자리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나란히 놓아 언약 공동체의 외적 특권이 불신앙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5-7절). 가인·

발람·고라의 길은 예배의 왜곡, 탐욕과 거짓 예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반역이 반복되는 언약적 배교의 유형이다(11절). 하나님은 불경건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훈이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기다린다(21절). 구속사의 종착점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는 것이다(24절).

7. 그리스도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하여 지키시는 주,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와 주님, 마지막 날 공훈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1, 4, 21절). 5절은 중요한 고대 사본에서 ‘예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읽히며, 이 독법은 유다가 출애굽의 주를 성육신 전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높은 기독교론을 보여 준다(ESV·NA28 본문;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유 5절;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유 5절). 다만 ‘주께서’ 등 사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복음은 심판받을 죄인을 그리스도의 공훈로 구원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서게 하는 은혜다.

8. 읽는 방법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는 명령을 모든 사소한 견해 차이에 대한 공격, 인신 비방이나 강압의 허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유다가 겨냥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리와 생활이다. 동시에 거짓 가르침을 분별한다

는 이유로 흔들리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본문은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위협에 빠진 자를 구하되 죄에 물들지 않도록 두려움과 분별을 가지라고 한다(22-23절).

천사·꿈·초자연적 권세에 관한 표현을 바탕으로 영적 세계의 세부 지도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미가엘조차 마귀에게 독자적으로 모욕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다는 대조의 핵심은, 거짓 교사의 교만하고 무지한 비방을 책망하는데 있다(8-10절). 영적 전쟁에서 성도는 악을 가볍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자기 권위를 과장하여 사탄에게 명령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영적 성숙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특별 주제: 유다서의 외경·유대 전승 사용

유다서 9절의 모세의 시체를 둘러싼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은 현존하지 않는 『모세의 승천』 관련 전승과 연결되고, 14-15절은 『에녹1서』 1:9을 인용한다(오리게네스, 『원리론』 3.2.1; 『에녹1서』 1:9;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유 9, 14-15절). 또한 6절의 타락한 천사 설명은 창세기 6장에 대한 당시 유대 해석과 가까운 면이 있다. 유다는 독자가 아는 자료를 사용하여 교만한 배교와 확실한 심판을 논증했다.

정경 저자가 어떤 문헌의 한 진술을 참되고 유용한 것으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 문헌 전체가 영감된 정경이 되지 않는다. 바울도 이방 시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 작품 전체를 성경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행 17:28; 딤편 1:12). 유다서의 정경성은 『에눑1서』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아래 사도적 교회가 받은 유다서 자체의 권위에 있다(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서론;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따라서 배경 자료는 본문의 뜻을 밝히는 데 활용하되, 성경과 같은 권위로 교리를 세우거나 천사 세계의 세부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

9. 전체 구조와 흐름

전체 흐름

1-2절은 부르심을 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는 성도에게 긍휼·평강·사랑을 빈다. 3-4절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할 이유로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를 제시한다. 5-16절은 불신한 광야 세대,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 미가엘과 마귀, 가인·발람·고라, 에눑의 예언과 여러 비유를 통해 거짓 교사의 성격과 심판을 밝힌다. 17-23절은 사도들의 경고를 기억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의심하거나 위협에 빠진 이들을 분별 있게 긍휼히 여기라고 권한다. 24-25절은 성도를 지키고 흠 없이 세우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이다.

묵시문학 개론

1. 범위와 정경적 위치

성경의 묵시적 계시는 다니엘·스가랴와 여러 예언서의 환상에서 중요한 형태로 나타나며 요한계시록에서 신약 정경의 장엄한 결말에 이른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이라는 세 성격을 함께 가진다(계 1:1-4; 22:7). 따라서 비밀 연대표나 상징 사전이 아니라 실제 1세기 교회에게 주어진 묵회적 말씀이며, 창세기부터 이어진 창조·언약·출애굽·왕국·성전의 이야기를 최후 심판과 새 창조로 완성한다.

2. 역사·문학적 성격

묵시문학은 환상, 천상 장면, 상징적 인물과 동물, 숫자와 우주적 흔들림을 통해 눈에 보이는 역사 뒤의 영적 실재를 드러낸다. 상징은 현실을 흐리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우상숭배적 권력이 짐승과 바벨론임을 폭로하고, 보좌와 어린양이 참된 역사의 중심임을 보게 한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본 계시를 구약의 언어와 이미지로 전했다으며, 첫 독자는 황제숭배·경제적 압력·거짓 가르침과 박해 또는 타협의 위험에 있던 일곱 실제 교회였다. 묵시는 역사를 부정하는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의 참 의미와 종말을 해석하는 예언적 증언이다(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묵시문학 장; G. K. 빌, 『요한계시록』 서론).

3. 전체 흐름

성경의 묵시적 환상은 대체로 땅의 위기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고, 짐승 같은 제국의 제한된 때와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대조하며, 고난받는 성도에게 현재의 충성을 요구한다. 다니엘의 네 나라와 인자, 스가랴의 말과 뿔과 두루마리, 감람산 말씀의 우주적 표상은 요한 계시록의 용·짐승·바벨론·새 예루살렘을 읽는 정경적 문법을 제공한다. 반복과 재현, 대조와 절정은 묵시 환상의 일반적인 전개 방식이므로 장면을 언제나 촬영된 시간 순서처럼 읽을 필요는 없다. 먼저 이러한 장르의 흐름을 익힌 뒤 각 환상의 위치와 배열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4. 핵심 신학

묵시적 계시의 핵심은 역사의 이중 시야다. 땅에서는 제국과 폭력이 승리하는 듯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기한을 정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상징적 짐승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권력을, 성도와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공동체를 나타낸다. 묵시는 악의 실재와 심판을 가볍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보존은 교회가 우상숭배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와 증언과 인내로 살게 하는 근거다.

5. 그리스도와 복음

구약 묵시에서 사람 같은 이는 짐승 같은 나라들과 대조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를 받고, 신약은 이를 고난 뒤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단 7:13-14; 막 14:62). 십자가는 세상 권력의 승리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죄와 사탄을 무장 해제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부활과 승천은 최종 심판과 새 창조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이 전하는 복음은 고난을 피하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양을 따라 충성하면 부활하신 왕의 나라와 새 창조에 참여한다는 공개된 소망이다.

6. 읽는 방법

상징은 먼저 본문이 직접 풀이하는 의미, 같은 환상 안의 기능, 구약에서의 사용, 첫 독자의 역사적 상황 순서로 살펴야 한다. 같은 상징도 문맥에 따라 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숫자와 색과 방향에 고정된 사전을 만들지 않는다. 예언적 시간 표현은 임박성과 지연, 반복되는 교회 시대와 마지막 절정을 함께 고려하고 날짜 계산의 재료로 삼지 않는다. 묵시는 정보를 많이 아는 독자보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어린양을 따르는 예배자를 만들려는 말씀이다. 세부 견해가 달라도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몸의 부활, 최후 심판과 새 창조라는 정경의 분명한 결론을 중심에 둔다.

요한계시록

1. 정경적 위치와 책의 성격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성경 정경의 마지막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교회가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이다(1:1-4; 22:7). 상징과 환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재와 역사의 종말을 드러내는 묵시이지만, 미래의 암호표나 공포를 위한 비밀문서가 아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음당하고 살아나신 어린양이 역사를 다스리며, 짐승 같은 제국과 바벨론이 심판받고 충성된 증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을 보여 주어 모든 시대 교회를 예배와 분별과 인내로 부른다.

2. 책명

헬라어 첫말 ‘아포칼립시스’는 감추어진 것을 ‘벗겨 보임’, 곧 계시를 뜻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상상에서 나온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들에게 보여 주신 계시라는 뜻이다(1:1). 영어 제목 Revelation도 단수이며, 흔히 말하는 ‘계시록들’이 아니다. 책은 자신을 계시·예언·서신으로 함께 제시한다. 묵시의 상징은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선전 뒤에 있는 짐승의 본질과 고난받는 교회의 참된 하늘 지위를 폭로한다.

3.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자신을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한 ‘요한’이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밧모섬에 있었다고 말한다(1:1, 4, 9; 22:8). 2세기 이레나이우스와 초기 전승은 그를 사도 요한으로 보았으며, 요한복음과 문체 차이가 있어도 장르·상황·필사 조력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 사도 저작을 배제할 결정적 근거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도미티아누스 말기인 주후 95년경을 유력하게 보지만, 네로 말기와 예루살렘 멸망 전후인 60년대설도 있다(이레나이우스, 『이단 반박』 5.30.3; G. K. 빌, 『요한계시록』 서론). 정확한 연대를 한 해로 확정하지 않되, 일곱 교회가 1세기 로마 제국과 황제숭배·지역 종교·경제적 타협의 압력 속에 있던 실제 공동체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4. 역사적 배경·첫 독자·기록 목적

첫 독자는 에베소·서머나·버가모·두아디라·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이었다. 일부는 박해와 빈곤을 견뎠고 일부는 우상 제물과 성적 타협, 거짓 교사, 영적 무기력과 부요함의 자기기만에 빠졌다(2-3장). 로마의 정치·경제·종교 질서는 황제와 도시의 신들에게 충성을 요구했고 거부한 신자는 배제와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목적은 사건 날짜를 계산하게 하기보다 교회가 어린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2:10; 12:11).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보좌와 어린양이 주권자이며 성도의 기도와 눈물과 순교가 잊히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타협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배하게 한다(G. K. 빌, 『요한계시록』;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5. 핵심 주제와 신학

계시록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의 승리다. 죽임당한 어린양은 유다의 사자이시며, 폭력으로 왕권을 얻지 않고 자기 피로 각 나라에서 백성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두루마리를 여신다(5:5-10). 교회도 짐승의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언을 따라 진리와 인내와 자기희생으로 이긴다. 예배는 계시록의 심장이며, 창조주와 구속주께 드릴 경배를 국가·시장·우상에게 바치는 것이 배교의 본질이다. 심판은 변덕스러운 파괴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피 흘린 자를 신원하고 피조세계를 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다.

인·나팔·대접을 완전히 연속하는 21가지 사건표로만 볼 필요는 없다. 각 연속은 전쟁·기근·죽음·우주적 흔들림과 최종 심판을 반복하여 보여 주며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된다(G. K. 빌; 윌리엄 헨드릭슨).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개를 요구하고 자기 백성의 이마에 인치며 증언하도록 보호하지만, 보호는 육체적 고난 면제가 아니라 최종 구원에서 잃지 않으심을 뜻한다. 144,000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서로 다른 구원 계급보다 전투 중 계수된 언약 백성과 승리하여 예배하는 같은 백성을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다(제 7장; G. K. 빌, 『요한계시록』 7장).

6. 언약·하나님 나라·구속사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의 이야기를 새 창조로 완성한다. 출애굽의 재앙과 어린양, 시내산의 제사장 나라, 다윗의 메시아 왕, 다니엘의 인자와 짐승, 에스겔의 성전과 생명수,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다. 어린양은 자기 피로 새 언약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이름을 가진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의 한 백성이 완성됨을 보여 준다(1:5-6; 5:9-10; 21:12-14). 에덴에서 잃은 생명나무와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 성전 자체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양이 성전이며 그 얼굴을 보는 종들이 영원히 왕 노릇하기 때문이다(22:1-5).

7. 그리스도와 복음

계시록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충성된 증인, 땅의 왕들의 통치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으로 선포한다(1:5, 17-18; 5장). 그의 피는 죄에서 해방하고 열방 가운데 새 백성을 사며, 고발자를 이긴다(1:5; 5:9; 12:10-11). 백마 탄 왕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짐승의 권세를 심판하고, 신부를 정결하게 하여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한다. 복음의 결말은 영혼이 물질 세계를 떠나는 탈출이 아니라 부활과 최후 심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의 임재다. 성령과 신부는 목마른 자를 값없이 생명수로 초청하며,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한다(19:6-9; 21:1-5; 22:17, 20).

8. 읽는 방법

계시록을 현대 뉴스·국가·정치인·바코드·백신·기술에 즉시 대응시키거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책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구약 배경과 1세기 일곱 교회의 상황, 본문이 직접 해석하는 상징을 살피고 환상 전체의 중심에서 세부를 읽어야 한다. 숫자도 언제나 문자적 통계나 언제나 같은 상징으로 기계화하지 않는다. ‘이 책의 말쑤에서 더하거나 제한다’는 경고는 정직한 번역과 본문 연구를 금지하는 말이 아니라 예언을 왜곡하거나 거부하지 말라는 언약적 경고다(22:18-19).

짐승과 바벨론은 특정 한 인물·도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숭배와 경제적 복종을 요구하는 제국적 권력의 반복되는 형태를 드러내고 최종 적그리스도적 집종을 바라본다. 교회는 세상 권력을 악마화하며 폭력으로 맞서거나 특정 정당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고, 우상숭배적 충성·착취·사치와 타협하지 않는 증언으로 싸운다. ‘자칭 유대인’과 ‘사탄의 회당’도 모든 유대 민족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박해한 특정 대적자의 언약적 주장에 대한 판단이므로 반유대주의에 사용할 수 없다(2:9; 3:9).

특별 주제: 계시록의 주요 해석 방법

역사주의는 환상을 교회사 연속 사건에 대응시키고, 과거주의는 1세기 예루살렘·로마와 첫 독자의 의미를, 미래주의는 재림 직전의 최종 환난과 심판을, 이상주의는 교회 시대에 반복되는 하나님 나라와 악의 싸움을 강조한다. 각 방식에는 통찰과 한계가 있으며, 모든 종말

사건을 주후 70년에 끝내는 완전 과거주의와 첫 독자의 의미를 지우는 극단적 미래주의는 피해야 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33장; 그랜트 R. 오스본, 『요한계시록』 서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세기 배경, 교회 시대의 반복,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 성취를 함께 보는 수정된 이상주의적·구속사적 절충 접근이 적절하다(G. K. 빌, 『요한계시록』; 리처드 보컴, 『요한계시록 신학』).

특별 주제: 천년왕국의 세 견해

전천년설은 재림 뒤의 특별한 천년 통치를, 후천년설은 복음의 광범위한 역사적 승리 뒤의 재림을, 무천년설은 천년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와 하늘 통치의 상징으로 본다(계 20:1-6;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조지 E. 래드, 『마지막에 관한 것들』). 개혁주의 안에도 견해 차이가 있으나 세대주의의 이스라엘·교회 분리와 환난 전 비밀 휴거는 언약신학과 긴장이 크다. 반복 구조와 20:4의 ‘영혼들’을 고려하면 무천년적 해석에 무게가 실리지만, 어떤 견해도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몸의 부활·최후 심판·새 창조라는 공통 고백보다 앞세우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33장; G. K. 빌, 『요한계시록』).

9. 전체 구조와 흐름

1:1-8

책의 서론이다.

1:9-3:22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를 다룬다.

4-5장

하늘 보좌와 두루마리를 여는 어린양이다. 6:1-8:5의 일곱 인, 8:6-11:19의 일곱 나팔, 12:1-15:4의 여자·용·두 짐승과 성도의 싸움, 15:5-16:21의 일곱 대접은 교회 시대의 고난과 보호와 심판을 반복하면서 최후를 향해 강도를 높인다.

17:1-19:21

음녀 바벨론의 몰락과 어린양의 혼인 및 왕의 승리를 다룬다.

20장

천년과 최후 심판을 다룬다.

21:1-22:5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을 다룬다.

22:6-21

결론이다. ‘성령 안에서’ 본 음녀와 신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대조는 책의 윤리적 선택을 선명하게 한다(리처드 보컴, 『예언의 절정』).

참고서적

구약 참고서적

-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 트렘퍼 롱먼 3세, 『아가』.
- 리처드 S. 헤스, 『아가』.
- 이언 프로반, 『전도서·아가』.
- 더글러스 K. 스튜어트, 『출애굽기』.
- 존 I. 더럼, 『출애굽기』.
- 고든 J. 웬함, 『레위기』.
- 존 E. 하틀리, 『레위기』.
- 앨런 P. 로스, 『여호와께 거룩함』.
- R. 데니스 콜, 『민수기』.
- 제이컵 밀그롬, 『민수기』.
- 고든 J. 웬함, 『민수기』.
- 데니스 T. 올슨, 『민수기』.
- 송병현, 『민수기』.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열왕기』.
- 트렘퍼 롱먼 3세,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
- 트렘퍼 롱먼 3세·레이먼드 딜러드, 『최신 구약개론』.
-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1권.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2권.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3권.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4권.
-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1.
-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구약 2.
- 그레이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 마틴 셀만, 『역대상』·『역대하』.
- 로버트 D. 버젠, 『사무엘상·하』.
- 데이비드 토숨라, 『사무엘상』·『사무엘하』.
- 트럼퍼 롱맨 3세, 『잠언』.
- 그레이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 존 N. 오스왈트, 『이사야』 I-II.
- 알렉 모티어, 『이사야』.
- 트럼퍼 롱맨 3세, 『예레미야·애가』.
- J. A. 톰슨, 『예레미야』.
-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 『예레미야애가』.
- 이안 M. 두기드, 『에스겔』.
- 다니엘 I. 블록, 『에스겔』 I-II.
- 더글러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 송병현, 『호세아-오바다』.
- 싱클레어 B. 퍼거슨, 『다니엘』.
- 어니스트 C. 루카스, 『다니엘』.

- 에드워드 J. 영, 『다니엘서 주석』.
- 존 E. 골딩게이, 『다니엘』.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다니엘』.
- 데이비드 A. 허바드, 『요엘·아모스』.
- 송병현, 『엑스포지멘터리 요엘·아모스·오바다』.
- 데이비드 W. 베이커, 『요엘·오바다·말라기』.

신약 참고서적

- 최용진, 『성경 66권 해설서』.
- 더글러스 J. 무, 『로마서』.
- 존 파이퍼, 『The Future of Justification: A Response to N. T. Wright』.
- 토머스 R. 슈라이너, 『로마서』.
- 존 머리, 『로마서』.
- C. E. B. 크랜필드, 『로마서』.
-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전서』.
- 고든 D. 피, 『고린도전서』.
- 로이 E. 치암파·브라이언 S. 로스너, 『고린도전서』.
- 폴 바넷, 『고린도후서』.
- 머리 J. 해리스, 『고린도후서』.
- 데이비드 E. 갈런드, 『고린도후서』.
- F. F. 브루스, 『데살로니가전후서』.

- 진 L. 그린, 『데살로니가전후서』.
- 찰스 A. 워너메이커, 『데살로니가전후서』.
- 윌리엄 D. 바운스, 『목회서신』.
- 필립 H. 타우너, 『목회서신』.
- 도널드 거쓰리, 『목회서신』.
- E. P. 샌더스,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 제임스 D. G. 던,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및 『Romans』.
- D. A. 카슨, 『마태복음』.
- R. T. 프랑스, 『마태복음』.
- 제임스 R. 에드워즈, 『마가복음』.
- 로버트 H. 스타인, 『마가복음』.
- 윌리엄 L. 레인, 『마가복음』.
- D. A. 카슨, 『요한복음』.
- 레온 모리스, 『요한복음』.
- 안드레아스 J. 퀴스텐베르거, 『요한복음』.
- 더글러스 J. 무, 『골로새서·빌레몬서』.
- 피터 T. 오브라이언, 『골로새서·빌레몬서』.
- J. A. 피츠마이어, 『빌레몬서』.
- 스캇 맥나이트, 『빌레몬서』.
- 토머스 R. 슈라이너, 『히브리서』.
- 조지 H. 거쓰리, 『히브리서』.
- 피터 T. 오브라이언, 『히브리서』.
- 더글러스 J. 무, 『야고보서』.

- 캐런 H. 줍스, 『베드로전서』.
- 토머스 R. 슈라이너, 『베드로전후서·유다서』.
-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전서』.
- 더글러스 J. 무, 『베드로후서·유다서』.
- 피터 H. 데이비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 진 L. 그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 리처드 보컴, 『유다서·베드로후서』.
- 존 스토티, 『요한서신』.
- 콜린 G. 크루즈, 『요한서신』.
- 로버트 W. 야브루, 『요한서신』.
- 이. 하워드 마셜, 『요한서신』.
- G. K. 빌, 『요한계시록』.
- 그랜트 R. 오스본, 『요한계시록』.
- 로버트 H. 마운스, 『요한계시록』.
- 리처드 보컴, 『요한계시록 신학』·『예언의 절정』.
-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 D. A. 카슨·더글러스 무, 『신약 개론』.
- D. A. 카슨·더글러스 무, 『손에 잡히는 신약 개론』.
-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고든 D. 피·더글러스 스튜어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5권.
- 이안 두기드 외, 『리딩지저스』 6권.

-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신약.
- 그레이엄 골즈워디, 『복음중심 해석학』.
- 그레이엄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 시드니 그레이다누스,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 싱클레어 B. 피거슨, 『성령』

성경 66권의 큰 흐름과 핵심을 한눈에 살피는
개론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열 가지 큰 묶음,
각 권의 배경과 구조, 핵심 주제와 구속사적
의미를 정리하여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읽도록 돕습니다.

값 5000 원



9 791191 518658

ISBN 979-11-91518-65-8 (PDF)